

일 자 리
찾 아
세 계 로

해 외
취 업
완 전
정 복

인 도
네 시 아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 취업
완전 정복

인도
네시아





인도네시아 취업 한눈에 보기



01 구직초기단계

인도네시아 국가정보 탐색

- 1. 국가 일반 및 노동시장 동향 p.12
- 2. 정착 및 생활정보 p.182
- 3. 고용제도, 임금제도 p.56

인도네시아 취업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

- 1. 자기 준비상태 점검 p.116
- 2. 성공·실패사례를 참고한 나의 강점 및 약점 파악 p.146

02 본격적인 구직준비단계

인도네시아 취업정보 탐색

- 1.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Kotra 와 같은 공공기관 활용 p.130
- 2. 인도네시아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활용 p.142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 공공기관,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취업알선업체를 이용하여 구직준비 p.142

취업유망분야 및 취업절차 파악

- 1. 인도네시아의 취업유망분야 및 필요 역량 p.90
- 2. 인도네시아 취업 절차 확인 p.110

03 구직 및 면접 진행단계

채용공고 확인

월드잡 홈페이지, 개별 기업 홈페이지, 현지 구인구직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등 활용 p.130

입사 지원

- 1. 각 사이트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 p.112
- 2. 취업절차 핵심포인트 확인 p.110

면접 진행

지원한 회사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리더십·회사 비전·산업 특성 등과 관련된 예상 질문을 철저히 준비 p.23

승인허가서 및 비자 발급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체류비자(KITAS) 취득 절차 진행 및 외국인 근로허가 신청 p.168

04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정착 및 생활

인도네시아 정착 및 생활정보

- 1. 집 구하기 p.182
- 2. 은행 및 통장개설 p.185
- 3. 각종 유틸리티 개설 p.186
- 4. 비즈니스 및 생활 에티켓 p.190



인도네시아 취업 SUMMARY



☑ 왜 인도네시아인가?

인구 2억 7천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 전 인구의 86%가 이슬람 교도로서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국토의 동서 방향 길이가 6,000km를 넘어 그 길이만으로 유럽의 절반 정도를 덮을 수 있는 국가. 최근 연 평균 6~7%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고성장 국가. 300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족마다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복잡 국가. 바로 인도네시아이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해외 취업지원자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볼 만한 국가임이 분명하다. 35,000여 명에 달하는 현지 우리나라 교민들도 해외취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네트워크 요인이 분명하다. 최근의 국가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성장의 기회 또한 풍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많은 기업인들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이제 막 인도네시아 사회에 발을 디딘 취업 선배들은 인도네시아 취업 과정에서의 많은 장애요인들을 토로하고 있다. 성장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나,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과 도전요소들이 같이 있다는 것. 동시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국민 우선 일자리 정책으로 외국인 취업 지원자들의 기회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전은 응전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꿈이 있다면 길도 찾을 수 있다. 본 책자에서 소개하는 2편의 성공사례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도네시아에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 인도네시아 취업 유망분야

우리나라 취업 준비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은 (1)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2) 인도네시아 현지 대기업, (3)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력이 많지 않은 해외취업 준비자의 관점에서는 마지막 유형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계 기업은 기술 전문직을 제외한 경우 일정 수준의 인도네시아어 능력을 갖추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경우에 글로벌 기업에서 적용하는 매우 엄격한 취업비자 요건 등의 측면에서도 일부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현지 채용인에 비하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한국인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와 처우(예, 교통 및 숙소 등)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의 관점에서 채용 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봉제(의류, 신발)업이며 무역/유통, 일반제조, 건설업도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 유망 분야인 스마트폰 앱개발 등의 인기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유효하며, 최근 풍부한 니켈 등의 자원에 기반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인도네시아 채용 트렌드 및 핵심역량

최근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한국인 구인 수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처는 인도웹(Indoweb, <http://www.indoweb.org/love/>)이다. 현재 K-Move의 월드잡플러스와 연계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 양쪽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구인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한국계 기업이며, 주로 구인이 진행되고 있는 직종은 생산관리직, 수입 및 유통(물류), 경영관리, 그리고 영업/마케팅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한국계 기업에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 한국 및 해외국가 대상 수출입과 물류 관리 업무, 영업관리와 마케팅 및 경영관리 직무들로 주로 구성되어, 한국계 기업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업무에 능숙한 한국인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분야별 취업 요구역량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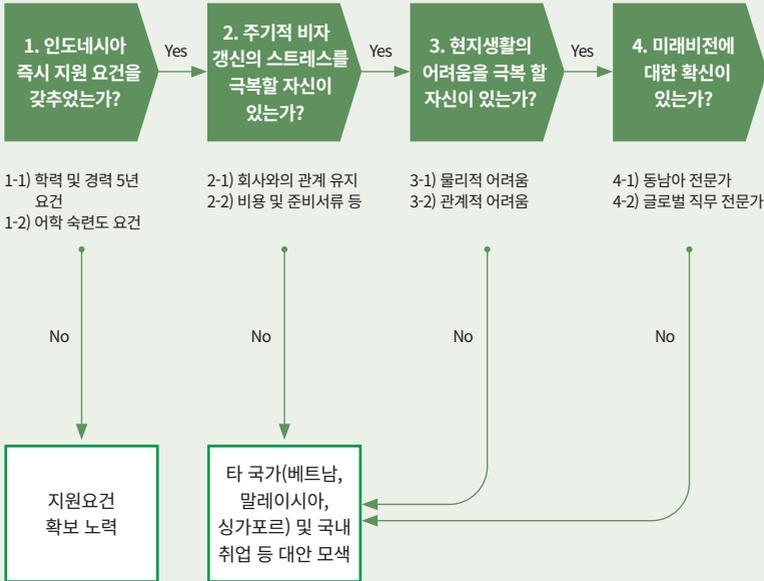
분야별 직무 역량				
생산관리	수출입 통관/물류	영업/마케팅	경영관리	서비스
생산공정 이해	관세 관련	의사소통	규정 및 절차 이해	의사소통
설비 및 장비 이해	법령이해	네트워킹	세무/회계	문제해결
노동 관련 법령	수출입 통관	기획력	의사소통	시간관리
문제해결력	제품이해	실적관리	문서 작성	
공통역량				
인도네시아어 (대화 및 문서 작성 가능수준)	Grit (끈기와 기개)	영어 (생활영어 수준)	다문화 이해 (특히, 이슬람 생활문화 이해)	



인도네시아 취업을 위한 자기분석 체크리스트



인도네시아 취업을 위한 자가 점검 항목



우선적으로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및 공통역량의 준비도 수준에 대한 내용과 취업비자 신청 가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관련 전공 대학 졸업과 5년간의 근무 경력 (및 25세 이상)이 공식적인 취업비자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꼼꼼하고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 이후 주기적 비자갱신을 위해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고용주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견뎌낼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며,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 경력 개발 및 경력계획의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취업 이후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물리적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된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 도심지역 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에서 근무하고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평소의 삶의 질 측면에서 불만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근 경제규모의 상승과 맞물려 급상승하고 있는 집세(월세)와 물가수준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연애와 결혼의 과정도 인도네시아의 상황에서 쉽지 않다. 이러한 불편함의 요소들이 결국 대부분의 취업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장애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취업 이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성공적 해외취업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을 넘어선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특정 직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직무 전문가로서 성장하겠다는 명확한 미래비전의 수립과 이에 대한 몰입이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점검요소이다.



CONTENTS



PART 01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01 국가정보	012
02 노동시장 동향	048
03 고용관련 제도	056
04 임금제도	072
05 사회보장제도	076
06 개인소득세	078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084
02 직종별 채용 트렌드 및 취업역량	098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110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116
05 주요 로컬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120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130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134

PART 04



해외취업 사례

01 성공사례	146
---------	-----

PART
05



취업비자

01 취업비자 종류	168
02 취업비자 신청 및 취득	174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01 정착	182
02 생활	184
03 생활 에티켓	190

PART
07



해외 취업 Q&A

01 비자	198
02 유망직종	198
03 현지 언어 실력	199
04 갖추어야할 스펙	199
05 면접 시 유의사항	200
06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	200
07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200
08 급여 수준	201
09 현지생활 시 주의사항	202

PART

01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01

국가정보

-

02

노동시장 동향

-

03

고용관련 제도

-

04

임금제도

-

05

사회보장제도

-

06

개인소득세



01 국가정보

01. 일반사항

인도네시아는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이며, 아시아와 호주대륙 사이의 북위 6도, 남위 11도, 동경 97도에서 서경141도 사이에 위치에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위치는 국가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3,977마일의 길이로 길게 뻗어진 인도네시아는 오세아니아 대양을 포함해 1,904,569km² 평방마일 면적을 자랑한다. 가장 큰 5개 큰 섬을 꼽자면, 칼리만탄(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 539,460km²), 수마트라(473,606km²), 파푸아(421,981km²), 자바(132,107km²), 술라웨시(189,216km²)이다.

영토가 넓고 종족이 다양한 만큼 각 대륙별·민족별 특성이 뚜렷이 구분된다.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지도층이 가장 많은 자바(Java, Sunda)인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 민족이다. 일반적으로 성품이 자상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깊이 있는 판단과 도량이 넓은 처신을 하며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맛이 단 음식을 좋아하고 성격이 느긋하여 서두르지 않는다고도 한다.

수마트라인, 특히 북부지역 사람들(Batak)은 거칠게 보이나 사귄수록 관계가 돈독해지며 다소 직선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법조계, 군부, 종교계, 학계에 많은 인사가 진출해 있고 과격한 인사도 종종 관찰된다. 이들은 한국인과 비슷하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슬람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는 비중이 높다.

~ 인구가 적은 술라웨시와 칼리만탄인은 정계와 군부 등에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용되는 경우에도 지역 안배 등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경우가 많다. 흑인이 많은 파푸아(이리안자야), 티모르 등지의 출신이 사회지도층이나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수는 매우 적은 편이나, 최근 체육 분야에서 성공한 인재가 종종 관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말레이시아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는 서쪽지역은 대부분 말레이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부지역의 경우 300여 종족에 달하는 매우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부자바 및 동부자바의 경우 주로 자바인이 거주하고, 서부자바는 순다인, 북부수마트라는 바타인이 주로 거주한다. 넓은 지리적 범위로 인해 중국, 인도 및 아랍 후손의 소수 인종도 무시 못할 규모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출신지방, 지역별로 각기 종족들이 다르고 언어 또한 각각 다르다.



국가개요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위치	동남아시아
면적	190만km ²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수도	자카르타(인구 약 1,032만 명, 면적 661km ² - 서울 면적 605km ²)
주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바섬: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수마트라섬: 메단, 팔렘방, 파당 칼리만탐: 뽀띠아낙 술라웨시섬: 마카사르 발리섬: 덴빠사르
인구	약 2억 7,577만 명(2022년 기준, 세계 4위)
환율	US\$ 1 = RP 14,924, KRW 1,000 = RP 11,360 (2022, Bank Indonesia)
민족	자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딕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언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종교	이슬람교(87.2%), 기독교(6.9%), 가톨릭(2.9%), 힌두교(1.7%), 불교(0.7%), 유교(0.05%)
시차	한국보다 두 시간 늦음
건국(독립)일	1945년 8월 17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조코위도도) 집권: 2014년 10월 ~ (임기 5년, 연임 중)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정부, Bank Indonesia (2022)



민족이 다양한 만큼 언어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인도 및 아랍후손들의 경우 기원전 8세기부터 무역 상인으로 교류하다 인도네시아로 이주했다. 정확한 최근 수치는 알 수 없지만, 1930년대 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의 3%가 화교였다.

체크포인트 - 인도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와 인도(Rupublic of India)는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 이 해외취업 완전정복을 읽고 있는 독자의 경우 그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다. 수출입 등 무역업무에서 국가명을 단순화해서 부르는 코드명은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로 각각 활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명을 혼동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그렇다면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국가명칭에서 ‘인도’라는 동일한 단어가 우연히 사용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즉,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는 지금의 인도(Republic of India)와 같은 용어이다. 이는 15세기 서구유럽의 해상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황당한 지리적 착오에서 기인한다. 인도의 진귀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서양이 아닌 태평양을 횡단하여 신대륙에 진출한 콜럼버스 등은 당시 발견한 신대륙을 ‘서인도’로 불렀는데, 이는 사실 미주대륙이었다.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의 한계에 따른 해프닝인 것이다. 미주대륙을 인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북미원주민을 뜯금없이 인디안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후 현재의 인도를 서인도와 구분되는 동인도로 부르면서 ‘동인도회사’의 명칭이 일상화되었다. 15세기 서구열강이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에 도착하면서, 이 지역 일대를 인도의 섬(인도스 너세스)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다. 즉, 서구에서는 현재의 인도네시아를 “인도 앞바다의 섬들”이라는 개념으로 불렀던 것이다. 현재의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명칭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사용되었는데, 서구에서 처음 사용하던 “인도스 너세스”라는 명칭이 굳어진 것이다.

02. 한-인도네시아 관계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1966년부터 가깝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오고 있다. 1973년 양국의 외교관계가 성립되고 나서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우방적 관계는 양국의 대통령 방문과 고위 공직자들 방문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최근 10년간 큰 성과를 얻었다. 2006년 6월 9일 두 외무부 장관 주재 공동위원회가 설립됐고, 2006년 12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기간에 양국의 두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동선언'에 서명을 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거대한 인구규모는 노동력, 시장 잠재력과 쌍을

이루며 한국의 첨단기술, 자본, 숙련된 경영으로 조화롭게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국가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양국 간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에서도 실제 나타난다. 최근 KFX 전주기 사업에도 인도네시아가 투자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 한-인도네시아 관계

체결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1971년 8월) • 건설협력 양해각서(1981년 7월) • 임업협정(1987년 6월) • 항공협정(1989년 9월) • 이종과세 방지협정(1989년 11월) • 투자보장협정(1991년 2월) • 범무자료 교환협정(1996년 12월)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1997년 11월) • 건설협력약정(1999년 4월) •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2000년 11월) • 사법공조협정(2002년 3월) • 자원협력협정(2002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협력약정(2003년 1월) •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2006년 12월)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2006년 5월 체결, 2007년 6월 발효)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2007년 11월 체결, 2009년 5월 발효)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2009년 6월 체결) • 한-인도네시아 공동비전성명 발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격상(2017년 11월) •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 한국방문 (2019)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서명 (2020.12.18.)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 인도네시아 수출: 63억 달러, 對 인도네시아 수입: 76억 달러 • 총 교역액: 139억 달러(2020년)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합성고무, 건설중장비, 선박 • 수입품: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천연고무, 니켈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 : 2021년 상반기 총 10.8억 달러 (투자 5위) 	
교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00명 (사회문화비자, KITAP, ITAS 대상) (2019. 인도네시아 대사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투자청,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무역부(2022)

03. 경제지표

인도네시아 경제지표

지표	단위	2020	2021년	비고
GDP	USD(억)	1058.69	1186.09	
1인당 GDP	USD	3757.12	3855.80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	USD	12072.44	12904.34	
GDP성장률	%	-2.07	3.69	
실업률	%	6.49	5.83	
물가상승률	%	3.55	4.35	
금리	%	3.5	3.5	
무역수지	USD(백만)	5,090	2,900	
GDP 대비 경상수지	GDP비율	-0.44	0.4	
GDP대비 정부부채	GDP비율	30.5	38.5	
취업자수	명	131,064,305	135,611,895	
경제활동 참가율	%	68.08	6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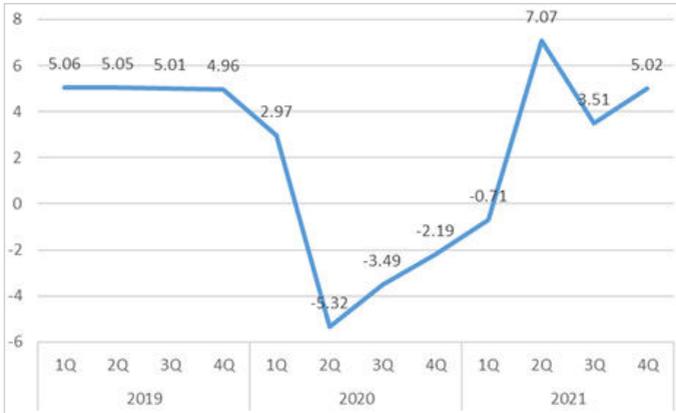
자료 : IMF,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투자청, Bloomberg, Trading economics, EIU, CIA World Factbook 기준

04. 경제동향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3.69%로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율에서 반등에 성공하였다. 2021년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역성장을 거듭하다가 2021년 2분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2021년 2분기 성장률은 7.07%로, 이는 2004년 4분기(7.16%) 이후 17년 만의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1년 4~5월 확진자 급감으로 주민 이동성이 늘어났고, 최대 명절인 르바란 효과로 인한 소비 증대, 제조업 활성화, 수출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각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이자율 조정, 즉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 향후 경제 전망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함께 저조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V자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인도네시아 역시 동일한 상황이다. 2021년의 인도네시아 정부 목표 경제성장률은 4% 수준이었으나, 이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예년의 5%대 성장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의 주요 경제 기관 등은 예년과 같은 5%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세계은행 5.2%, 국제통화기금 5.9%, 아시아개발은행 4.8%, 인니 재무부 5.2%, 인니 중앙은행 5.5%, 인니 국립대학교 5.1% ~ 5.4%). G20 대표국가로서 인도네시아의 견조한 성장에 대한 예측이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과 같이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건 및 사회보장분야의 지출은 전체 지출안의 25%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의 18%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3.31. 대통령 긴급명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0)을 통해 2020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까지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현행 국가예산법상의 한도인 3%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개발단계의 국가에서 항상 나타나는 재정적자의 문제도 최근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2년 5월 19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2022년 재

정 적자가 868조 인도네시아 루피아(한화 약 75조 1,618억 원)에서 840조 2,0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한화 약 72조 7,545억 원)로 낮아질 것이라 밝힌바 있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4.75%로 동결해왔고, 인도네시아 및 해외 금융정책 전문가 그룹은 하반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을 상승 가능성과 미연방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8월과 9월에 2차례 금리를 인하하여 2017년 12월에는 금리가 4.25%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초를 기점으로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이 14,000대를 넘어감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25%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로 경제 성장에 대한 통화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2022년 5월 24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3.50%로 동결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3.50%로 유지했다.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융긴축 가속에 따른 불투명감에 대응해 경기회복을 지원하고자 금리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단,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금리 인상의 추세가 예상된다.

환율에 따른 금리변동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는 편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 경우 금리와 환율변동에 대한 사전 정보 확인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 저축을 통한 재테크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 금리 및 환율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는 현 3.50%이나,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까지 5%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중앙은행은 5차례의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3.7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1.2월 한 차례 더 인하하여 현재의 3.50%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완화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22년 최소 5차례의 급격한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의 금리정책은 인플레이션 부담 등으로 다소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체크포인트 - 인도네시아의 한국 금융기관 현황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준 이자율은 1.7~6%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큰 편차를 보인다. 지역별, 은행별 이자율 편차가 심하기에 적금 관련 의사결정에는 발품을 팔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 시중 은행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현지 법적 규제로 인해 국내 은행은 현지 은행의 인수를 통해 진출하고 있기에, 은행 창구에 한국인 직원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금융회사 현황

도시명	권역	회사명	진출형태
자카르타	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
		한국수출입은행	사무소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현지법인
		IBK기업은행	사무소
	보험(생명보험)	한화생명	현지법인
	여신전문	삼성화재	현지법인
		동부화재	사무소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지법인	
수라바야	은행	신한은행	현지법인
반둥	은행	우리은행	현지법인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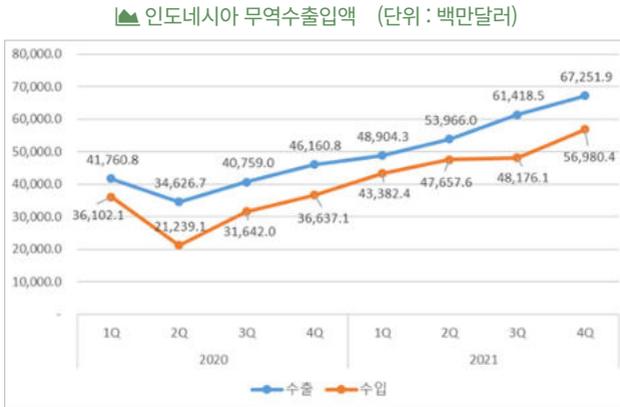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이후 환율 급등을 겪었으며, 구체적으로 2020년 3월말~4월초 환율 급등 이후 1달러당 14,000 IDR 대의 안정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어, 올해도 현재 환율 약 14,300 IDR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1 USD = 13,500 ~ 15,500 IDR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화폐단위가 우리나라와 같이 매우 숫자가 크게 보여서 현지에서 다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큰 변화가 없다면 대략 1달러는 14,000 루피아라고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의 1,000원 기준으로는 12배 정도를 계산하면 된다. 현지에서는 만약 특정 물건의 가격이 15,000 루피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또는 1,300원 정도로 어림짐작해서 손쉽게 계산하곤 한다.

그러나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은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의 금융시장에 환율상승, 즉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환율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향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대응과 인

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액 증가,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의 증가세 유지 및 원자재 가격 강세 등은 인도네시아 통화가치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인도네시아의 환율은 당분간 혼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 및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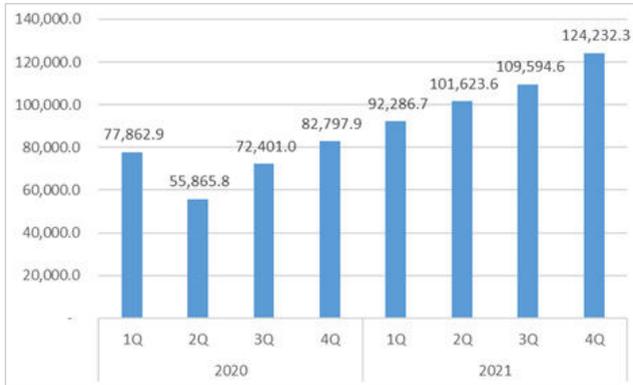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경제에서 수출은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수출 상품인 석탄과 팜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출 및 수입이 2020년 대비 2021년 각각 41.9%, 38.6%로 크게 성장하였다.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인 4,277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0%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점차 견고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021년 기준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는 광물성 연료와 동식물성 원유 등의 원자재였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석탄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액은 379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2.2%가 증가하였다. 이는 작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석탄, 원유,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광물성 연료 중 석탄의 수출액 비중은 58.3%로 전년 대비 79.9%가 증가하여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석탄 가격의 급등으로 무역수지의 성장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국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발전 등으로 산유국으로서 석유의 수출이 수입보다 적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선되면서 에너지 교역분야의 긍정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Indonesia Trade Balance (Unit: Billion USD)



Source: Indonesia Statistics

Domestic Coal Price (USD/Ton)



Source: Trading Economics

Indonesia Major Export Products (Unit: Billion USD)

Product	2020	2021	Change (%)
Mineral raw materials	255.1	451.1	76.9%
Food raw materials	207.2	328.3	58.5%
Iron and steel	108.6	209.5	92.9%
Electrical products	92.3	117.8	27.6%
General cargo	66.0	86.4	30.8%

Source: Indonesia Statistics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연료와 기계류의 수입액이 각각 288억4천만 달러, 258억5천만 달러로 가장 높았다. 특히 원유는 전체 연료 수입액의 49.2%를 차지하였으며,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재개에 따라 철강 수입액도 전년 대비 74.4%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의 규모가 커서 연료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석유 수입국이다.

☐ 인도네시아 주요수입품목 (단위: 억달러)

품목	2020	2021	증가율
광물성 원료	255.1	451.1	76.9%
동식물성 유지	207.2	328.3	58.5%
철강	108.6	209.5	92.9%
전기제품	92.3	117.8	27.6%
일반차량	66.0	86.4	30.8%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983억5천만 달러), 미국(331억8천만 달러), 일본(293억1천만 달러) 순으로 예년 순위와 동일하였다. 최대 수출입국은 중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1.6%, 수입 41.9% 증가하였으며, 교역액 비중은 전체 25.6%로 미국 8.6%와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 주요국별 수출입액 (단위: 억달러)

국가	2019			2020			2021.11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중국	728.9	449.3	279.6	714.2	396.3	317.8	983.5	499.1	484.4
미국	271.1	92.6	178.4	272.0	85.8	186.2	331.8	100.4	231.3
일본	316.7	156.6	160.0	243.4	106.7	136.6	293.1	133.0	160.1
싱가포르	305.1	175.9	129.2	230.0	123.4	106.6	238.2	137.8	105.2
말레이	165.8	77.8	88.0	150.3	69.3	81.0	194.7	84.7	110.0
한국	156.6	84.2	72.3	133.6	68.5	65.1	165.7	84.8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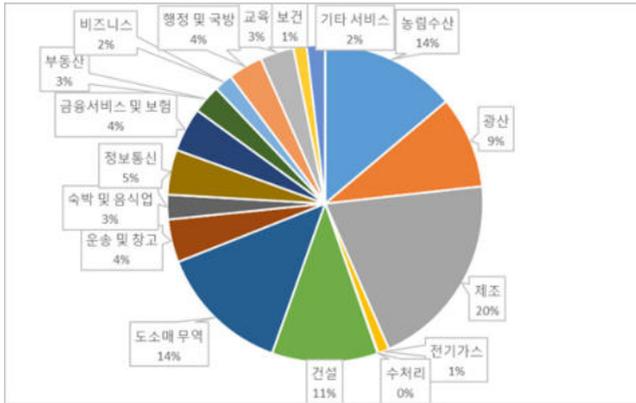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05. 산업동향

④ 개요

인도네시아의 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낙농업, 임업, 어업분야가 14%, 도모 새 무역이 14%, 건설업이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④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비중 (2021년)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제조업에서 섬유·봉제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산업이나, 최근 임금상승, 설비 노후화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 산업은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분야가 주종으로 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한·일 기업 외 Polytron, Maspion, Sanken 등 인도네시아 독자브랜드와 중국 Midea 등이 선전하고 있다. 2017년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식음료 분야(30.45%)이며, 그 다음으로 석유가스분야(11.28%), 철강, 컴퓨터, 전자기기, 정밀기기 분야(9.22%) 교통 산업(9.01%), 화학 및 제약 분야(8.62%), 석탄 및 정유 분야(18%), 비철금속 분야(3%)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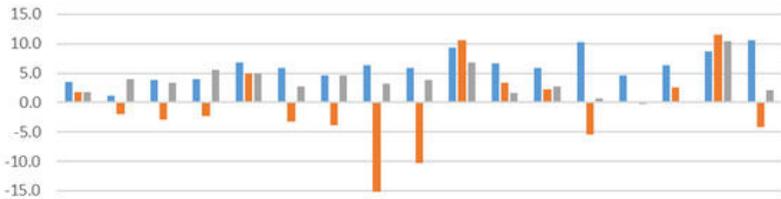
자동차는 인도네시아 국내 조립 일본차가 시장점유율 약 9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 및 도로사정, 정부 조세제도에 따라 승합차 부문이 집중 성장했고,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농업 분야의 주요 농산물로는 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 옥수수 등이 있으며 팜오일 생산량은 세계 1위, 고무는 세계 2위, 카카오는 세계 3위, 커피는 세계 4 위 생산국이다.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2017년 기준 3,85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그 비중은 세계 전체 팜오일 생산량의 55.4%에 달한다. 이 중 3,105만 톤은 수출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팜오일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고무의 재배 면적은 350만 헥타르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고무 및 관련 제품의 총 수출 실적은 2016년 56.6억 달러, 2017년 77.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8년 4월까지의 수출실적은 약 22억 5,37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08% 감소하였다. 천연고무의 수출은 세계 경제 동향에 따라 다소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건설 분야는 2014년 신정부 수립 이후 크게 성장했으며, 특히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 산업이다. 2017년은 예년에 비해 성장률이 2.53%로 다소 낮으나, 2018년 기준 최근 3년간 추진됐거나 및 예정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아, 향후 관련 기업의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 기반시설(도로, 도시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건설 분야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2019-2020 국내총생산 전반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의 타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2020년 대비 대부분의 산업이 성장하였으며,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 부문의 활성이 성장을 견인하였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분야는 코로나19 수요가 많았던 보건 분야로 10.5%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별 경제 성장률 (단위 %)



	농림 수산	광산	제조	전기 가스	수처리	건설	도소 매 무역	운송 및 창고	숙박 및 음식점	정보 통신	금융 서비스 및 보험	부동산	비즈니스	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기타 서비스
■ 성장률 2019	3.6	1.2	3.8	4.0	6.8	5.8	4.6	6.4	5.8	9.4	6.6	5.8	10.3	4.7	6.3	8.7	10.6
■ 성장률 2020	1.8	-2.0	-2.9	-2.3	4.9	-3.3	-3.8	-15.1	-10.3	10.6	3.3	2.3	-5.4	0.0	2.6	11.6	-4.1
■ 성장률 2021	1.8	4.0	3.4	5.6	5.0	2.8	4.7	3.2	3.9	6.8	1.6	2.8	0.7	-0.3	0.1	10.5	2.1

■ 성장률 2019 ■ 성장률 2020 ■ 성장률 2021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종합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시장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국가 중 하나이며 서비스 산업 규모 측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규모면에서도 독보적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반면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업종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향후 유통, ICT, 물류서비스 등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 국가산업개발 주요 계획(RIPIN)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2015~2035년 국가 산업개발 주요 계획(RIPIN)」을 수립, 추진 중
- 6대 핵심 산업군으로 중장기적인 내수 증가 전망과 개발 잠재력, 일자리 창출기여도를 바탕으로 식량, 화장품 및 의약, 섬유, 교통, 전자 및 정보통신, 전력 산업을 선정
- 식량, 섬유, 의약 및 전력산업 등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며, 향후에도 내수 충족을 위해 개발이 매우 절실한 산업군에 해당
- 전자 및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산업은 혁신과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연결망을 확충해 사회간접자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산업군에 해당
- 추가적으로 보조산업(자본재, 부품, 부자재산업) 및 상공정산업(농업, 광물, 석유가스 및 석탄)을 지정, 핵심 산업과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산업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Industry 4.0 Roadmap)을 2018년 4월 18일에 발표하였으며, 이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바이오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의 주요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 명시된 중점 육성 분야는 식음료,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화학 등의 5개의 주요 산업 분야이다.

📍 주요 산업별 동향

▶ 농림수산식품(팜오일)

팜유(palm oil)란 학명으로 엘라에이스 기네엔시스(Elaeis guineensis)라 불리는 기름야자나무(oil palm tress)의 과실에서 추출된 기름이다. 팜유는 기름야자 과실(fleshy fruit)을 짜내어 얻어낸 팜 원유(palm oil)와 기름야자 알맹이를 으깨어 기름을 추출한 야자 핵기름(palm kernel oil)으로 나뉜다. 기름야자 나무는 아프리카가 원산지이지만 100년 전에 관상용 묘목으로 동남아시아에 도입되었다. 현재 42개국이

팜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세계 팜유 공급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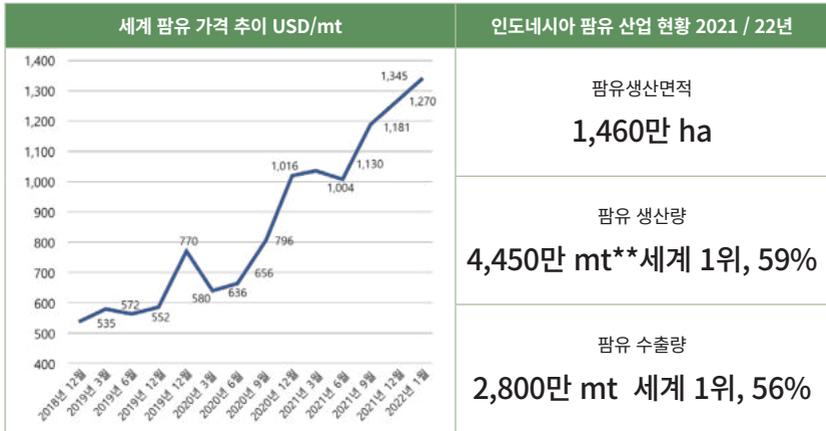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팜유의 생산과 수출에서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 대부분을 수출하는 말레이시아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도 팜유를 식용유와 바이오디젤(bio diesel)원료로 활용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팜유 소비국이기도 하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인구규모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팜유 생산은 대규모의 지역에 기름야자나무를 집약적으로 재배해야 하는 토지집약적 산업이다. 그러다 보니 팜유의 플랜테이션은 열대우림의 파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화석연료의 대체 연료로 지속가능성있는 재생에너지원의 연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액체형태의 바이오연료(biofuel)인 바이오디젤이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5년까지 세계 10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개발 청사진을 수립하면서,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디젤에 팜유기반 바이오연료 함유량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B30'정책을 수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주요 기업들로는 Wilmar Group, Sinar Mas Agro Resources and Technology(SMART), Indofood Agri Resources, 말레이시아에서 진출한 IOI CoRP Astra Agro Lestari 등이 있다. 2016년 기준 팜오일 농장 소유 비중은 대기업이 52.88%, 개인 소작농 40.49%, 국영기업이 6.63%를 차지하고 있다. 팜오일 산업은 개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많은 개인 소작농이 팜오일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총 인구 약 2억 7,000만 명 수준인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인구 기준 32.3%가 농업에 종사 중이며, 그 중 팜유산업 종사자는 5,500만 명 이상이다. 대략 대한민국 전체 인구 규모가 팜오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준이다. 농업 종사자들은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 내 1,400만 헥타르의 팜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농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농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수마트라로, 전체 농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에 부가가치를 더하기 위해 단순 팜오일 형태의 수출보다 타 제품으로의 국내 가공을 촉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 농업 부문에서도 팜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농작물 생산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팜 작물의 생산량 및 증가율이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 인도네시아 팜유산업현황 (2021/22년)



*2011년 당시 환율 **mt=meter ton 자료 : statista.com

☑️ 체크포인트 -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의 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오일은 국가 전략산업이라 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고, 관련 종사자가 많은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5,500만 명 정도가 팜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집계된다.

팜오일은 가격이 저렴하여 차세대 에너지원 중 하나인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팜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이 친환경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식물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든 바이오원료를 탄소중립적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작물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면적을 감소시키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탄지(泥炭地)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모순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팜유생산을 위해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영리단체인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원탁회의(RSPO)'가 발족되었고, 팜유 관련 7개 산업 당사자들과 은행, 투자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였다. 이어 2017년 EU는 팜유 및 열대우림 벌채에 관한 의회 결의안을 채택, 이후 팜유에 대한 제재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항소기관에 EU의 팜유 제재행위를 제소한 상태이다. 2021년 인도네시아는 자국산 바이오디젤 제품에 부과된 RU의 반덤핑수입의무 보복관세에 승소하여 8.8%로 원상회복하기도 하였다. 향후 지구온난화의 대응을 위한 바이오디젤 관련 팜유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팜유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도네시아 팜유 소매가격도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수출세를 높이고 한때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으나(2022.4.22.), 한달 만에 폐지되기도 하였다(2022.5.23.). 국내 식용유가격의 급등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조코위도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아지면서 팜유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광물/자원개발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광업 생산국으로 유명하며, 주요 채굴 자원은 석탄, 동, 금, 주석, 니켈 등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량의 40% 이상은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기에 석탄의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5번째 석탄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석탄 수출국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시대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석탄에 대한 전 세계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16일 주요 G7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석탄 사용의 단계적 중단 노력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G7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의 탈(脫)탄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석탄개발을 재생에너지 개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첫 단계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세네갈의 친환경 에너지 이행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7 국가들은 2022년 5월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개발도상국의 탈탄소 지원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남아공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85억 달러(한화 약 10조 8,174억 원)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매체인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주로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베트남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탈탄소 구상을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차원의 기금도 마련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사용 중 석탄 사용량이 287만 8,787테라줄(TJ)이며 이는 에너지 총공급량의 30%에 달한다고 한다.

석유자원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오랜 석유생산 역사를 지닌 나라 중 하나로, 세계 27위의 원유 매장량 보유국이다. 그러나 매장량 고갈과 투자 부족으로 원유의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부터는 석유 순수입국이 됐다.

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매장량 세계 14위, 생산량 세계 10위, 수출량 세계 5위의 국가로서 활발한 생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주목되고 있는 광물은 구리이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

☑ 체크포인트 - 석유를 수입하는 산유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1990년대 한때 하루 170만 배럴에 이르렀으나, 시설 노후화와 매장량 고갈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하루 80만 배럴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2004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석유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석유수입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량 저하는 석유와 가스자원 70%가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의 깊은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데에 기인한다. 그래서 앞으로 석유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깊은 바다를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심해탐구는 비용이 많이 들고 탐구실패 가능성이 더 많아 투자자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기업에 부과하던 세금을 폐지했다고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이 2017년 7월 20일 보도했다. 유니르완사 인도네시아 국제청 규제국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유전 및 가스전 탐사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석유·천연가스 탐사기업에 부과돼 온 부가가치세와 관세, 토지세 등은 전면 폐지된다. 유니르완사 국장은 "이번 조치는 신규 유전 및 가스전 탐사 활동을 활성화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8년 11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아적장에 석유가 든 드럼통이 쌓여 있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온배터리의 음극 집전체로 많이 활용되는 구리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2021년 기준 구리정광은 전체 수출품목 중 6위를 차지했으며, USGS 2022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구리정광 생산량은 81만 톤, 매장량은 2,400만 톤이다.

단일 광산 규모로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위치한 Grasberg 광산이 칠레의 Escondida 광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구리 광산이다. 이 외 숨바와 지역의 Batu Hijau 광산과 Elang 광산, 자바 동부 반유왕기에 위치한 Tujuh Bukit 광산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광업서비스협회 홍보팀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Grasberg 광산은 노천 채굴에서 갱내 채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리 생산량이 다소 줄었으나 2022

년부터 정상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는 말루쿠에 위치한 PT Batutua Tembaga Raya와 그레식에 위치한 PT Smelting에서 운영하는 2개의 구리 제련소가 있다. PT Batutua Tembaga Raya는 약 210만 톤의 정광(구리 등급 : 2.8%)을 투입해 생산할 수 있는 음극재용 구리는 연간 3만~4만 톤이다. PT Smelting의 제련소는 160만 톤의 정광(구리 등급: 20.6~22.5%)으로 연간 30만 톤을 생산한다.

한편, 구리 제품 생산량 증대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2023년까지 2개의 구리 제련소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PT Freeport Indonesia(그레식)와 PT Amman Mineral Nusa Tenggara(숨바와)는 2021년 10월과 12월에 제련소 기공식을 진행했으며, 두 제련소에서는 각각 200만 톤과 1300만 톤의 정광을 투입해 음극재용 구리 50만 톤씩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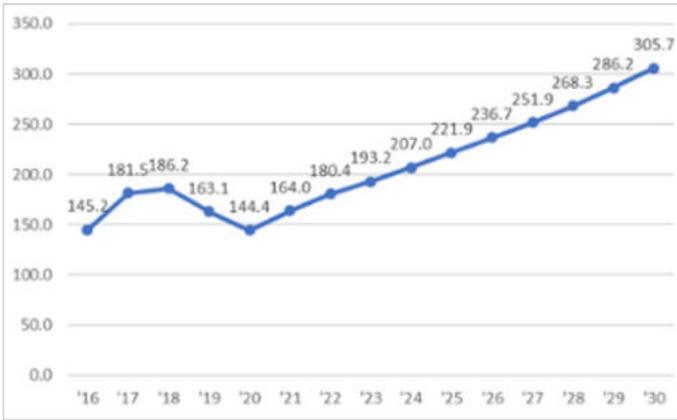
순위	HS Code	품목	2019	2020	2021
1	1511	팜유	14,633.1	17,364.8	26,665.1
2	2701	석탄	18,866.3	14,547.6	26,538.2
3	2711	석유가스	8,848.8	5,452.3	7,483.0
4	7202	합금철	2,604.0	4,745.2	7,125.3
5	7219	철강 판재	3,259.4	2,993.0	6,586.1
6	2603	구리정광	1,280.1(0.8%)	2,412.2(1.5%)	5,386.2(2.3%)
7	3823	공업용 알코올	2,549.4	2,916.5	5,298.9
8	2702	갈탄	2,767.2	1,924.6	4,975.2
9	4001	천연고무	3,527.1	3,011.8	4,017.0
10	7218	철강 반제품	411.3	1,630.9	3,726.8
	전체		167,002.9	163,307.7	231,522.4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1)

구리는 건설, 통신, 운송 및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 알루미늄, 철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는 재생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로 이동함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광물 다운스트림 개발을 위해 2009년 구리를 포함해 원자재 형태의 광물 수출 금지 및 국내 원자재 가공/정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고, 2014년부터 시행했다. 이후 2017년 특정 조건 충족 시 광물 원자재 수출 가

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으나, 2021년 무역부 장관령 18호를 통해 특정 광물 수출 금지, 사전수출승인 확대 등 다시 수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구리정광은 2023년 6월부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됐다. 전기차배터리가 산업의 새로운 아이টে็ม으로 주목받으면서 핵심 소재인 구리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대규모 구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향후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구리 생산액 전망



자료 : Euromonitor

> 신재생에너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의 차기 정상회의까지 G20 의장국을 맡게 된 인도네시아는 G20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구상을 발표했다. 국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정에너지와 세계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이번 G20 의장국 권한은 큰 상징성을 지닌다. G20 에너지 전환 구상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력을 발판으로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총 417.8 기가와트(GW) 규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가장 많은 9개 주로는 서칼리만탄(West Kalimantan),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 서자와(West Java), 중앙자와(Central Java), 동자와(East Java), 서누사텡그라(West Nusa Tenggara), 북수마트라(North

Sumatra), 남수마트라(South Sumatra), 파푸아(Papua)가 꼽힌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광물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국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의 자원도 해류(17.9GW), 지열(23.9GW), 바이오 에너지(32.6GW), 풍력(60.6GW), 수력(75GW), 태양열(207~208 GW)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최소 100년간 고갈될 걱정이 없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그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양은 그 잠재력에 비해 크게 낮은 10GW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2006년의 대통령령 제5호(Presidential Decree No. 5 of 2006)이다. 본 법령은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국내 1차 에너지 생산량의 1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주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 연료에서 5%, 지열에서 5%, 바이오매스·원자력·수력·태양열·풍력 등에서 5%, 석탄 액화 연료에서 2%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소형 수력 발전소 설비용량을 2025년까지 2,846 메가와트(MW), 바이오매스 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180MW, 바유 발전소(PLT Bayu) 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2025년까지 0.97GW, 태양열 발전 설비용량을 2024년까지 0.87GW,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을 2024년까지 4.2GW로 늘리는 정책을 입안해 실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 예정인 액수는 총 131억 9,700만 달러(한화 약 16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자원 중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지열(Geothermal) 생산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잠재력이 있으나, 개발수준이 약 5%에 불과하고 발전량은 미국, 필리핀에 이어 세계 3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열발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2월 기준, 2016년 인도네시아 전력 수요는 주거목적용(56.6백만 KW, 92.6%), 상업용(2.9백만 KW, 4.7%), 산업용(0.1백만 KW, 0.1%) 및 기타(1.6백만 KW, 2.6%)로 분류되며, 주거목적용 수요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상업용 및 기타 수요자가 24.7%를 차지했다. 지리적으로 대부분의 전력 수요자(약 74.4%)는 자바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외의 수마트라지역에 약 15.4%, 그 외에는 칼리만탄과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발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석탄, 가스, 디젤, 수력, 지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 있다. 이 중 지열에너지는 전 세계 지열발전 잠재 전력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잠재력이 높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2025년까지 국가 전체 에너지원의 23%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이에 ‘2021-2030년 전력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51.6%(20.9GW)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조달하는 것을 계획했으며, 이중 태양광에너지는 4.7GW인 22.5%로 수력 에너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 (2021-2030)

발전소 종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합
Geothermal(PLTP)	136	108	190	141	870	290	123	450	240	808	3,356
Large hydro(PLTA)	400	53	132	87	2,478	327	456	1,611	1,778	1,950	9,272
Mini hydro(PLTM)	144	154	277	289	189	43	-	2	13	6	1,117
Solar PV(PLTS)	60	287	1,308	624	1,631	127	148	165	172	157	4,679
Wind turbine(PLTB)	-	2	33	337	155	70	-	-	-	-	597
Bioenergy(PLT Bio)	12	43	88	191	221	20	-	15	-	-	590
NRE Power Plant-Base	-	-	-	-	-	100	265	215	280	150	1,010
NRE Power Plant-Peaker	-	-	-	-	-	-	-	-	-	300	300
합계	752	647	2,028	1,669	5,544	977	992	2,458	2,483	3,371	20,921

자료 : EBTKE 발표자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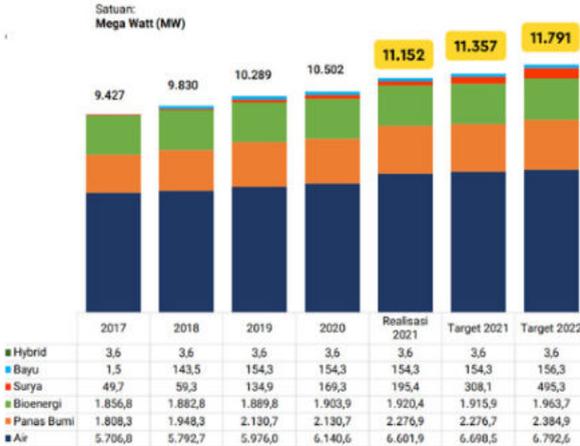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국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태양광에너지 활용 전력은 208MW로 잠재 전력 3,295GW 대비 활용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195MW로 목표 용량인 308.1MW에 크게 못미치며 올해 목표는 495.3MW에 달한다고 한다.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잠재/활용 전력 규모

종류	잠재전력(GW)	활용전력(MW)
태양열 에너지	3,295	208
수력 에너지	95	6,602
바이오 에너지	57	2,284
풍력 에너지	155	154
지열 에너지	24	2,291
해양 에너지	60	0
총합	3,686	11,539

자료 : EBTKE 발표자료 (2022)

인도네시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자료 : Capalan Kinerja Kesdm (2021)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비해 실제 발전용량이 낮은 한계의 극복을 위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자국 태양광 패널 산업 발전의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6~2018년 웨이퍼, 태양 전지, 태양광 모듈 제조를 포함하여 국산품 사용 비중을 40% 수준으로 올리고, 2019~2020년에는 실리콘소재 공장을 통해 76%까지 향상시킨다. 2020~2022년에는 태양전지용 실리콘 공장을 바탕으로 85%까지 달성 이후 2023~2025년에 이르러 급속급 실리콘(MGS) 공장을 통해 국산품 사용 비중을 90%에 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시행령 제26호로 옥상 태양광 발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옥상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6.5GW의 옥상 태양광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옥상 태양광 패널의 총용량은 4.92MWp였으나, 2020년 13.4MWp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48.8MWp를 기록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발표에서 옥상 태양광 발전을 통한 탄소 거래 개방, 모니터링 등 편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개발, 일반 가정의 경우 약 40%의 전기세 절약 등을 이유로 2025년에는 3.6GW, 2030년에는 4.8GW로 성장하는 것을 전망하였다. 전반적으로 태양광에너지의 발전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자체 태양광패널 제작을 위한 제조 기반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등에서의 수입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는 구조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반으로 살펴보는 경우, 한국의 현대 엔지니어링과 인도네시아의 테레그라 아시아 에너지(Terregra Asia Energy)는 총 8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테우놈(Teunom) 1, 2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50MW 용량의 폰케루(Ponkeru)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3억 달러(한화 약 3,800억 원) 규모 사업에도 한국중부발전, 현대 엔지니어링, 포스코 E&C와 솔린도 푸트라 티무르(Sulindo Putra Timur)가 함께하고 있다. 이 밖에도 4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500억 원) 규모의 푸상간(Peusangan) 수력 발전소 사업에는 현대와 한국 남부발전, 위자야 카르야(Wijaya Karya)가, 그리고 77MW 용량에 3억 달러(한화 약 3,800억 원) 규모를 지닌 사마킬랑(Samarkilang) 수력발전소 사업에는 한국중부발전, 롯데 E&C, 베네르 메리아 전력(Bener Meriah Electric Power)이 참여 중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해외취업 일자리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실제 엔지니어링의 현장업무보다는 계약 및 사업관리, 경영관리, 물류 및 구매 등의 지원분야 업무가 좀더 접근성이 좋고, 우리나라가 참여한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에서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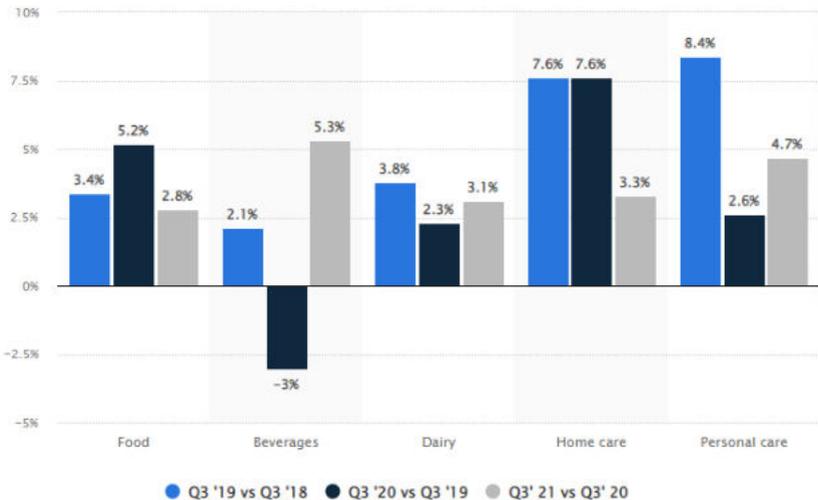
▶ 섬유/패션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산업개발 주요 계획에 따르면 섬유 산업을 연간 5~6%로 성장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년 60만 명의 신규 인력 수요를 추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직업학교 등을 신설해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섬유 기업은 국내 목화 생산량이 수요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변동 폭이 큰 국제 목화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브라질, 미국, 호주를 선두로 다양한 국가에서 목화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섬유 및 봉제 제품은 수요가 있는 국내 시장에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EU, 그리고 일본이다. 섬유 및 봉제 업계에는 수백 개의 한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취업 준비생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유력한 일자리 수요처라 할 수 있다. 단, 최근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낮은 인건비의 장점을 활용하던 봉제 업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안정성과 전망에 대한 세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매/유통

코로나19의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소매/유통 분야에서의 급격한 트렌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매유통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구매가 크게 급증하였고, 결제 방식도 현금 위주에서 간편 결제시스템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현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접근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소매점, O2O(Online to offline)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 한류 관련 품목 등으로 소비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3억에 달하는 인구 규모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소매시장은 아세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풍부한 인구, 소득 수준의 꾸준한 향상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소매유통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521억 달러에 이르며, 경쟁력 부분(신흥국 부문)에서는 2017년 말레이시아(3위), 베트남(6위)에 이어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매/유통분야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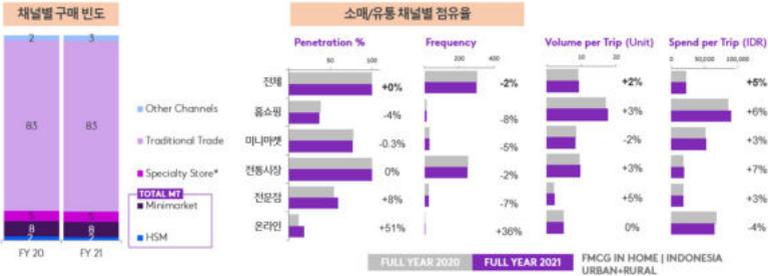


자료 : Statista(2022)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상권의 점포에 기반한 매출이 전체 소매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유통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오프라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매 규모가 총 소매매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재래시장 82.5%, 현

대식 유통(대형마트 등) 17.5%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 점포에 기반하지 않은 소매유통이 연평균 18.8%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소매유통 채널 현황



자료 : Kantar (2022)

소매유통 분야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인터넷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는 도서 지역이 많아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모바일 폰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 당 148.6개 회선으로 한국 127.7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스마트폰 매출 규모는 세계 7위(2017년)로 추산된다. 2.7억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가 특특히 한 몫을 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인구도 2015년 총인구의 17.1%에서 2018년 25.5%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통구조에 대한 저변이 확장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모바일 포함) 소매유통 규모는 2011년 7.5억 달러에서 2018년 43억 달러로 연평균 28.3% 성장한 바 있고, 이 중에서 모바일 쇼핑은 동 기간 중 0.1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0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 완화된 것으로 예측되지만 소매/유통 분야의 대규모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랫폼	특징
토코피디아 (Tokopedia)	2009년 설립. 생활형 전자상거래 1위 (오픈 마켓)
부칼라팍 (Bukalapak)	2010년 설립.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홍보 전략
라자다 (Lazada)	2012년 설립. 주문의 대부분(85%)을 48시간 이내 배송
쇼피 (Shopee)	2015년 출시. 구매 및 판매의 98% 이상이 모바일 플랫폼. 실시간 채팅 서비스 제공

소매/유통의 고객 결제방식도 계좌 이체나 현금 거래 위주에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거래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결제 시장 규모는 2016년 155.5억 달러에서 2019년 265.8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수수료가 낮고 결제 방식도 간편하다는 이점에 힘입어 고페이(Go-pay), 오보(OVO), 그랩페이 등 결제시스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행 계좌, 신용카드가 없는 현지인들이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편의점 등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불편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이러한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체크포인트 -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제에 대응하지 못한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은 2009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 24시간 운영과 무료 Wifi, 야외테라스 제공 등으로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5년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대형마트를 제외한 편의점에서 알코올 도수 5% 이하 주류(맥주) 판매를 금지하자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카페와 소매점을 결합한 형태의 매장은 관광청의 허가가 가능한 자카르타에서만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자카르타 이외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2017년 6월 공식적으로 철수하는 아픔이 있었다. 편의점에 위치한 야외 테라스가 익숙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한다.

▶ 건설/플랜트

2009년 19%에 불과했던 아시아 지역의 해외건설 시장 비중은 2019년 49%로 증가하였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 건설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의 건설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 세계 4위(2억 7천만 명)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1조 22억 달러로 호주, 멕시코에 이어 세계 16위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건설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925억 달러 정도이며, 2021년까지 1,68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2016년 기준 건설시장 성장률은 7.23%로 2021년에는 8.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GDP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5%에서 2021년 11.2%까지 증가하였다. 건축 프로젝트는 2017

년 2%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약 108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고, 토목 프로젝트는 2017년 4% 증가하였으며, 2018년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

☐ 인도네시아 건설시장규모 (억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설시장규모	925	1,040	1,173	1,318	1,490	1,684
건설시장 성장률	7.23%	7.35%	7.84%	7.34%	8.04%	8.32%
건설/GDP 비중	10.5%	10.6%	10.8%	10.9%	11.1%	11.2%

당장 인도네시아의 도시를 방문하면 어느 곳이나 도로 정비 또는 건물의 건설 현장을 마주할 수 있다. 그만큼 신흥개발국으로서 건설/플랜트 분야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건설/플랜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플랜트 분야의 경력이 가지는 장점은 글로벌 호환성에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서의 건설/플랜트 경험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경력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건설기업들은 대부분 정부가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건설기업들의 매출액은 10~30억 달러 사이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 건설기업들은 2015년 기준 종합건설업체 73개, 시공업체 113개, 용역업체 61개 등 약 250개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건축 및 발전 플랜트 투자 사업에 Kajima, Shimizu, Takenaka 등 건설회사와 Chiyoda JGC 등 플랜트사를 비롯한 40여개 업체와 건설장비업체 20여 개가 진출해 있으며, 중국은 투자 및 차관공사에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중국항만건설총공사(CHEC), 중국철도총건축공사(CRCC) 등 30여 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 유럽 기업으로는 유화플랜트, 방조제 사업 등에 Saipem, Deltares 등의 업체가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2021년 9월까지 총 597건을 수주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약 19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주금액 기준).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분야가 117억 달러(113건)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하였으며, 토목분야 42억 달러(127건), 건축분야 34억 달러(107건), 용역 분야 11억 달러

(245건) 순이었다. 산업설비 분야는 쉽게 말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분야이며 이를 통해 향후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을 살펴보면 건축 분야에서는 11.6억 달러(49건)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주택, 상업시설, 사무실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분야는 지난 10년간 16.1억 달러(28)건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댐, 단지조성, 항만, 도로 순으로 많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CM, 설계, 기술지원 등을 포함하는 용역 분야는 최근 10년간 7.8억 달러(137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 체크포인트 - 교통지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는 교통지옥으로 악명이 높다. 2015년 유탄유 업체 ‘캐스트롤’이 세계 78개국 주요 도시 내비게이션 장착 차량의 km당 정지·시동 횟수에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곱해 통계를 내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도시로 자카르타가 꼽혔다. 특히 2018년 8월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자카르타 시 당국이 시내 곳곳에서 공사를 벌여 사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약속시간은 교통문제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길이 막혀 늦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현주소다.

자카르타를 교통지옥으로 만든 또 다른 주범은 ‘공유경제’다. 자카르타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는 공유차 우버(Uber) 운행이 합법화돼 있다. 한 달에 800만~900만 루피아(약 63만~71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면 중소형차를 빌릴 수 있는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렌터카를 활용해 돈을 버는 우버 기사들이 많이 늘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젝(Ojek)으로 불리는 오토바이택시 사업자로 변신하면서, 도로 곳곳은 하루 종일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넘쳐난다. 생활을 이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공유경제는 이곳에서 교통지옥과 대기오염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도네시아는 불편함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곳이다.



(출처: 시사저널, '20번째 유랑주'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변신하는 인도네시아, 2018년 1월, 14173호)

▶ IT분야

인도네시아의 ICT 시장규모는 연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통신 분야가 전체의 66%, 하드웨어(휴대폰, PC 등) 24%,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IT서비스 분야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통신사업은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가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 유선 통신사로는 PT. POS(우정국), PT. Telekomunikasi Indonesia(Telkom)가 있으며, 주요 이동통신사의 시장 점유율은 Telkomsel(42.9%), Indosat(19.7%), XL Axiata(17.0%), Hutchison Telecom(7.4%), Bakrie Telecom(5.9%), Axis(4.3%), Smartfren(2.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사업은 주로 국영 통신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쉽다.

유로모니터는 인도네시아의 하이테크 산업의 시장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2% 성장하였고, 2017년 638조 1,900억 루피아를 기록, 2016년의 574조 5,200억 루피아에 비해 11.1%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이테크 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해외 취업 준비자의 관점에서 IT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이다. IT 분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글로벌 범용성에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IT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열정과 끈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역량은 IT분야에서 단연 돋보이는 장점이 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ICT의 기술을 융합한 유통형태인 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Negative List)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를 외국인에게 전격적으로 개방했으며, 2017년 8월 '2017-2019 E-Commerce Roadmap'을 발표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Lazada, Tokopedia, elevenia, Qoo10 등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ICT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는 부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으로 연 30~4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IT기업인 Microsoft를 선두로 Amazon Web Services(AWS), Joyent Cloud, VM Ware, Oracle과 현지 기업인 Telkom Cloud, PT Cyberindo Mega Persada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핀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경력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06. 인도네시아의 주요 도시와 특징

▶ 자카르타(Jakarta)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비즈니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울과 비슷하다.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와 대부분 회사들의 대표 사무실이 자카르타에 위치해 있다. 자카르타에는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놀이동산, 인근 섬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많은 오락시설과 세계요리 식당이 있다. 그 밖에 영화관, 연극시설, 가라오케, 술집, 카페, 볼링센터, SPA 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 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다.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해있으며, 자카르타 내 한인 교민 거주 비율도 85% 이상이다. 자연스럽게 생활이 편리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기도 하다. 저녁 퇴근 시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제 시간에 모두 모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 반둥(Bandung)

반둥은 1864년부터 서쪽 자바지역의 행정수도가 됐다. 서쪽 자바주에는 3,900만 명이 살고 있고 반둥의 경우에는 시 인구 2,575,478명(2015년 기준), 도시권 8,201,928명(2015년 기준)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의 제 3도시이다. 해발 고도 768m에 위치하여 인도네시아의 대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서늘한 기후를 띠는 편이다. 평균기온이 15도에서 31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431~4,538mm로 대표적인 동남아시아의 기후를 나타낸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14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기후와 위치 덕에 자바 서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중 하나다. 별명은 꽃의 도시(Kota Kembang)이다.

PT Dirgantara Indonesia(인도네시아 유일의 항공기 회사) 및 PT Telkom Indonesia(인도네시아 통신 업체) 등이 반둥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밖에 상당수의 제약 회사, 직물회사, 자동차와 반도체, 전기부품 및 케이블 제조업체,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제조분야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반둥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

▶ 스마랑(Semarang)

스마랑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의 주도로 시 인구 1,815,729명(2018년 기준), 도시권 약 730만 명(2018년 기준)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의 대도시이다. 도시 인구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여덟 번째, 자바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도시권(스마랑 남쪽의 스마랑현, 서쪽의 큰달(Kendal)현, 동쪽의 드막(Demak)현과 그로보간(Grobogan)현, 그리고 스마랑현이 감싸는 살라티가시(Kota Salatiga를 포함)로 합쳐서 살펴 보면 스마랑 도시권은 자카르타 도시권, 수라바야 도시권, 반둥 도시권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식 축권인 롬피아(Lumpia)라는 음식이 특히 유명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스마랑식 롬피아를 맛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스마랑은 '롬피아의 도시'(Kota Lumpia)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 족자카르타(Yogyakarta)

약칭으로 족자(Jogja)로 불린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준 한글 표기는 '육야카르타'이다. 족자카르타라는 표현은 다소 역사적 연원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755년 마타람 술탄국이 분리되어 그 일부가 육야카르타 술탄국이 되었을 때의 명칭은 인도의 아요디아(아유타阿踰陀, Ayodhya)를 따른 '응아육야카르타(Ngayogyakarta)였으며, '육야카르타'라는 현재 명칭은 이것이 시간이 흐르며 축약된 것이다. 자바 문자에 따른 자바어 공식 명칭은 18세기 이래로 '응아육야카르타'이다. 인도네시아가 수 많은 인종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권 지역이라는 특징이 이러한 지역 명칭에서도 잘 나타난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네덜란드어식 명칭은 '족야카르타'(Djokjakarta) 또는 '육야카르타'(Jogjakarta)였고, 현재 명칭 '육야카르타'는 인도네시아가 실질적으로 독립한 1949년 이래로 공식적으로 쓰인다.

인구는 41만 명(2016)에 불과하나 도시권의 인구는 그 열 배이다. 무슬림이 83%, 가톨릭 교도가 9% 등을 차지한다. 이 도시는 인도네시아에서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발리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사실상 관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경주'라 불릴 정도로 오랜 유적지가 많으며 물가 또한 자바섬 내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기에 최적의 여행지 중 하나다. 특히 동남아 3대 불교 사원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Borobudur)와 웅장한 힌두 사원인 프람바난 사원(Prambanan)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유적 뿐만 아니라 트라피 화산, 남쪽의 해변 등 차량 렌트나 스쿠터 렌트를 통해 족자카르타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으며, 여행자 단독으로 돌아다녀도 괜찮을 만큼 치안도 안전하다.

기온은 25 ~ 28도 정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855mm이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몇 개

의 왕조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고대 Mataram 왕국과, Sultanate 왕국이 유명하다. 지역 주민들은 족자카르타의 Sultan 왕조를 존경하고 있다.

📍 수라바야(Surabaya)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 동부에 위치한 도시이며 동부자바의 주도(州都)이다. 별칭은 '영웅의 도시'(Kota Pahlawan)이다.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과정에 영국군과 인도네시아 독립군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수라바야 전투(1945년 10~11월)를 기려 영웅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이기도 하다. 도시권으로 확대하면 인구가 1,200만 명에 달한다. 자카르타와 반대편에 있는 위치나 도시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도시이며, 실제로 부산의 자매도시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의 부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언어로는 자바어가 많이 쓰이지만 사무언어는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가 많이 쓰인다. 이 지역의 화교들도 수마트라섬이나 칼리만탄섬의 화교들과 다르게 복건어를 쓰지 않고 언어적으로 많이 동화되어 자바어를 많이 쓴다. 다른 지역인 스마랑과 유사하게 수라바야 인구의 대부분(약 83.7%)은 자바인이다. 7.5%의 마두라인, 7.3%의 화인도 유의미한 소수 민족 집단을 구성한다. 2017년의 인도네시아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수라바야 인구의 약 80.1%가 무슬림, 9.1%가 개신교도, 9.0%가 가톨릭, 1.5% 정도가 불교도로 나타났다. 즉, 상기한 민족 구성과 비교해보면 자바인 중에서 기독교도가 꽤 존재하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수라바야는 자바 서부의 бата비아, 중부의 스마랑과 함께 식민지 시대 자바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였으며, 18세기와 19세기 기간 중 бата비아조차 능가하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최대 도시였다. 1900년까지만 해도 수라바야는 약 14만 7천 명의 인구를 가진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제1 도시였으며, 당시 бата비아의 인구는 11만 6천 정도였다. бата비아가 수라바야를 앞지르고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제1도시가 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었다.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수라바야는 자바 동부의 경제 중심지인 인도네시아의 제2도시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 인도네시아에서 수라바야의 경제적 중요도는 반둥, 스마랑, 마카사르, 메단 등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높다. 2007년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가 인도네시아의 단일 증권 거래소로 출범하기 전, 자카르타 외에 유일하게 수라바야에서도 독립적인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을 정도였다.

경제 기반은 주로 농업, 수산업, 오일, 커피, 망고 그리고 사과 재배 등이다.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으며, 많은 현대적 건물 및 숙박 시설이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수라바야에서 20km 떨어진 거리에 396ha 면적의 Juanda 국제공항이 있다. 이밖에 동부 자바에는 Pegerungan 공항, Trunojoyo 공항, Abdulrahman Saleh 공항(해군 공항)이 있다.

📍 발리(Bali)

발리는 자바 섬의 동쪽에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이다. 우리나라 드라마인 ‘발리에서 생긴 일’로 유명세가 더해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발리는 알아도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인지, 필리핀에 있는 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발리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신의 섬(Pulau Dewata)이라고 부른다. 발리는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며 지리적으로는 Nusa Tenggara 지역과 자바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지방정부는 발리가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연평균 기온은 24 ~ 29도이며, 연 강우량은 1,050 ~ 2,000mm이다.

발리의 핵심 지역인 쿠타(Kuta) 지역은 발리 현지인들에게 노을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곳이면서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발리의 대표적인 변화가로 신촌 등지에 비유할 수 있다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최남단에 속하며 실제로 적도의 남쪽, 즉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기후도 우리나라의 여름(7~9월)이 건기이고, 우리나라의 겨울이 더운 우기의 기후를 나타낸다. 따라서 발리는 여름에 관광이 더 편리한 특징이 있다.

가장 독특한 점은 종교인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교가 대다수임에 반해 발리섬 인구의 92% 가량이 힌두교 신자이다. 남아시아 밖에서 남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아닌 주민들이 힌두교를 믿는 곳은 발 리가 유일하다. 이슬람교가 전파된 이후로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 등 다른 많은 지역은 이슬람화되었고, 티모르 섬 등 일부 지역은 유럽 세력의 선교로 개신교나 가톨릭 등을 믿게 되거나 아예 토착 민간신앙을 고수하기도 했지만, 발리에서는 전통 시대의 힌두교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궁(Agung)이라는 활화산이 2017년 분화하기도 하였고, 가끔씩 지진과 해일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는 곳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으며 발리 전반에 침체가 도래했었으나, 최근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 메단(Medan)

메단은 북 수마트라의 수도이며, 인도네시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특히 관광 및 무역이 발달해 있다. 북 수마트라는 서쪽으로는 인도양, 동쪽으로는 말라카 해협까지 이르는 거대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Tobal Lake가 있으며, 25개의 시가 위치해 있다. 연평균 기온은 23 ~ 33도이며, 연 강우량은 3,140mm이다. 메단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으나, 주요 민족은 바딕 민족이며, 원래 토착민들은 Deli Malay인들이다. 메단에는 2부류의 바딕 민족이 살고 있는데, 남쪽 바딕인들은(Mandailing) 이슬람이고, 북쪽 바딕인들(Toba, Karo)은 기독교이다. 메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큰소리로 말하며, 자기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 사마린다(Samarinda)

사마린다는 동부 칼리만탄의 주도이다. 동부 칼리만탄은 24만 5,000km²로 인도네시아에서 2번째로 큰 면적이며, 이곳에 13개의 시가 있다. 사마린다는 동부 칼리만탄의 가장 큰 도시이며, 54만여 명(2002년 기준)이 살고 있고, Kutai Barat, kutai Kartanegara, East Kutai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목이기도 하다. 동 칼리만탄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 해양 자원, 농수산물 등이 있다. 동 칼리만탄에는 풍부한 석탄, 석영, 석고, 부석(pumice), 백운석, 석회석, 대리석, 옥수 등이 있지만, 이러한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평균 기온은 24 ~ 28도이며, 연 강우량은 2,519mm이다.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나 아직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 마카사르(Makassar)

마카사르는 남 술라외시의 수도로, 동쪽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이다. 남 술라외시에는 23개의 시가 있으며, 마카사르는 이 지역, 농업, 농장, 축산, 수산업, 광물 거래의 중심지이다. 남 술라외시는 농업에 치중돼 있는 경제를 산업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동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항구인 수카르노 하타 항구가 있으며, 주변 관광지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연평균 기온은 22 ~ 34도이며, 연 강우량은 2,000~2,500mm이다.

📍 자야푸라(Jayapura)

자야푸라는 파푸아 지역의 주요 도시이다. 파푸아 지역에는 산지가 많고, Jayawijaya, Trikora, Yamin 등 3개의 산꼭대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 파푸아는 농업, 수산업, 가스, 광업 등 자연자원 등이 풍부하며, 목재, 합판 등의 산림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캥거루, 비버 등 다양한 특이 종들의 서식지기도 하다. 관광지는 아직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아 관광산업은 미약한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23~28도이며, 연 강우량은 1,744mm이다.



01. 인구구조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2억 7,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활한 국토를 따라 30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고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도 유지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지역별 인구분포 (단위: 명)

지역명	2000	2010	2015
Nanggroe Aceh Darussalam	3,930,905	4,494,410	5,002,000
Sumatera Utara	11,649,655	12,982,204	13,937,800
Sumatera Barat	4,248,931	4,846,909	5,196,300
Riau	4,957,627	5,538,367	6,344,400
Jambi	2,413,846	3,092,265	3,402,100
Sumatera Selatan	6,899,675	7,450,394	8,052,300
Bengkulu	1,567,432	1,715,518	1,874,900
Lampung	6,741,439	7,608,405	8,117,300
Kep. Bangka Belitung	900,197	1,223,296	1,372,800
Kepulauan Riau	-	1,679,163	1,973,000
DKI Jakarta	8,389,443	9,607,787	10,177,900
Jawa Barat	35,729,537	43,053,732	46,709,600
Jawa Tengah	31,228,940	32,382,657	11,955,200
DI Yogyakarta	3,122,268	3,457,491	33,774,100
Jawa Timur	34,783,640	37,476,757	38,850,000
Banten	8,098,780	10,632,166	38,847,600
Bali	3,151,162	3,890,757	4,152,800
Nusa Tenggara Barat	4,009,261	4,500,212	4,835,600
Nusa Tenggara Timur	3,952,279	4,683,827	5,120,100
Kalimantan Barat	4,034,198	4,395,983	4,789,600
Kalimantan Tengah	1,857,000	2,212,089	2,495,000
Kalimantan Selatan	2,985,240	3,626,616	3,989,800
Kalimantan Timur	2,455,120	3,553,143	4,068,600
Sulawesi Utara	2,012,098	2,270,596	2,412,100
Sulawesi Tengah	2,218,435	2,635,009	2,876,700
Sulawesi Selatan	8,059,627	8,034,776	8,520,300



지역명	2000	2010	2015
Sulawesi Tenggara	1,821,284	2,232,586	2,499,500
Gorontalo	835,044	1,040,164	1,133,200
Sulawesi Barat	-	1,158,651	1,282,200
Maluku	1,205,539	1,533,506	1,686,500
Maluku Utara	785,059	1,038,087	1,162,300
Papua Barat	-	760,422	871,500
Papua	2,220,934	2,833,381	3,149,400
합계	206,264,595	237,641,326	255,461,700

주 : 인도네시아 인구조사는 5~10년 주기로 실시(2019~20년 기간 중 코로나19로 지역별 조사 미 실시)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2015)

02. 노동정책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준수를 강조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될 수 없다. 또한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이 합의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이 10년 새 3배 이상 상승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카르타 외곽 서부자바주의 봉제 업체들은 2022년 이후 임금을 작년 대비 30% 이상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걱정이 크다.

임금은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로 나뉘나 경제발전전에 따라 현실적으로 현물 급여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급여 지급 형태는 월급·일급·주급 등이 있으며, 도시와 인근 지역 대기업은 월급제가 대부분이며, 중소기업이나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단순 노동에는 주급을 적용한다.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은 전체 급여의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기준 2016년 310만 루피아(월급)였던 최저임금이 2017년에 335만 루피아로 8% 인상됐다. 이어 2018년에도 365만 루피아로 전년대비 8.71% 인상되었고 2022년에도 5% 이상 인상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임금 근로자 소득증대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03. 노동시장동향

📌 개요

인도네시아는 각종 법률 및 행정명령 등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3년 3월에 공포된 신 노동법을 근간으로 노동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25일 인도네시아 하원이 법률·법규 제정에 관한 법 개정안(RUU PPP, Rancangan Undang-Undang Pembentu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을 통과시키면서 노동과 관련된 법적 환경에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일자리 창출법(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우려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1년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령집을 통해 기존의 노동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다.

2021년 신노동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력 고용	
기존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력 고용허가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외교관, 영사 등 외국대표기관 (대통령령) 주식보유자인 이사회 이사 및 위원 장관령) 기술적 지원, 국제단체와 부처 기관 간 협력, 국가중점사업, 자연재해/특수 상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정부기관 외국인 근로자는 인사 또는 특정직책 금지 근로기간 종료 및 연장 불가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외국인 근로자로 교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력 고용허가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보유자인 이사회 이사 및 위원, 각국 대사관의 외교관 및 영사, 긴급 상황에서의 생산장비 유지·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위해 사업주에 의해 요구되는 외국인력 외국인 근로자는 인사 직책 금지 삭제
기간제 근로 및 근로계약	
기존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설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정 시 이는 법적으로 무효 기간제 근로계약의 고정업무 사용 불가, 사용사유 제한, 기간제한(2+1+2년) 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설정 불가·설정 시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근로기간으로 기산 기간제 근로 사용가능 사유로 ‘그 특성/활동이 고정적이 아닌 업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갱신, 연장 등 기간제한 규정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세부사항을 정부령에 위임

기간제 근로 및 근로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의 기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특정 업무의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사항에 대한 정부령 위임 근거 신설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특정 업무의 완성'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 종료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기간 종료, 법원 등 판결, 단협·취업규칙 등에서의 사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근로계약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특정 업무의 완성이 종료 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 신설하고 세부사항을 정부령에 위임

외주화	
기존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과 용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도급·용역 가능 업무, 요건, 절차 등을 규정 도급 가능 업무 및 용역 사용 금지 업무 규정, 법정 기준 미충족 시 근로자와 도급·용역회사 간 계약은 근로자와 업무제공 회사 간 계약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 관련 규정 삭제 용역 관련 규정에서 주된 업무 또는 생활활동 활용금지 규정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세부사항을 정부령에 위임

근로시간	
기존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5일 근무 시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6일 근무 시 1일 7시간, 주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근로시간은 1일 3시간, 주 14시간 한도 ※ (정부령) 평일 초과근로시 첫 1시간은 시급 1.5배, 그 이후 시급 2배 / 주휴일과공휴일 초과근로시 8시간까지 시급 2배, 8~9시간 시급 3배, 9~10시간 시급 4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 18시간 한도-할증률 등은 정부령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휴무는 6일 근로시 1주 1일, 5일 근로시 1주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휴무는 6일 근로 시 1주 1일 (주5일 근로 시 2일 주간휴무 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적으로 6년간 동일 회사 연속 근로자에 대해 최소 2개월간 장기 휴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임금 보호 및 결정	
기존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에 대한 권리는 근로관계 성립 시 발생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소멸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모든 근로자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임금은 시간 단위 또는/그리고 생산 단위에 따라 결정

최저 임금	
기존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주/시군 최저임금(UMP, UMK), 업종별 최저임금(UMSK) 등 최저임금 종류, 최저생계비 달성, 지불연기 조치 가능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지사의 지역 최저임금 결정의무, 시/도 최저임금 결정 근거 명시 UMSK, 최저생계비 달성, 임금위원회 추천, 지불연기 조치 삭제

최저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령) 중앙정부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률을 더해 최저임금 인상률 산정·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기초로 각 주, 시/군은 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월단위 주최저임금(UMP), 시/군 최저임금(UMK), 업종별 최저임금(UMSK)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최저임금은 지역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산식 등은 정부령에 위임 • 영세·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조항을 면제하고, 최소한 국민소비 평균액 수준의 임금 설정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정부령에 위임

임금 보장	
기존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변제에 대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파산 또는 청산 시 임금채권(labor right)이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나 담보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근로관계 해지	
기존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근로관계 해지 금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 이하의 질병, 결혼 등 - 동일회사 내 한 근로자가 타 근로자와 혈연 또는 결혼관계(단, 사규 또는 단협 별도 규정시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 해지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 해지 목적 및 사유 통보 의무 및 통보 예외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퇴사,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정년도달, 근로자 사망 시 통보의무 예외 • 단서규정 (단, 사규 또는 단협 별도 규정시 예외)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경우 근로관계 해지판결에 의해서만 근로관계 해지 가능 규정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 기간 중 근로자 - 근로자의 자진 퇴사 -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 근로자가 퇴직연령 도달 시 - 근로자 사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 해지 발생 가능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관련 요건, 절차 등은 정부령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합병, 양도, 분리 시 - 경영효율화 - 손실로 회사 청산 시 -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종료 - 회사가 부채지급 연기 상태에 있을 시 - 회사 파산 시 -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시 - 근로자의 자진 퇴사 - 근로자 결근 시 -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단협에서 정한 규정 위반시 - 당국에서 근로자 구금 시 - 업무상 장애 또는 질병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근로자의 중대한 실수 시 근로관계 해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소유 물건 절도, 작업장 내 폭행, 비밀 누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단협 규정 위반 시 3차례 경고장 순차 발급 후 근로관계 해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퇴직 급여	
기존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 해지 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 지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 해지 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지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고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기간 1년 미만 시 1개월 급여, 최대 8년 이상 시 9개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고보상금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기간 3년~6년 시 2개월 급여, 최대 24년 이상 시 10개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보상금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연차휴가 / 근로자 및 가족 귀항경비/ 근로계약, 사규, 단협 규정사항 - 해고보상금 및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근로자 및 가족에게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고정 수당 -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물품의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 해지 사유에 따라 각각의 보상금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구속, 규정 위반, 자진퇴사, 회사 인·합병 및 소유주 변경 등, 회사 폐업, 회사 파산, 근로자 사망, 퇴직연령 도달, 장기투병, 산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제(현행법 제160조 7항, 제161~172조)

⑤ 현지 고용시장 현황

코로나19로 전세계 고용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9-2020년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2022년 현재의 고용시장 현황은 향후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기에, 고용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직전의 고용시장 현황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 경제활동인구는 1억 9,578만 명 중 취업자가 1억 2,707만 명으로 약 5.13%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 중 30.46%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을 차지하는 주요 종사 직군은 무역, 유통, 식당, 호텔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4.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가공업, 건설, 교통 및 통신 및 물류 순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분야별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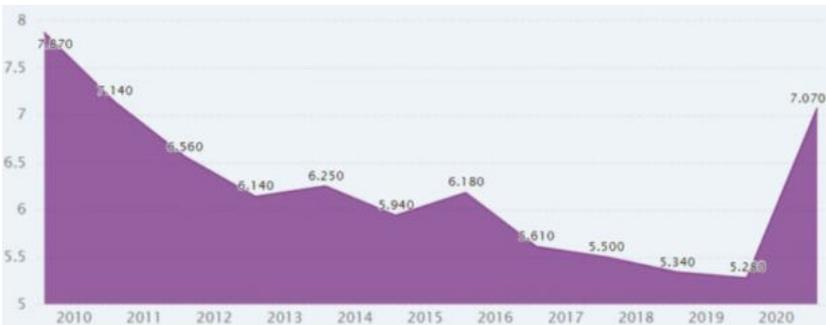
분야	2017년 8월		2018년 2월	
	취업자 수(백만 명)	비율(%)	취업자 수(백만 명)	비율
농업/임업/수산업	35.87	29.70	38.70	30.46
광업	1.39	1.10	1.38	1.09
가공업	16.99	14.10	17.92	14.11
전기, 가스, 수도업	0.39	0.30	0.78	0.60
건설업	8.12	6.70	7.06	5.55
무용, 유통, 식당, 호텔업	28.15	23.30	31.65	24.90
교통, 물류, 통신업	5.75	4.80	6.09	4.70
금융, 보험, 임대, 용역	3.75	3.10	3.55	2.70
사회서비스	20.46	16.90	19.94	15.60

자료 : 인도네시아 노동부(2018)

📈 실업률

글로벌 경제 데이터 기업 CEIC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실업률은 7.07%로 2019년 5.18%에서 큰폭으로 상승했다. 1984년부터 2020년 사이 인도네시아 평균 실업률은 5.94%이며, 2005년 사상 최고치인 11.24%를 기록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 최근 10년간 실업률 변화



자료 : CEIC Data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업률이 가장 심각한 인도네시아 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역	내용
1. DKI 자카르타	2020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실업률은 10.59%. 같은 해 2월 5.15%에 비해 2배가 넘는 상승폭
2. 반톤	반톤의 실업률 역시 10.64% 수준으로 같은 해 2월 7.99%에서 큰 폭으로 상승
3. 서부 자바	서부 자바의 실업률은 10.49%, 2019년 7.71%, 2020년 2월 8.04%에 비해 높은 상승률
4. 리아우 제도	2020년 8월 기준 10.34% 기록. 2020년 2월 5.98%, 2019년 2월 7.78%에 비해 큰 폭의 상승
5. 말루쿠	2020년 8월 실업률 7.57%. 인도네시아 평균 실업률을 다소 상회

단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1년 기준 실업률은 5.83% 수준으로 다시 낮아진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일자리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1 개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고용관련제도는 최저임금제도이다. 신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각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판례가 제시되면서 고용주에게는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 DKI 자카르타 Anies Baswedan 주지사는 2022년 주정부 최저 임금(이하 UMP)을 기존 0.85% 인상에서 5.1%로 18일 전격 인상을 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자카르타 UMP는 5.1% 인상된 RP.225,667루피아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Jakarta 주단위 최저임금은 4,453,935루피아에서 4,641,854로 증가했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제조업 및 봉제업 분야에서는 비용요인의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세계경제포럼에 의해 발표되는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는 2019년 64.629를 나타내어 전년의 64.93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말레이시아가 74.602를 나타내어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필리핀은 61.869, 베트남은 61.543 등으로 아세안 국가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경제 분야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경제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고용관련 정책의 강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발전단계의 국가에서 예상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이며 향후 해외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03. 최저임금보장제도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국가이며, 지역별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카르타는 2013년 43.9%에 달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이후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3백만 루피아(월)를 넘어섰다. 7~8%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 단행한 33%에 달하는 유가인상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에 있다. 2017년 자카르타 지역 최저임금은 335만 5,750 루피아이며, 족자카르타(Yogyakarta) 지역의 133만 7,645루



2022년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월단위, RP, KRW)

지역	최저임금 (RP)	최저임금 (KRW)
아체 (Aceh)	3.166.460	278,648
북수마트라 (Sumatera Utara)	2.522.609	221,990
서수마트라 (Sumatera Barat)	2.512.539	221,103
리아우 (Riau)	2.938.564	258,594
리아우군도 (Kepulauan Riau)	3.050.172	268,415
잠비 (Jambi)	2.649.034	233,115
벵쿨루 (Bengkulu)	2.238.094	196,952
남수마트라 (Sumatera Selatan)	3.144.446	276,711
방카블리퉁 (Bangka Belitung)	3.264.881	287,310
람퉁 (Lampung)	2.440.486	214,763
반튼 (Banten)	2.501.203	220,106
자카르타 특별주 (DKI Jakarta)	4.573.845	402,498
서부 자바 (Jawa Barat)	1.841.487	162,051
중부 자바 (Jawa Tengah)	1.813.011	159,545
족자카르타 특별주 (Yogyakarta)	1.840.951	162,004
동부 자바 (Jawa Timur)	1.891.567	166,458
발리 (Bali)	2.516.971	221,493
북부 깔리만탄 (Kalimantan Utara)	3.016.738	265,473
서부 깔리만탄 (Kalimantan Barat)	2.434.328	214,221
중부 깔리만탄 (Kalimantan Tengah)	2.903.144	255,477
남부 깔리만탄 (Kalimantan Selatan)	2.906.473	255,770
동부 깔리만탄 (Kalimantan Timur)	3.014.497	265,276
서부 누사똥가라 (Nusa Tenggara Barat)	2.207.212	194,235
동부 누사똥가라 (Nusa Tenggara Timur)	1.975.000	173,800
북술라웨시 (Sulawesi Utara)	3.310.723	291,344
고론탈로 (Gorontalo)	2.800.580	246,451
서술라웨시 (Sulawesi Barat)	2.678.739	235,729
중부술라웨시 (Sulawesi Tengah)	2.390.739	210,385
남술라웨시 (Sulawesi Selatan)	3.165.876	278,597
동남술라웨시 (Sulawesi Tenggara)	2.710.595	238,532
말루쿠 (Maluku)	2.619.312	230,499
북부말루쿠 (Maluku Utara)	2.862.231	251,876
서파푸아 (Papua Barat)	3.200.000	281,600
파푸아 (Papua)	3.561.932	313,450

※ 환율 1RP : 1KRW = 0.088 기준 (2022.7.26.)

피아와 약 200만 루피아의 차이를 보인다. 지역 간 최저임금의 차이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최근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법령(오니버스 법)의 추진과 더불어 높은 인상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현지의 가장 낮은 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기준금액이며, 우리나라 해외취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관리직에 해당하는 별도의 급여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나라 현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전반의 안정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인도네시아에 관심있는 해외 취업 지원자라면 뉴스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변동 동향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03.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 고용계약의 형태

> 무기한부 고용(정규직: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노동자가 법적 정년인 만 55세에 이를 때까지 유효한 고용 계약으로 일단 고용하고 나면 사용자 필요에 의해 해고하는 것이 어려우며, 해고 시 많은 부담이 요구된다. 무기한부 계약 노동자는 처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이 되며, 수습기간 동안에는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 기한부 고용계약(계약직: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2003년 노동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계약 형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계약이 종결된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기한부 고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에서는 기한부 고용계약 노동자 고용이 불가능하다. 기한부 고용계약은 최장 2년까지이며, 1회에 한해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부 고용계약의 갱신은 최초 고용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후에 가능하며, 갱신은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허용된다. 무기한부 고용과 달리 3개월 수습기간 설정을 금하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노사 한편에서 적법한 이유 없이 노동관계를 종결시킬 경우, 노동관

계를 종결시킨 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임금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노동법에 따라 기한부 고용계약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한 차례 행한 후 완결될 수 있거나 그 성격이 잠정적인 작업
-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추산되는 작업
- 계절적 성격을 띠는 작업
- 신상품, 새로운 활동, 앞으로의 지속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제품 생산과 관련한 작업

> 일용직(pekerja harian lepas)

출근 상황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 형태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일을 수행할 경우 고용이 가능하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계약직과 같이 일상적, 연속적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며, 일용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매월 20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하며 퇴직금도 지불해야 한다.

일용직 임금은 최저임금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일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주당 6일간 근무하는 경우 월 임금을 25로 나눔	1주당 5일간 근무하는 경우 월 임금을 21로 나눔
--	--

노동부 장관령(1985년 6호)에 따르면 일용직이 고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3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에 실시되는 작업
-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지 않으며 1개월에 20일을 넘기지 않는 작업
- 모심기, 수확, 탈곡 등 계절적 성격을 띠는 작업
-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하역작업

> 아웃소싱(pekerja/buruh dari perusahaan penyedia jasapekerja/buruh)

사용자는 작업 중 일부를 타 회사 혹은 용역서비스 제공회사에 아웃소싱할 수 있으며, 용역의 대상이 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웃소싱은 인도네시아 노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노조연합에서 인권 문제와 결부시켜 아웃소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데모 등의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 취업을 고려 중인 취업지원자의 경우 아웃소싱 일자리의 탐색은 추천되지 않으며, 외국인 구인의 경우도 매우 드문 상황이다.

- 회사의 주요 업무와 분리돼 행해지는 작업
-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혹은 직접적 지시 없이 행해지는 작업
- 전체적으로 회사 업무를 보좌하는 작업
- 직접적으로 생산 과정에 연관되지 않는 작업

▶ 인도네시아 근무시간 및 계약

☰ 인도네시아 노동자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40시간 • 주 6일 근로 시 하루 7시간(5일간 7시간,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 시 하루 8시간
초과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의 동의를 필요함. • 하루 최대 3시간, 한 주 최대 14시간까지 허용 • 초과근로임금 지급(초과 첫 시간 150%, 이후부터 200%)
휴식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시간 근로 후 최소 30분 휴식(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원: 국제노동협력원[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해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근로조건에 명시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만일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이 종신 고용으로 취급된다.
- 직업 훈련: 작업소질의 증진, 개발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별도 장관령으로 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 작업장/근무장소: 작업장의 변경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작업장의 변경이 명시돼 있지 않고 작업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
- 해고: 해고에 대한 명확한 협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교대근무, 특정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회사의 규정 및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한다.
- 연가, 휴가: 연가에 대한 규정, 생리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임금이 지불되는 휴가, 병가 사용조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다.

이외 퇴직연금보험, 작업장 안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04. 휴일 및 휴가

인도네시아 노동자 휴가

휴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 계속 근무 시 12 근무일 휴가 제공. 미소진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 • 6년 근무 시 7번째와 8번째에 각각 1개월간의 휴가 제공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8년차 이후 근무기간이 새로 계산됨)
여성의 유급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리휴가 월 2일 • 산전, 산후휴가 각각 1.5개월씩 • 유산휴가 1.5개월

자료원: 국제노동협력원[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병으로 인한 결근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아프면 결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인도네시아 노동법과 결부돼 종종 악용되기도 한다. 질병으로 인해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회사에서 병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근로환경으로 인해, 생산직의 경우 잦은 병가가 생산성에 치명적 복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근로자들의 경우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말 특근 등을 싫어하며, 가족사로 인한 결근, 조퇴 등이 매우 일반적이다. 직계가족 행사가 아닌 경우도 가족행사로 인정, 반차 등의 공식 휴가로 처리되지 않으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병가가 연차휴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근로자 권리가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처리되지 않는 경우 종종 파업 등 단체행동을 단행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문화가 일상생활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예가 30일간의 금식기간인 라마단과, 라마단 이후의 무슬림 최대명절인 르바란으로 동 기간에는 바이어 미팅, 관계자 미팅이 불가피한 경우 오전에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하며 가급적 중대한 미팅, 계약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05. 퇴직 및 해고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 순차적 발급 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2021년 신노동법에 명시된 기업의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 경영상 해고 가능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합병, 양도, 분리 시 • 경영효율화 • 손실로 회사 청산 시 •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종료 • 회사가 부채지급 연기 상태에 있을 시 • 회사 파산 시 •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자진 퇴사 • 근로자 결근 시 •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단체에서 정한 규정 위반시 • 당국에서 근로자 구금 시 • 업무상 장애 또는 질병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

기존의 노동관계 법령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해고 가능 중과실

- 회사 소유의 물건 또는 돈을 사기, 절도, 횡령했을 경우
- 허위 또는 거짓말을 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사업장에서 음주, 주정, 마약 등의 약품을 사용, 배포한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도박의 경우
- 직장동료를 폭행, 고문, 공갈, 협박한 경우
-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 사업주 소유의 물품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 두는 행위
- 회사 기밀을 밝히거나 누설했을 경우
- 사업장 내에서 다른 행위로 5년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 해고금지사유

- 와병으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고 12개월 미만 계속 결근한 사유
- 법규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수행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유
- 종교상의 의무인 예배를 드린 사유
- 근로자 혼인 사유
-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유산 혹은 수유를 한 사유
- 근로자가 회사 내 다른 근로자와 혈연 혹은 혼인연을 가진 사유, 그러나,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노조 설립, 노조에 가입, 노조 간부 보직, 사용자와 합의하에 혹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중 혹은 근무시간 외에 노조 활동을 한 사유
- 사용자의 형사범죄 행위를 고발한 사유
- 사상, 종교, 정치성향, 부족, 피부색, 출신, 성별, 신체조건 혹은 혼인신분의 상이 사유
-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완치시기가 불명한 영구 불구 혹은 질병 사유



06. 퇴직금제도

인도네시아의 퇴직금은 퇴직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 수당의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사안별로 퇴직금의 산출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최근 인도네시아 동법(2021)의 개정 사항으로 퇴직시 해고보상금이 강화되는 등 일부 내용의 변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최근의 법령집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용관계 종결 관련 지불 보상금 규정

해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해고수당) 및 근속수당,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No.13/2003)에 따른 보상금 내용

A. 해고 보상금 (Uang Pesang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급여 • 근속 1년~2년 미만: 2개월 급여 • 근속 2년~3년 미만: 3개월 급여 • 근속 3년~4년 미만: 4개월 급여 • 근속 4년~5년 미만: 5개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 5년~6년 미만: 6개월 급여 • 근속 6년~7년 미만: 7개월 급여 • 근속 7년~8년 미만: 8개월 급여 • 근속 8년 이상: 9개월 급여
B. 근속 보상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 3년~6년 미만: 2개월 급여 • 근속 6년~9년 미만: 3개월 급여 • 근속 9년~12년 미만: 4개월 급여 • 근속 12년~15년 미만: 5개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 15년~18년 미만: 6개월 급여 • 근속 18년~21년 미만: 7개월 급여 • 근속 21년~24년 미만: 8개월 급여 • 근속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C. 손해 보상금 (Uang Ganti Ru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미사용 월차휴가 보상 b. 미사용 장기근속휴가 보상(장기근속휴가 적용회사 경우) c.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채용지까지 귀향 여비 d. 해고보상금(1항) 및 규정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2항) 합계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비 보상 e. 지방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D. 자진 퇴사 보상금 (Uang Pisah)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 - 금액의 크기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B. 근속보상금과 C. 손해보상금을 지급함.	

자료원: 국제노동협력원[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 퇴직금 및 보상금 지급 경우의 수

고용종결 유형		퇴직금, 해고금 지급규정
자진퇴사, 중대과오(절도, 위조 등)		C. 손해보상금 + D. 퇴직금
규정 위반 해고(서면경고 3회 후)		A. 해고보상금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회사 도산		A. 해고보상금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정년, 사망		A. 해고보상금*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장기간(12개월) 질병		A. 해고보상금*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강제 해고		A. 해고보상금*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회사 소유 변경 이전	노측 고용승계 거부	A. 해고보상금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사측 고용승계 거부	A. 해고보상금*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자료원: 국제노동협력원[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 퇴직보상금 지급 시 기준 임금

- 무기한부 고용계약일 경우 본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
- 일당으로 임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일당의 30배
- 도급 또는 커미션 형태로 지급 시 최근 1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됨.

☑ 정년퇴직 시 퇴직금

- 연금 보험료 부담 여부, 기납부 보험료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함
-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을 두 배로 지급함. 장기 근속금과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함
-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그 분담금이 퇴직자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퇴직금과 근속수당 지급할 필요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됨
-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그 분담금이 퇴직자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함.



☞ 고용관계 종결 사유에 따른 보상금 지급규정

구분	사유	퇴직금	근속수당	보상금
사용자측 고용관계 종결 제기	6개월 이상 형사절차 지속 혹은 6개월 이전에 유죄 판결	없음	규정*×1	있음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	규정×1	규정×1	있음
	무단 결근에 따른 해고**	없음	없음	있음
	회사의 지위 변경(노동자가 고용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을 때)	규정×1	규정×1	있음
	회사의 지위 변경(새로운 회사가 노동자 고용을 원하지 않을 때)	규정×2	규정×1	있음
	2년 연속 손실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회사 폐업	규정×1	규정×1	있음
	경영 합리화	규정×2	규정×1	있음
	파산, 도산	규정×1	규정×1	있음
노동자측 사정에 따른 고용관계 종결	희망 퇴직**	없음	없음	있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노동자의 희망퇴직	규정×2	규정×1	있음
	산업재해에 따른 질병, 신체 장애	규정×2	규정×2	있음
	사망	규정×2	규정×1	있음
정년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그 부담금이 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없음	없음	있음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그 부담금이 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급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규정×2	규정×1	있음

주1: *는 앞의 보상금 지급규정 참조

주2: **는 무단결근해고, 희망퇴직의 경우 고용계약서/사규에 제시된 승별금을 주도록 규정

자료원: 국제노동협력원[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07.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인도네시아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BPJS(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이 포함된다. 이상의 4가지 사항 중 산재, 노후, 사망에 대한 보장은 의무가입 사항이다.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 또는 1개월에 최저 100만 루피아의 임금을 지불하는 모든 조직 혹은 기관은 고용 노동자를 사회보장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최장 6개월 혹은 5,00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도급직의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산재 및 사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즉,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4개의 보험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고용계약서에서 해당 문항을 확인해야 한다.

08. 노동 분쟁 담당 기구 및 역할

인도네시아 노동 소송법에서는 노사분쟁을 권리에 관한 분쟁, 이익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 조정위원회(P4D; Panitia Penyelesaian Perselisiban Perburuban Daerab)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 위원회(P4P; Panitia Penyelesaian Perselisiban Perburuban Pusat)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가 가능하다. 만일 해고 신청이 부결됐을 경우는 인력부 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 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돼 있다.

> 권리에 관한 분쟁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

은 노동법규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 노사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주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자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해 퇴직 처리했으나, 근로자가 제3주 첫날에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계속 근무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은 분쟁이다. 이는 관계 법 조항을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5일간 연속 무단결근 시, 사용자가 즉시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무단결근을 했으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적법하나,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호출하지 않았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다(근로기준법 제168조 1항).

▶ 이익에 관한 분쟁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을 달리해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에 보너스 혹은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업이 잘 돼서 흑자가 많이 났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보너스 혹은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이다.

▶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은 통상 고용관계 종결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와, 고용관계 종결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금 등의 액수에 대한 분쟁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해고는 노동법에서 원인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주와 종업원이 퇴직 시점에서 이러한 분쟁 또는 갈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취업지원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관련 사례 유무에 대한 사전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직원들이 퇴사 하였거나 법적 소송이 발생했던 곳의 취업은 상당한 수준의 검토가 요구된다.

▶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한 회사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 간에 발생한 분쟁을 의미한다. 취업 지원자의 입장에서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

분쟁 해결의 절차는 대별해 노사 간에 직접 협상해 해결하는 단계, 민간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는 단계 혹은 노동부의 조정관을 통해 해결하는 단계, 노동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단계, 대법원에 상고를 통해 해결하는 단계, 합의 또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 집행

하는 단계,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선행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후행단계에서 해결을 불허된다. 노사분쟁해결 절차는 ‘노사 간 직접 해결’이라는 첫 계단에서부터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계단까지 한 계단씩 올라가도록 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사 간 직접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노사 간 직접 협상으로 합의되면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 공정증서를 받아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만약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협상을 시작한 지 30일 내에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협상 요구에 30일간 불응하면, 노사 중 한 측이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청구한다.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요청할 때 노사 양측은 Konsiliasi(민간인 조정)을 통한 방법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Arbitrasi(중재사 중재)를 통한 방법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한 것인지 합의하고,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을 중재 청구일로부터 근무일수 기준 7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노사가 합의된 중재 방법을 상기한 근무일수 기준 7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 노동국은 분쟁 해결을 지방 노동국 소속 공무원인 조정관(Mediator)에게 넘겨 Mediasi(노동국 조정)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민간인 조정(Konsiliasi), 중재사 중재(Arbitrasi) 혹은 노동국 조정(Mediasi) 방법으로 노사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중 어느 측이나 노동법원에 정식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Mediasi(노동국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지방 노동국 소속 조정관/Mediator에게 노사분쟁 해결이 배정되면, 조정관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고 최단시간 내에 조정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조정관은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고 조정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해, 관련 장부 공개 등 피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조정관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공동 서명 후,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첫 조정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해 조정관이 해결 권유안을 양측에게 제시한다. 노사 양측은 해

결 권유안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관의 권유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정관의 해결 권유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관의 도움으로 양측은 3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 후,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조정관의 권유안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노사 아무나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관은 최장 30일 이내에 모든 조정 업무를 마쳐야 한다.

▶ **Konsiliasi(민간인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노동국에 등록돼 있는 민간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노사 양측이 지방 노동국에 신청하면, 조정인은 7일 이내에 사건 검토를 마치고 늦어도 제8일에는 첫 조정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조정인은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고 조정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해 관련 장부 공개 등 피요청사항에 대해 설명의 의무가 있다. 조정인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공동 서명 후,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 공정증서를 받아,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첫 조정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해 조정인이 해결 권유안을 양측에게 제시한다. 노사 양측은 해결 권유안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관의 권유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정인의 해결 권유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인의 도움으로 양측은 3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 후,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 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조정인의 권유안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노사 아무나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인은 최장 30일 이내에 모든 조정 업무를 마쳐야 한다.

▶ **Arbitrase(중재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중재인은 중재인 시험에 합격한 중재인 자격증 보유자로서 전국적으로 관할권이 있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반드시 노사 양측 간에 먼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양측은 노동부에 등록된 중재인들 중에서 중재인을 지명한다. 양측이 합의하면 단독 중재(중재인 1명)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재부(중재인 3명)를 구성해 중재한다. 단독 중재는 민간 단독 판사로, 중재부는 민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간 재판부로 생각하면 된다.

중재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돼 민사소송 재판처럼 진행된다. 중재는 노사 양측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노사 양측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다. 첫 공판 혹은 이후 공판에 어느 한 측의 불참에 구애됨이 없이 공판이 진행되며 중재판결문을 내린다. 중재 판결문의 법적 효력은 양측을 구속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다. 중재 판결문에 대해 노동법원에 제소를 불허한다.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은 늦어도 30일 이내에 중재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중재 판결문 집행 시한은 판결일로부터 14일이다.



01. 임금의 체계

인도네시아의 급여 체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급여체계에 비해 상당히 단순한 구조이다. 이는 복잡한 급여체계를 운영할 경우 종업원의 이해가 어려운 점, 다양한 규정과 법적 제약에 따라 급여 구조를 복잡하게 운영할 필요가 낮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선 대부분의 정규직은 앞서 제시한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성 급여와 다양한 직무 및 업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성 수당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계의 경우 해당 기업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법인의 경우, 우리나라 모기업의 급여체계를 유사하게 적용하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에 비해 단순한 급여 구조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급여체계를 따져 볼 때는 해당 기업의 유형을 우선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체계가 복잡한 경우보다는 고정성 급여의 수준이 어떤지, 급여 외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가 어떤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며, 경력을 쌓아 나아가면서 급여 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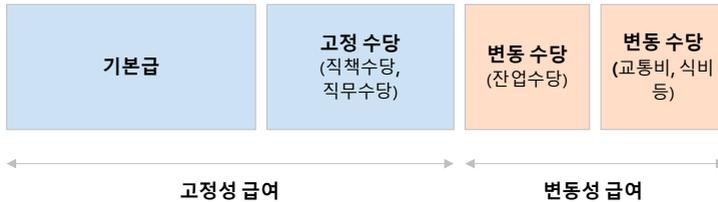




02. 임금의 구성요소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임금 구성요소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 일반적 임금 구성요소



매일 7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의 경우에 대해서는 잔업수당(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되며,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도 이러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매월 받는 급여액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03. 임금수준 현황

인도네시아의 경우 각 주별로 서로 다른 급여체계 및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다양한 임금의 구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체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임금수준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지 채용인력과 해외인력 및 주재원 등 인력계층에 따른 급여체계의 차이가 커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급여수준에 대한 정보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단, 글로벌 현지 진출기업의 보상수준 설정을 위해 매년도 조사되는 연간급여조사(annual salary survey)의 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보상수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급여수준에 대한 정보는 글로벌 기업 중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과 현지 기업 중 글로벌 급여조사에 참여하는 수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해당되는 급여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Salary Survey Benchmark Data (2021년) (단위 : RP, 월급여)

분야	직무	최저	최고
은행 및 금융	Account Officer	6,000,000	10,000,000
	Personal Banker	5,000,000	9,000,000
	Bank Teller	5,000,000	7,000,000
	Compliance Officer	5,000,000	9,000,000
	Customer Service Officer	5,000,000	7,000,000
	Front End Developer	7,000,000	9,000,000
	Finance Admin	4,500,000	5,000,000
	IT Help Desk	4,500,000	5,500,000
	Receptionist	4,500,000	6,000,000
소매 및 유통	Underwriting Staff	5,000,000	6,000,000
	Junior Account Manager	9,000,000	16,000,000
	Merchandiser	7,000,000	10,000,000
	Operational Logistic	5,000,000	7,000,000
	Software Engineer (e-commerce)	16,000,000	26,000,000
	Document Control	5,000,000	8,000,000
	HR Admin	6,000,000	10,000,000
	Invoice Admin	6,000,000	7,500,000
	Procurement Admin	6,000,000	8,500,000
제조	Tax Admin	5,500,000	7,000,000
	Administration	5,500,000	8,000,000
	PPIC Executive	5,500,000	8,000,000
건설 및 플랜트	Sourcing Executive	7,000,000	15,000,000
	Accounting Officer	6,000,000	8,000,000
	Construction Management Officer	7,000,000	12,500,000
	HSE Manager	7,000,000	8,000,000
	IT Executive	8,000,000	10,000,000
	Sales Support Admin	6,000,000	8,000,000
	Payroll Staff	6,000,000	7,000,000
하이테크	Process Engineer	8,000,000	15,000,000
	Accounting Executive	5,500,000	9,000,000
	HR Executive	6,000,000	15,000,000
	GA Executive	5,000,000	10,000,000
	ISO Staff	5,000,000	8,000,000
	Sales Executive	5,000,000	8,000,000
	IT Assessor	5,000,000	8,000,000
	Functional Trainer	4,500,000	7,000,000
	Help Dest Analyst	5,500,000	8,000,000
	IT Support	3,500,000	8,000,000
	Jr. Back End Developer	4,500,000	8,000,000
	Jr. Data Engineer	8,000,000	10,000,000
Jr. Data Scientist	6,000,000	12,000,000	
JR. Software Developer	8,000,000	12,000,000	

자료 : Porsol Kelly Indonesia Salary Guide (2021)

상기 자료는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 현지의 신입사원 수준의 주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취업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대략적으로 월급여 5,000,000(RP)에서 최대 12,000,000(RP)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IT Developer 등의 직무에서 다소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환율(0.088)을 적용하면, 현지 신입사원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급여 45~70만원 정도에 해당하기에 우리나라의 급여 수준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본 자료는 해외취업인력을 포함하지 않기에 전반적인 양상의 확인 수준에서만 이해하면 된다. 대략적으로 현지 인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한국인 취업자의 신입수준에서의 급여는 월급여 수준 200~250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지만 현지의 저렴한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



05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에 관한 법령 2011년 24호(UU No.24/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과 건강보험제도 변경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111호(PP No.111/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 요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도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해당 시점에서의 보험료 요율에 대한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

☐ 보험료 산정 기준

일련번호	종류	고용주	종업원	요율
1	산재보험(JKK)*	0.24%	-	0.24%
2	노후보험	3.7%	2%	5.7%
3	생명보험	0.3%	-	0.3%
4	건강보험	4%	1%	5%
5	연금보증	2%	1%	3%
요율		10.24%	4%	14.24%

자료 : YSM & PARTNERS 이승민 대표변호사(2017.12)

☑ 산재보험의 업종별 요율

제1업종	제2업종	제3업종	제4업종	제5업종
(봉제업체 등) 급여의 0.24%	(약기 제조업체 등) 급여의 0.54%	(삼림업체 등) 급여의 0.895%	(차량조립업체 등) 급여의 1.275%	(건설업체 등) 급여의 1.76%



인도네시아는 사용자 부담이 산재보험, 사망보험 및 건강보험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공동부담은 노후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다.

☐ 보험의 종류에 따른 부보의 범위 및 보험 금액

보험구분	보험범위 및 적용기간		보험금액	
산재보험	산업재해로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1~4개월	고정급 100%	
		5~8개월	고정급 75%	
		9~12개월	고정급 50%	
	신체 장애	신체 일부의 영구적 장애		고정급 70개월분 × 기준비용
		전신 장애	일괄 지급	고정급 70개월분 × 70%
			분할 지급	매월 5만 루피아 × 24개월
		기능 장애		고정급 70개월분 × 기준비용 × 신체기능 장애율
		사망	일괄 지급	고정급 70개월분 × 60%
			분할 지급	매월 5만 루피아 × 24개월
장례비용	60만 루피아			
사망보험	사망	장례비	60만 루피아	
		위로금	300만 루피아	
노후보험	정년 퇴직	일괄 지급	300만 루피아 미만	
		분할 지급	300만 루피아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종업원 본인, 배우자, 자녀 3명까지(21세 이하, 미취업)		지정 병원 이용	
	긴급 치료로 지정 병원 외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		최고 7일 동안만 부담	

자료 : Deloitte 인도네시아 (2017)

01. 소득세 개요

인도네시아는 소득세라는 큰 범주에서 법인세, 원천세, 개인소득세, 선납법인세 등 다양한 세목을 두고 있으며, 국세분야의 기본사항은 국세 기본법(UU KUP; Undang-Undang Ketentuan Umum Perpajakan)으로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무조건 과세가 된다. 단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유동비용은 소득이나 현물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현금이 이동하는 수당은 과세된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취업준비생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급여 소득은 과세 절차를 거친다고 이해하면 쉽다.

02. 소득세율 및 세액

개인 거주자의 대부분 소득에는 아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 및 세율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세율	세액(루피아)
Rp. 50,000,000 이하	5%	2,500,000
Rp. 50,000,000 초과 Rp. 250,000,000 이하	15%	30,000,000
Rp. 250,000,000 초과 Rp. 500,000,000이하	25%	62,500,000
Rp. 500,000,000 초과분	30%	해당 금액의 30%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2018

인도네시아의 소득세율은 인도네시아 국내 평균 급여 수준을 고려할 경우에는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일 수 있으나, 원화 기준으로 연 소득이 6,000만 원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약 30%의 근로소득 관련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꽤 높은 세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단, 국가별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으로 2년 내에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된다.



☐ 퇴직금 과세소득 및 감면세율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세율	세액(루피아)
Rp. 50,000,000 이하	-	비과세
Rp. 50,000,000 초과 Rp. 250,000,000 이하	5%	2,500,000
Rp. 250,000,000 초과 Rp. 500,000,000이하	15%	60,000,000
Rp. 500,000,000 초과분	25%	해당 금액의 25%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2018

정부 승인 연금펀드에서 지급하는 정액연금과 정부사회보장공단(BPJS)에서 지급하는 노후저축 소득(2년 내 지급분)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된다. 해당 부분은 개인이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입사 후 해당 기업의 보상 관리 담당자에게 소득 정산 단계에서 상세한 질의 및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정책연금 및 BPJS 지급 노후저축소득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세율	세액(루피아)
Rp. 50,000,000 이하	-	비과세
Rp. 50,000,000 초과분	5%	해당 금액의 5%

주 : 2년 안에 지급 시 최종분리과세. 3차 연도부터 지급 시에는 최종분리과세가 아닌 소득세법 17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2018

03. 신고 및 납부

소득공제금(PTKP; Penghasilan Tidak Kena Pajak)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는 국세청(DGT) 세무등록 및 개인 소득세의 확정신고(양식: Form 1770)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시 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며, 개인의 자산 및 부채 상황도 신고한다. 피지배외국회사(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인도네시아 주주는 관련 CFC 소득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장의 세무등록번호(Nomor Pokok Wajib Pajak/NPWP)를 사용하는 단일 신고대상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가족 소득이 PPH21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가장의 소득과 함께 과세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3자에 의해 원천징수 된다는 점이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기타 보상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하며, 종업원이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총액의 20%를 원천 징수한다(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더 경감될 수 있음). 개인에게 지불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해 지급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 정부 승인 연금으로부터의 지급되는 연금(Pension)
- 퇴직금
-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에서 지급되는 노후저축 소득
- 서비스 수수료
- 포상금 및 상금

PPH 21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의사, 손해사정인, 감정사와 같은 전문 직종에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총수입금액의 50%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종업원 개인의 소득이 되며 '퇴직금 관리 조직'이 은행인 경우는 20%의 원천세 분리과세, 은행 이외의 경우에는 PPH23에 따른 15%의 원천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주택, 교육, 휴가 및 세금보상 등의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즉 관련 비용은 법인 소득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방호복, 근무복, 출퇴근 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및 오지에 지급하는 현물 및 시설제공분도 복리후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의 내역이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이는 종업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된다.

- 1984년 이전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광산회사와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ors)
- 해외법인의 대표사무소로서, 법인세 납세자가 아닌 경우
- 최종 분리과세 대상기업
- 인정이윤 과세 대상 기업(항공 및 해운회사 포함)

참고로 인도네시아 소득세는 주로 원천세 형태로 징수되며, 원천세 적용을 받는 특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불주체 즉, 기업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각종 원천세는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구분된다. 회사는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급여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종업원 대신 세금을 납부한다. 상기 원천세는 컨설턴트 또는 용역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세무등록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가 없는 개인 거주자는 표준세율에 20%의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해외 취업자들은 개인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기고 4대 보험 등의 적용 내용 등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한 문서 관리를 다하면 된다고 볼 수 있다.

체크포인트 - 사장님 내버려두!

우리나라 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대사이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한 동남아인이 한국의 악덕 고용주에게 나쁜 처우를 받거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해외취업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주의를 요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 취업 준비자가 우선적으로 구직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계 기업들이다.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지고, 몇 번의 면접을 통해 취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초에 구두로 이야기되었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과정이 구두로 대충 진행되는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 때문이다.

이를 테면, “월급은 150만 원 정도이다”라는 말을 듣고 취업을 결정하고 취업허가 및 비자 등의 복잡한 과정을 모두 진행했는데, 실제 지급된 내용을 살펴보니 급여 외의 다른 교통비, 식대, 숙소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는 애초에 지급된 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월급이 150만원이 아닌 13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30만원이면 150만 원 정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속담과 같이, 취업 과정에서 고용계약서를 명확히 문서로 정리하고 구두로 약속된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차이점 중 하나는 급여 수준에 대한 기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하기 이전의 총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만원은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한 이후의 실수령액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장점 중 하나이다.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

02

직종별 채용 트렌드와 취업역량

-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

05

주요 로컬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01. 개요

최근의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202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기업 환경평가(Doing Business) 1위는 뉴질랜드(86.8점)이며, 대한민국의 경우 5위(84.0)를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73위를 나타내고 있는데(69.6점), 2018년의 72위와 유사한 순위이다. 평균 5%를 상회하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고려할 때 순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통관행정, 대출, 소액투자자보호, 전기 공급 등 사회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향후 점수 개선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기업환경평가의 순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가 67.2%, 유소년이 27.5%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은 경직된 구조를 띄고 있으며, 전체 노동인구 중 20.5%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노동 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와 무관하게 스트레스가 적은 편안한 근무환경을 선호하며 전반적으로 멀티태스킹에 취약한 편이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유능한 해외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하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빠른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해외인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 해외인력의 확보 측면 뿐 아니라 해외기업과 자본의 적극적 유치 노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발과 발전 주도의 전략 속에서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전술을 구가한 것이다.

그러나 1998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덮친 외환위기(IMF 사태)의 시련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위기 극복과 정치적 민주화의 이중고를 감내해야 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더딘 속도로 경제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반대로 민주주의 기반의 정치적 성숙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따라서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수반 하에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경제정책들은 기존의 개발과 발전 일변도의 전략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하여 대략 7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청·장년 실업자 규모는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 되는 정치적 요인으로, 외국인 취업의 기준과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변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기준, 7.07%의 실업률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실업률의 수치 자체는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을 제대로 적용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청년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해외 인력의 국내 취업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대응이 장기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02. 한국인 해외 취업통계자료

한국인의 해외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4,811명에서 코로나19이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12.4%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6,816명을 나타냈으나 2020년 이후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취업 총 인원은 30,655명에 달하며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이웃나라인 일본(8,633명)이다. 미국이 뒤를 이어 6,996명의 진출자를 나타냈으며, 매년 300-400명이 꾸준히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도 총 2,367명의 해외취업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본 가이드북의 대상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8년까지 100명대를 유지하다 2019년 이후 80-90명의 해외취업 인원을 기록하며 총 644명의 해외취업자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매력에 비해 아직까지는 관심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 국가별 해외취업현황

연도	계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중동	중국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중남미	말레이시아	기타
2016	4,811	1,103	1,031	642	353	416	218	56	288	144	64	72	85	339
2017	5,118	1,427	1,079	505	385	124	268	65	359	123	78	116	168	421
2018	5,783	1,828	1,380	405	397	153	198	86	383	103	88	82	197	483
2019	6,816	2,469	1,524	473	340	166	208	122	483	99	86	110	191	545
2020	4,400	1,220	901	304	121	164	161	108	497	89	89	63	165	518
2021	3,727	586	1,081	137	61	155	211	138	357	86	100	139	122	554
계	30,655	8,633	6,996	2,466	1,657	1,178	1,264	575	2,367	644	505	582	928	2,860

자료: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현황(2022년 기준)

≡ 직종별 해외취업현황 (단위: 명, %)

행 레이블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IT	644	814	1,065	1,368	722	421	5,034
의료	78	74	95	91	88	158	584
기계/금속	118	177	223	299	135	109	1,061
전기/전자	16	41	74	97	48	30	306
건설/토목	72	101	114	136	75	90	588
사무/서비스	3,453	3,419	3,567	4,108	2,721	2,462	19,730
기타	430	492	645	717	511	457	3,252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22)

최근 4년간 인도네시아에 취업한 우리나라 취업지원자의 경우 한인기업과 한국진출 기업에 주로 편중되어 있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매년도 소수의 인원이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까다로운 비자요건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한인기업 또는 한국진출기업이 현지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한국어와 인니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인니어를 공부한 한국인 지원자에 대한 구인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 기업유형별 인도네시아 취업현황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취업인원	103	99	89	86
- 외국계기업	19	23	8	3
- 한국진출기업	67	62	56	60
- 한인기업	16	11	23	21
- 기타	1	3	2	2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기준으로 살펴보는 경우 최근 현지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 IT직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인력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로 사무/서비스 영역에의 진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장인력관리, 생산관리, 물류 및 통관, 경영지원 등의 직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직무들에 대한 현지의 구인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직무별 인도네시아 취업현황 (단위: 명)

구분	계	IT	건설/토목	기계/금속	사무/서비스	기타
2018년	103	3	-	4	92	4
2019년	99	2	12	2	73	10
2020년	89	3	-	1	80	5
2021년	86	3	5	-	70	8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채용 관련 국가별 쿼터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취업 직종에 적합한 학력 또는 자격증,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유 전문 인력에 한해 허용한다. 취업자 경력, 급여수준, 외국인 채용사유 등을 엄격히 심의하며 25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 저임금 비전문직 인력은 현지취업을 제한한다. 2018년 취업 비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취업비자 발행의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고, 향후 인도네시아 어학시험을 취업비자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시키겠다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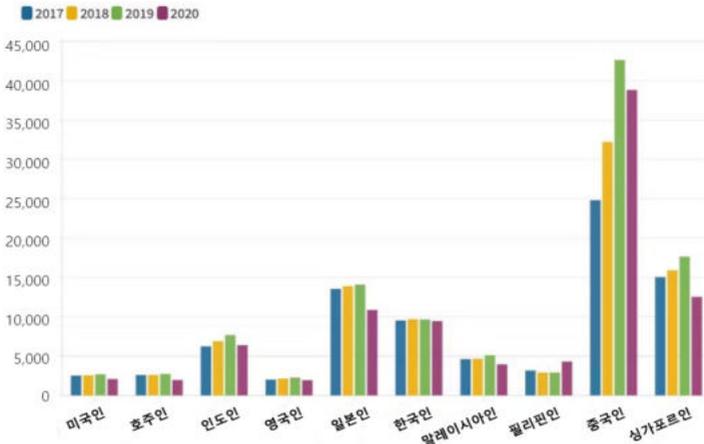
취업지원자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취업 요건을 정리해 보면, 대학교 졸업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취업 후 비자발급의 최소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요소가 바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다. 대학졸업 이후 취업준비를 하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5년의 근무경력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인도네시아의 현지 취업 준비단계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주재원 등의 자격이 아닌 한국인의 인도네시아 현지 신입 취업의 경우 대부분이 현지기업이 아닌 한국인 기업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엄격한 비자요건이 원인이 되고 있다.

임원, 감사 등 고위직은 별도 요건이 불요하나 금융, 교육, 종교, 의료보건, 광물자원 개발 분야는 관련 부처와 노동부 비자발급 여부를 공동 심의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확충을 통한 현지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외국인력 채용을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인력 채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2014년 제72호의 대체령)를 발표하였다. 신규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존에 허가되지 않았던 교수, 강사 등의 직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반면 인사 직책에는 종사가 불가하고 주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으로 충원하기 힘든 분야인 전자상거래 및 석유·가스 등의 채용을 완화하였고 긴급한 경우 채용계획 및 비자 없이 선 입국, 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기업의 현지투자자로 인한 기업설립 시에도 주재원의 고용허가 기준을 낮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국민 보호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본인의 취업허가 과정에서 직무에 따른 상이한 규정 적용이 있기에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집계한 외국인 취업자 수는 약 92,058명으로 전년도 93,374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모양새이다. 2019년에는 95,168명을 기록하였고 코로나 19이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규모가 2억 7천만명에 달하는 바를 고려하면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전체 인구의 0.1%에도 못 미치기에 자국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도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오히려 해외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Indonesian migrant workers)이 약 45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가 아직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향후 많은 발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외국인취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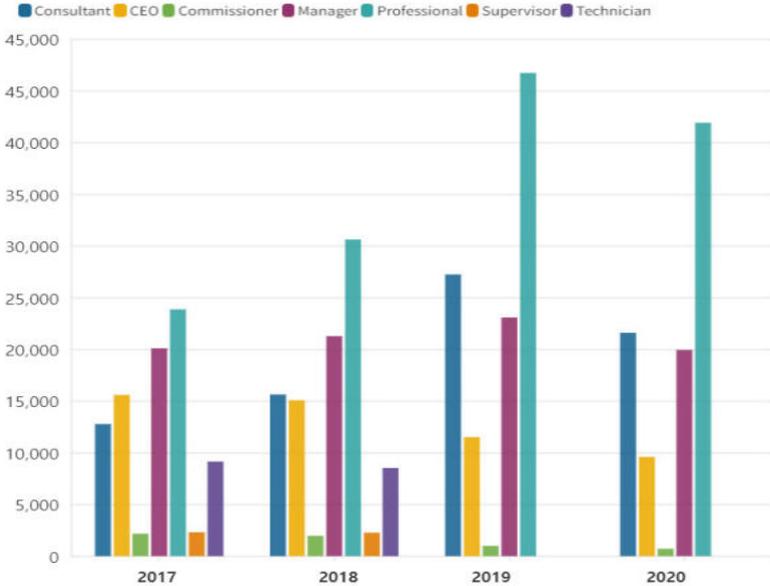


자료 : 인도네시아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2021)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중국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싱가포르가 뒤를 잇고 있다. 이어서 양국가간 우호적 관계가 돈독하여 많은 기업 투자가 이루어진 일본의 근로자 규모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해방시점에서 기존의 네덜란드 지배체제를 붕괴시킨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감정과 국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일본 기업과 일본 주재원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다.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 거리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의 98%는 일본산 자동차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재외중국인, 즉 화교들의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세력이 막강하였으며 1998년까지 인도네시아 인구의 5%인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의 85% 수준을 차지할 정도였다. 현재도 인도네시아 100대 기업의 45% 수준은 중국계 자본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국 자본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매년도 10,000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대부분 공식적인 체류비자 이상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비해 다소 많은 수의 근로자가 근무(예, 인턴십 및 계약직 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 외국인취업자 직위별 현황



인도네시아 외국인취업자의 직위별 현황은 압도적으로 전문직(professional) 직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컨설턴트와 매니저 직위도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었던 기술직(technician)의 경우 2019년 이후 외국인취업이 급감한 상황이다. 외국인 취업이 주로 전문직 또는 사무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 체크포인트 - 자카르타 시내의 집값보다 시 외곽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IMF의 경제침체가 아시아에서 기승을 부리던 1998년,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하에서 경제적 침체로 촉발된 집단 폭동 상황을 맞게 된다. 흔히들 인도네시아 화교 학살 사건으로 이야기되는 사건이다. 1998년 5월 수하르토 정권의 부정부패에 반해 일어난 대학생들의 거리 시위 과정에서 일련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역이 폭동에 휘말리게 된다.

평소 중국 자본과 화교 집단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의해 폭동 과정에서 많은 화교들이 희생을 당했다. 애초에는 1000명 이상의 화교가 희생을 당했다고 알려졌으나, 후일 해당 수치는 많이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과 중국인 화교 사이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감정의 골이 생겼으며, 자카르타 외곽의 집값이 도심보다 높은 이유에 대하여 중국 화교들이 여차하면 국외로 탈출하기 위해서라는 다소 근거가 약한 속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상 시 외곽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거주 여건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건의 여파가 작용한 부분은 크다고 하기 어렵다.



03. 취업유망분야

인도네시아의 최근 해외취업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분야별 해외취업 현황

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합계
IT	6	3	3	2	3	3	20
기계/금속	5	0	4	2	1		12
건설/토목	5	3		12		5	25
사무/서비스	118	106	92	73	80	70	539
기타	10	11	4	10	5	8	48
총합계	144	123	103	99	89	86	644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2021년까지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취업을 성공한 분야는 사무/서비스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무/서비스직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언어의 장벽이 존재함에도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들의 경우 언어 장벽에 대

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다. IT와 건설 분야도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해외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취업유망분야에 대한 논의는 우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논의에 앞서 취업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유형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 분류를 떠나서, 기업의 진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우 우리나라 취업 준비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은 (1)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2) 인도네시아 현지 대기업, (3)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중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한국 대상 수출입 또는 한국 기업 대상 B2B(기업 대 기업) 영업 영역을 제외하고는 한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신입인력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 자원 무역의 수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지원 확대로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본 책자의 성공사례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바,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 주로 자국의 주재원과 인도네시아 현지 채용인력을 주요 인력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 법령 상 최소 90% 이상의 인력을 현지채용인력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인 지원자의 경우 현지채용인이 아닌 상황이기엔 자국 주재원의 인력으로 구분되며 채용 기회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취업비자의 요건 등을 관대하게 적용해 줄 유인이 없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취업 지원자가 인도네시아 소재의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의 공식적인 근무 경험을 가진 경력직의 경우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영어와 인도네시아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훌륭한 경력직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기업들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처우와 복지 수준은 인도네시아 전반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경쟁력이 있으며, 한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규모로 인해 경력 성장의 기회도 풍부하다.

두 번째 유형인 인도네시아 현지 대기업의 경우 취업 지원자의 관점에서 접근 가능성은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과 유사한 수준이다. 엄격한 자격검증 과정이 적용되며 신입 직원으로는 외국인 직원으로 채용이 매우 어렵기에, 결국 경력직 일자리로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지 대기업들은 50% 정도 중국계 자본이기에 영어와 인도네시아에 더불어 중국어에 강점이 있는 경우 기회를 탐색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력이 많지 않은 해외취업 지원자의 관점에서는 마지막 유형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다수 진출한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은 급여, 의사소통 등의 사유로 자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도네시아 현지인 또는 자국민 출신의 주재원을 선호한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제3국인을 채용할 경우는 해당 업종, 직무 관련 전문자격, 교육이력, 최소 5년의 경력, 영어 또는 자국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구사자에 한정된다.

반면, 한국계 기업은 기술 전문직을 제외한 경우 일정 수준의 인도네시아어 능력을 갖추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경우에 글로벌 기업에서 적용하는 매우 엄격한 취업비자 요건 등의 측면에서도 일부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현지채용인에 비하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한국인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와 처우(예, 교통 및 숙소 등)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의 관점에서 채용 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봉제(의류, 신발)업이며 무역/유통, 일반 제조, 건설업도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에 O2O,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온라인 유통망 시장 발달 등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온라인 결제 수단 관련 분야에도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취업 및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실시한 업종별 인력수요 조사 결과, 210개사 대상 응답기업 127개사 중 봉제업이 54개사로 1위로 나타났으며, 유망 직무는 관리직(비율37%), 총무 및 마케팅/영업(비율 30%)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 포인트로는 인도네시아 구사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유사업종 경험자나 영어 등 제2외국어 구사 시 우대한다. 제조업을 비롯한 구인기업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도네시아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내력과 적응력 등 인성과 장기간 근무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④ 섬유/봉제 생산 관리직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 산업을 향후 연간 5~6%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60만 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직업 학교 등을 신설해 인력을 공급할 계획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섬유 기업은 국내 목화 생산량이 수요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변동 폭이 큰 국제 목화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브라질, 미국, 호주를 선두로 다양한 국가에서 목화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방적 혹은 봉제된 섬유 및 봉제 제품은 수요가 있는 국내 시장에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EU, 그리고 일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섬유, 봉제 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산업을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0년대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했고 우리나라 봉제기업들도 이때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에 대거 진출했다. 섬유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특별 경제 구역에서의 소유지 확보 가능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섬유 및 봉제 분야에서의 주요 업체는 PT Indonesia Toray Synthetics(Japan), PT Semarang Garment(South Korea), PT Sri Rejeki IsmanTbk(Indonesia), PT Nagasaki Kurnia Textile Mills(Indonesia)로 선도기업 중 한국에서 진출한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때 최대 500개사의 한인 봉제 기업이 운영되면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줄 한국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섬유·봉제 관련 업종의 한국인력 수요는 크게 3가지 유형인데, 가장 많은 인력 수요는 생산관리 직종이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운영하는 한국기업에서 수백~수천 명의 현지 채용인을 고용하여 생산과정을 운영하기에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 계층의 인력이 매우 절실하며,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인도네시아인보다는 인도네시아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의 채용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인 취업자는 입사 후 바로 매니저(과장 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한국의 기업에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많은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의 가장 큰 반대급부는 업무의 대부분을 도심이 아닌 외곽지의 공장부지에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며, 생활 터전도 이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공장 가동을 주 6일 운영하고 있는 현지 체계 상, 1주일에 1회 휴일을 가지게 된다는 점도 여가를 중시 여기는 젊은 계층에게 상당한 제약 조건으로 다가온다.

나머지 유형은 회계/재무, 통상/구매 등의 관리직 업무와 B2B 영업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조건이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된다. 단 이러한 일자리 수요는 대부분 현재 직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자리 수요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 무역/유통/물류 관리직

인도네시아의 해외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현지의 제조업체 또는 플랜트 업체를 제외하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역 및 물류분야일 것이다. 쉽게 말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싸게 구매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고가로 판매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에 비해 공산품 제조업 분야가 다소 취약하기에 이러한 무역 및 물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과 물류인프라와 관리기술의 부족으로 타 국가에 비해 물류 비용이 높은 편이나, 교역량과 경제 활동의 증가로 물류산업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인도네시아의 물류 비용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25%로, 태국(13.2%), 말레이시아(13%), 싱가포르(8.1%) 등 주요 아세안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8년 물류 비용은 GDP의 23.5%로 전년보다 1.5%p 감소했으나 주변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DHL의 동남아시아 물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계약물류시장의 수요 증가율(2020-2025년)은 9.3%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0-2025년 수요 증가율은 7.6% 수준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이 12.4%로 가장 높고, 중국이 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World Bank의 2021년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평가에서 46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LPI는 2010년 2.76점으로 75위까지 하락했으나 2021년도에 3.15점을 받아 평가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점수를 받았다. 세부 평가를 살펴보면 화물추적(Tracking and tracing)이 3.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국제수송(International shipments)도 3.23점으로 총괄 점수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관(Customs) 부문은 2.67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물류인프라(Infrastructure) 부문(2.89점)과 물류역량(Logistics competence)부문(3.10점)은 총괄 점수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인도네시아 국내물류 시장의 60%는 주로 다국적 기업(국제특급 우편·문서·화물 서비스 제공)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기업체 수는 인도네시아 회사들이 70%정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현대적 유통채널은 크게 쇼핑몰 내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미니마켓으로 구성되며, 하이퍼마켓과 미니마켓은 확산 추세인 반면, 대형 슈퍼마켓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이퍼마켓은 2003년 처음 도입된 이래 쇼핑의 편리함으로 큰 인기몰이 중이며, 점포 수 및 매출비중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이

퍼마켓 산업에서는 업계 1위인 Carrefour, 한국의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대표기업인 Hypermart,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Giant 등 4개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 식품,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인 담당자의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현대적 유통채널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약 70개 사의 물류업체가 진출해 있어 수출입과 통관 등의 관리를 위한 한국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 이러한 인력의 대부분은 관련 업계에서의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입 인력의 구인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인 경력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도네시아의 산업이 대부분 유통과 물류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되며, 항상 글로벌 역량과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보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일반제조 관리직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특히 전자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생산품목이 크게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다. 도시 생활양식의 발전으로 가계 소득의 꾸준한 증가와 소비지출이 증가하며 전자제품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최상류층의 특권이었던 전자제품의 구매가 중산층과 그 이하 소비계층에서도 이뤄지고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산업은 한국, 일본 등 외국기업이 시장을 지배해왔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한국의 삼성, LG, 일본의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인도네시아의 Polytorn, 중국의 Huawei, Lenovo 등이 있다.

통계분석 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가전제품시장은 2021년 기준 8억 34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9.1%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가전제품시장은 지난 5년간 8%대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제품 제조업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대기업인 LG전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프리미엄급 냉장고 생산에 나선 바 있다.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대형 가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가 일본의 텃밭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위치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2월 LG전자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서남부에 자리한 탕그랑 공장에 최근 프리미엄 냉장고 양

산 체제를 갖췄다. 향후 우리나라 및 다른 선진국의 전자제품 제조업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분야의 일자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인도네시아는 향후 2~3년간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G와 삼성 등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1, 2차 협력업체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줄 한국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즉,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도 현지채용인이 중심이 되는 현장에 대한 생산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관리자로서의 일자리는 섬유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심이 아닌 도시 외곽에서의 생활과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휴일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빠른 기간에 중간관리자 및 관리자 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건설/인프라/플랜트 산업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산업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국가 주요 산업이다.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건설업은 전체 GDP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건설 산업은 전체 GDP의 10.7%를 차지해 제조업(19.9%), 농림수산(13.7%), 도소매 무역(12.9%)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 이상의 인구대국으로 5% 전후의 양호한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경제발전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왕성한 주택, 상업시설, 인프라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건설업에도 일정 부분 타격을 주었다. 사회 활동 제한으로 신수도 이전을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순연되며 2015년부터 꾸준히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던 건설 산업 분야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인 -3.3%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전세계적 성장산업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이에 건설 자재와 장비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건설정보 센터(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시장 규모는 2012년 420억 달러 가량부터 시작해, 매년 평균 약 10%대의 성장을 보이며 2022년에는 8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력 수급 불균형은 IPP(Independent Power Plant)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력은 대부분이 PLN 주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IPP 사업자를 통한 전력 수급이 약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원격지, 작은 섬 등은 PLN의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곳이 많아 정부는 1MW 미만의 소형 발전기 건설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일반 거주/상업용 건설 분야도 긍정적 전망이다. 이 분야는 약 10%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현지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간의 합작 프로젝트 등으로 채용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 SOC에 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되기에, 미리 취업 요건을 고려하며 준비하고 있던 취업 준비자에게는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원(언론, KOTRA, 월드잡플러스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❶ 기타 서비스 산업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도 동아시아, 유럽, 중동 및 인도의 해상 무역의 교차로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질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외부 문화권이 주류로 자리 잡아 성장했다가, 또 다른 외부 문화권에 의해 교체됐던 경험이 많아 기본적으로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이런 이유로 외국의 문화 콘텐츠가 거부감 없이 빠른 속도로 보급돼 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의 주류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

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의 소비력이 증가하면서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판시장, 방송시장, 광고시장 그리고 지식정보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인도네시아 방송 시장은 동남아에서 세 번째 규모로, 무료 민영방송의 시청률이 높으며 방송사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광고시장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은 한-아세안 FTA 체결 10주년으로 10년 동안 한국 상품 수출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일본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과의 격차 감소 등으로 아세안 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특히 2017년 무렵부터 시작된 한국의 웹툰에 대한 현지의 긍정적 반응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한류를 통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소비되고 있으며, 한-인도네시아 공동 제작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흐름에 편승해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콘텐츠 제작 등에 전문성과 지식, 노하우를 겸비한 한국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02 직종별 채용 트렌드 및 취업역량

01. 최근의 한국인 채용 트렌드

최근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한국인 구인 수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처는 인도웹(Indoweb, <http://www.indoweb.org/love/>)이다. 현재 K-Move의 월드잡플러스와 연계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 양쪽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인도웹에 게시된 한국인 구인 공고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웹(Indoweb) 한국인 구인 게시판 현황 (2022.7.22.기준)

구인 - 업체		K.move 전체 : 692건, 진행중 : 443건, 마감 : 243건			Total 3,430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PT. HONGSUNG PRINT INDONESIA	노오력	22-07-18	601	
	Nobland	이름이나마	22-07-19	633	
	PT. JAVA SEAFOOD	denny	22-07-19	677	
	PT. DAELIM INDONESIA	DAELIMADMIN	22-07-19	855	
	PT.SUNG CHANG INDONESIA	mick	22-07-20	608	
	PT. PARKLAND WORLD INDONESIA	파크랜드	22-07-15	1687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동자 배터리 합작법인	HKML	22-07-11	1374	
	PT. BUMJIN ELECTRONICS INDONESIA	호랑이약	22-07-13	1846	
NOTICE	공지 : 2022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비다까라	22-01-18	3102	
3429	구인중 PT.SUNG CHANG INDONESIA / 가발제조	mick	22-07-20	608	
	구인중 PT. DAELIM INDONESIA / 양식기 제조업 (OEM)	DAELIMADMIN	22-07-19	855	
	구인중 PT. JAVA SEAFOOD / 수산물 가공산업	denny	22-07-19	677	
3426	구인중 PT.TIRTA BUANA INDRORAYA / 식품 & 화장품 수입 및 유통	PakJeong	22-07-19	612	
	구인중 Nobland / 섬유/봉제업	이름이나마	22-07-19	633	
3424	구인중 PT. SAMINDO UTAMA KALTIM / 석탄운송업	 ANDREAG ASSI	22-07-19	547	
	구인중 PT. HONGSUNG PRINT INDONESIA / 신발 송화전사 일가공	노오력	22-07-18	601	
	구인중 PT. PARKLAND WORLD INDONESIA / 글로브 브랜드 OEM 신발제조	파크랜드	22-07-15	1687	
3421	구인중 이니스프리 (PT. Laneige) / 화장품	gyoungah	22-07-15	1673	
	구인중 PT. BUMJIN ELECTRONICS INDONESIA / 전자 및 자동차	호랑이약	22-07-13	1846	



상기 구인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 한국계 기업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구인이 진행되고 있는 직종은 생산관리직, 수입 및 유통(물류), 경영관리, 그리고 영업/마케팅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현지 채용인과 구분되는 한국인의 직무 영역으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며, 한국계 기업에서 현지 채용인과 관리자 등의 중간 관리자 역할, 한국 대상 수출입과 물류, 그리고 한국 기업 대상 영업과 마케팅이 주요 영역이며, 일부 경영 관리 직무에서도 한국인 경영자의 관점에서 한국인 취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웹(Indoweb)의 한국인 구인 내용 예시

회사명	████████████████████
사원수	5000
설립일	2010
웹사이트주소	████████████████████
업종	핸드백 제조업
근무처	짜부부르 짚롱시
채용분야및인원	MRO 공무 1명
채용조건	면접 후 결정
희망 임금수준	회사내규에 따름
가족동반 여부	불가능/회사 내 숙소
성별	남
학력	면접시 상의
우대사항	CNC 기술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제출기한	채용시까지
서류제출처및 문의처	████████████████████
선발절차	면접 후 개별 통보
근무기간	최소 1년
근무요일/시간	주 6일 (토요일 오전근무)
기타사항	
지원방법	이메일 지원

산업별 별도의 채용 트렌드가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으며 섬유·봉제 등의 생산관리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 내 숙소에 거주하는 조건이 제시되며, 이로 인해 가족 동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의 측면에서 고려사항이 발생한다.

채용절차의 경우 대부분 서류접수 - 서류 심사 - 인사부서 면접 - 임원면접 - 결과통보의 절차로 진행되며, 결과통보 이후 신체검사 및 비자 서류점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해 최종 입사가 결정되는 절차를 가진다. 공채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기에 대부분의 구인/구직이 수시로 진행되며 채용 프로세스도 수시 진행을 기본으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네시아어 구사를 기본 조건으로 하며, 이는 실제로 취업 이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생산관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영어 보다는 인도네시아어가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도네시아어의 숙련도 수준을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주관하는 TIBA¹등급이나(총 6등급),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UKBI²(총 7등급)와 같은 공인 영어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공인 영어등급 보다는 실무적 대화와 문서 작성 가능성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편이다.

02. 취업 요구 역량

다음은 최근의 채용 트렌드와 산업 및 직종 구조를 토대로, 해외 취업 지원자가 신입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요구되는 주요 취업요구 역량을 정의한 내용이다. 해당 직무역량의 경우 지금까지의 주요 구인 수요에 대한 비중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계 기업의 진출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월드잡플러스와 인도웹 등을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TIBA는 Tes Bahasa sebagai Bahasa Asing(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의 줄임말이며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게 된다. 4가지 분야로는 문법과 읽기(Tata Bahasa, Membaca), 듣기(Menyimak), 쓰기(Menulis) 그리고 말하기(Berbicara)로 나뉜다.

2. Uji Kemahiran Berbahasa Indonesia(능숙하게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다)의 줄임말로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것 또한 문법과 읽기 (Tata Bahasa, Membaca) ,듣기(Menyimak), 쓰기(Menulis)이며 말하기(Berbicara) 같은 경우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취업 요구 역량

분야별 직무 역량				
생산관리	수출입 통관/물류	영업/마케팅	경영관리	서비스
생산공정 이해 설비 및 장비 이해 노동 관련 법령 문제해결력	관세 관련 법령이해 수출입 통관 제품이해	의사소통 네트워킹 기획력 실적관리	규정 및 절차 이해 세무/회계 의사소통 문서 작성	의사소통 문제해결 시간관리
공통역량				
인도네시아어 (대화 및 문서 작성 가능수준)	Grit (끈기와 기개)	영어 (생활영어 수준)	다문화 이해 (특히, 이슬람 생활문화 이해)	

➤ 생산관리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취업 기회는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의 생산관리 일자리라 할 수 있다. 한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인 취업지원자에 대한 정서적 접근성이 높고, 비자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다소간의 유연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 동시에 많은 수의 현지 채용인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관리자 계층에 인도네시아어 구사 가능한 한국인 지원자는 직무상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실제 수요가 존재한다. 생산관리 관련 직종에서 통상적으로 사전 직무 경험과 필수 직무역량으로 요구하는 역량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다음의 그림에서 제시되고 있는 생산관리 직종 구인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언어 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나머지 경력과 직무 영역의 측면에서는 상호 협의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물론,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생산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와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며, 사전적인 준비과정에서는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면 충분하다. 경력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정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 배경과 비교하여 취사선택이 필요하다.

생산관리의 경우 대부분 현지채용인으로 구성된 현장인력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2~3명의 소수에서 최대 수백 명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생산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도 축적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진입 준비 단계에서는 최근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법령이나 교통비, 식대 등의 조건에 대한 근로자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간략하게 숙지해야 한다. 최근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근로소득공제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검색 및 학습을 통해 사전에 숙지한다면 채용 과정에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다.

 생산관리 구인공고 예시

[KOTRA] 인도네시아, PT SAMSUNG PRINT&PACK INDONESIA, 외주관리 담당자 모집 (1명, 성별무관)

지원자 3 | 스크랩 0 | 조회수 76

대표자	김광규	자본금	0 원
업종	가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설립연도	1991년
매출액	16,500,000,000 원	사원수	500 명
주소	JL.Melati RT 028/08 KEL. Wanaherang KEC. Gunung Putri KAB Bogor, Indonesia	홈페이지	-

<p>자격요건</p> <p>경력 3년이상 ~ 10년이하</p> <p>학력 무관</p> <p>외국어 필수 인도네시아어(중) : 현지인과 대화 가능 선택 영어(중) : 현지인과 대화 가능</p>	<p>근무조건</p> <p>고용형태 정규직</p> <p>근무지역 인도네시아</p> <p>근무시간 주6일</p> <p>급여(한화) 면접 후 결정</p>	<p>접수기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color: red;">D-10</p> <p>등록일 2018-10-08</p> <p>마감일 2018-10-25</p>
<p>주요업무내용</p> <p>외주구매 및 생산관리</p>		

➤ 수출입 통관 및 물류

인도네시아의 산업은 수입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의 특성 상 열악한 물류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절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구조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의 자격은 모든 물품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품별 별도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품질표준제도(SNI)가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BSN)에 의해 만

들어진 국가 규격으로서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 강제적으로 요구되며,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인도네시아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SNI는 인도네시아 인가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KAN)에서 인증심사권한을 부여받은 19개 기관들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4년 4월 기준 시행되고 있는 SNI 품목은 총 7,638개이며, 이중 268개 품목이 취득 의무화 품목이다.

인도네시아로 물품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세(Corporate Tax), 사치세(Luxuary Tax ; PPnBM), 소비세(CUKAI) 등이 있다. 수입 통관절차는, ① 수입 제세를 은행 납부 후 수입신고서(PIB)를 세관에 전송(EDI SYSTEM) → ② 세금 납부가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접수 → ③ 세관의 수입신고서 접수 확인이 되면 원본서류를 세관에 제출 → ④ 세관에서 원본 서류 접수 이후 검사 또는 검사생략 결정 → ⑤ 통관승인, 화물출고 동의서 수령 및 창고비 지불 후 출고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ppjk)가 진행한다.

수입 통관시 유의사항으로는 첨부 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B/L 사본도 인정된다고 하나, 일선에서는 아직도 원본 제출 요구)하여야 하며, 화물 검사 시 수입신고서 내지 선적 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고액의 벌금부과 등 처벌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BL상의 수하인과 수입자 일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수출입 통관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 실제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수입통관의 절차와 개요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동시에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업무수행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이며, 취업 지원자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력 제품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준비 사항 중 하나이다.

수출입 통관 및 물류 관련 직무의 상당부분은 의사소통(구두 또는 문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실제 구인공고와 채용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수준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과정이 진행된다.

📍 수입 및 유통관리자 구인공고 예시

[KOTRA] PT.KOIN BUMI 🇮🇩

[KOTRA] 인도네시아, PT KOIN BUMI (무궁화유통), 수입 및 유통 관리자 모집 (1명, 남)

지원자 1 | 스크랩 0 | 조회수 76

대표자	김종현	자본금	0 원
업종	기타 음식료품 유통 종합 소매업	설립연도	1990년
매출액	46,000,000,000 원	직원수	506 명
주소	Jalan Senayan Blok S No. 43, Kebayoran Baru,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180	홈페이지	mugunghwa.co.id

자격요건		근무조건		접수기간		
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D-16	등록일	2018-10-08
학력	대학(교)졸업	근무지역	인도네시아		마감일	2018-10-31
외국어	필수 인도네시아어(중상) : 업무 적임 의사소통 가능	근무시간	주6일			
		급여(한화)	연봉 주 결정			

주요업무내용
한국 식품 수입 및 유통 관리 업무

👉 영업/마케팅

인도네시아의 취업 기회 중 영업과 마케팅의 직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계 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에 대한 B2B 마케팅의 직무 또는 한국계 기업의 한국 또는 해외 타 국가의 기업에 대한 B2B 영업과 마케팅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 모두 인도네시아어와 영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직무는 앞서의 직무들에 비해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비도를 요구하고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으나, 취업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처우와 보수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성장 및 경력개발 경로에서 중기 수준에서의 목표 경력 중 하나로 설정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적극적 성격을 바탕으로 네트워킹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며, 동시에 영업과 마케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세

심한 실적관리와 데이터 관리 능력도 겸비해야 한다. MS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의 사용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웨어에 대한 기본적 스킬은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 영업 및 마케팅 구인공고 예시

[KOTRA] 인도네시아주

[KOTRA] 인도네시아, PT CJ INDONESIA, 식품 마케팅 (1명, 성별무관)

지원자 4 | 스크랩 0 | 조회수 147

대표자	이순형	자본금	0 원
업종	동료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설립연도	1969년
매출액	1,400,000,000 원	사원수	6,700 명
주소	Menara Jamsostek, Jakarta Selatan, Indonesia	홈페이지	cj.co.kr

자격요건

경력 3년이상 ~ 10년이하

학력 대학(교)졸업

외국어 **필수** 인도네시아어(중상) : 업무
작업 의사소통 가능

필수 영어(중상) : 업무관련 의사
소통 가능

근무조건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지역 인도네시아

근무시간 주5일

급여(한화) 면접 후 결정

접수기간

D-16

등록일 **2018-10-08**

특검일 **2018-10-31**

주요업무내용

식품 마케팅, 영업관리 업무

👉 경영관리

영업 및 마케팅 직무의 경우와 비슷하게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경영관리 분야의 직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회계, 세무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인사, 노무, 총무 등이 주요 대상이 되는데, 상위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기획 및 의사결정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실무 수준에서의 직무 수요가 존재한다. 이는 특히 현지법인의 관리 측면에서의 직무 특수성으로 인해 주재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주재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현지 담당 조직 및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외부 협

력업체와의 의사소통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를 기본으로 하는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른 직무에 비하여 문서 작업도 많고 서류 작성의 경우도 많기에 원활한 오피스웨어 스킬도 요구되며 야근 등 업무량도 많은 편이다. 단, 상대적으로 본사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 자카르타 또는 주요 도심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여건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지만, 현지 공장 등에서의 공무지원 및 회계 관리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관리 등의 직무에 비하여 경쟁률이 높고 대부분 경력직 직원들이 경력 상 강점을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영역이다.

경영관리 구인공고 예시

[KOTRA] PT. MOLAX INTERNATIONAL 

[KOTRA] 인도네시아, PT MOLAX INTERNATIONAL (수까부미 공장), 회계 관리자 모집 (1명, 남)

지원자 3 | 스크랩 0 | 조회수 45

대표자	김기성	자본금	0 원
업종	그외 기타 통계미분 제조업	설립연도	1997년
매출액	120,000,000,000 원	사원수	7,000 명
주소	Jl Jawa V Cilincing Cilincing Jakarta Utara DKI Jakarta, Indonesia	홈페이지	molaxtrading.com

자격요건	근무조건	접수기간
경력 3년이상 ~ 10년이하 학력 대학(교)졸업 외국어 필수 인도네시아어(중상): 업무 적인 의사소통 가능 선택 영어(중): 현지인과 대화 가능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지역 인도네시아 근무시간 주5일 급여(한화) 면접 후 결정	접수기간 D-16 등록일 2018-10-08 마감일 2018-10-31

주요업무내용
회계/자금 예산, 관리

서비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토대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발리와

수마트라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보유한 국가로서, 관광산업의 면모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은 GDP 대비 10%, 외화수입원의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외화수입원 중, 석유/석탄/팜 오일/가스 수출을 제외하고는 관광산업의 수입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관광산업과 연계된 3차 서비스 산업 영역에서도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존재한다.

관광산업과 연계된 3차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는 한국기업 또는 현지 한국인이 설립한 한국계 기업의 영역에서는 기회가 많지 않으며 주로 현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높으며, 높은 수준의 인도네시아 어 또는 영어 구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

동시에 서비스 산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대면 고객관리 능력과 정서관리, 그리고 시간관리 등의 자기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직종이기에 본인의 직무 적성을 면밀하게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대로 해당 영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학위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을 깊게 요구하지 않기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과감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하다.

서비스 영역 구인공고 예시

엔유코리아주

m,u bali 새로운 가족을 모십니다.(인도네시아 발리소재)

0명이 스크랩한 공고 | 조회수 64

#백화점 #슈퍼마켓 #김희매장 #판매 #할인점

자격요건	근무조건	접수기간
경력 무관 학력 고등학교졸업	고용형태 정규직 지역 인도네시아 업무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급여 면접 후 결정	<div style="font-size: 24px; color: red; font-weight: bold;">D-34</div> 등록일 2018-09-19 마감일 2018-11-18 수정일 2018-09-28

♡ 스크랩
온라인 지원하기

▶ 공통역량

직종 별 요구역량에서도 인도네시아어의 숙련도 수준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계 기업의 속성 상 이러한 언어적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성은 매우 절대적인 수준이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어를 일정 수준 구사하지 않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취업비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기에 이러한 언어적 역량은 필수 역량이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국민의 86%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기에 현지 인력의 관리와 네트워킹 과정에서 문화적·종교적 이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또 하나의 문화적 언어 문제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마인드와 포용적 자세로 다문화를 접하는 다문화 역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요소는 바로 그릿(Grit, 끈기와 기개)이다. 현지 진출 이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어가 아닌 성공에 대한 집념과 의지라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적 조언이다. 현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이전의 기대에 비해 열악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훌륭하지 않은 처우와 업무 조건으로 인해 많은 취업 인력들이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지 못하고 조기 귀국의 실패를 경험하곤 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환상적인 자연환경과 여유 넘치는 생활을 꿈꾸는 경우에는 실제의 어려운 현실이 더욱 혹독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본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공사례들도 공통적으로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격차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에서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빠르게 업무의 영역확대와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그 과정은 안락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기다리기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성공에 대한 끈기와 집념, 그리고 기개를 단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취업비자 제도가 주기적 비자의 갱신과 외국인 근로 신고 과정을 요구하기에 취업비자와 관련되어 회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추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매년도 반복되는 비자 갱신에 지치는 경우 5년 단위 갱신이 가능한 체류허가증(KITAP)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실상 이민에 가까운 의사결정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일자리를 찾고 꿈을 펼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고민과 신념, 그리고 굳은 각오를 요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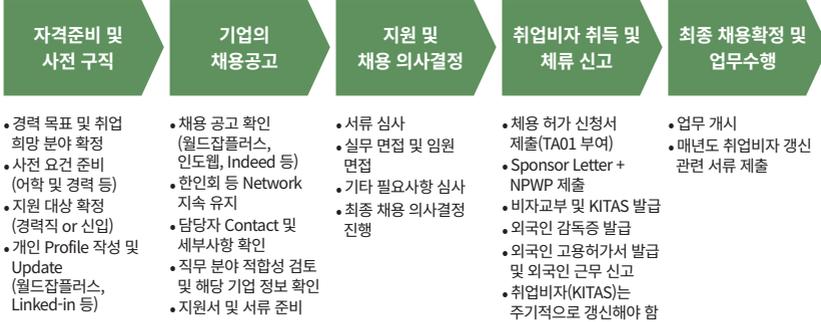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01. 취업절차 개요

🏠 인도네시아 취업절차 개요



인도네시아의 취업 절차는 공채 프로세스가 아닌 대부분 상시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모집 및 채용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한국계 기업으로 현실적 취업 대상을 한정한다면 모집 과정에서 공식적인 채용 공고의 이전 단계에서 주변의 지인들과 한인 사회를 통해 구두로 수소문 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인하고 채용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측면에서 모집 채널이 비공식적이고 상설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취업 성공 사례들 중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경우보다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어학연수와 수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용 기회를 확인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02. 취업 절차 핵심포인트

👉 자격준비 및 사전구직

인도네시아에 어떠한 직무 기회가 있고 각각의 직무 기회들은 어떠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피상적이지 않은 명확한 정보 탐색이 필요하다. 다양한 취업



사례와 K-Move 멘토링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확한 자격요건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본인의 미래 계획과 비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어야 한다.

단순히 해외취업 경험이 향후 국내에서의 좋은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수준에서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을 하더라도 성공적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

자격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바로 어학이다. 대부분의 채용 공고에서는 인도네시아어 중상 수준과 영어 중상 수준을 요구한다. 이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인 일자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어의 수준은 단순한 생활 언어 수준이 아니라, 많은 현지 인력들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적인 학습과정이 요구된다. 많은 경우 국내의 집중적인 연수과정 또는 현지의 어학원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지원하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G-YBM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일정 기간 연수 후 현지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기존 KOTRA의 K-Man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은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수행하는 글로벌청년 사업가 양성과정이다.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 (2020년 이후 진행과정)

		미얀마어	2021.7.27 ~ 2022.1.16	4년	1년	이론과 현장 연수 병행
		태국어	2021.7.27 ~ 2022.1.16	4년	1년	
		인도네시아어	2021.7.27 ~ 2022.1.16	4년	1년	
		태국어	2021.7.27 ~ 2022.1.16	4년	1년	연수 중
		인도네시아어	2021.7.27 ~ 2022.1.16	4년	1년	
		인도네시아어	2022.07.27 ~ 2023.1.16	4년	1년	연수 중

인도네시아의 경우 매년도 40명을 목표로 인원을 모집하고 총 46주에 달하는 오랜 기간 집중적인 역량배양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기업들과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취업알선과 지원제공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취업

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어학원 등의 연수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있어, 동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신입으로 채용한 기업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는 국내연수로 전환된 바 있고, 2021년 GYBM 동남아 과정으로 통합되어 베트남 연수생만 모집하기도 하였다. 2022년의 경우 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향후 GYBM 동남와 과정이 다시 세분화되고, 인도네시아의 해외연수생을 모집하여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GYBM 홈페이지(<https://globalybm.com/html/main/index.php>)를 틈틈이 확인하여 보기를 추천한다.

▶ 기업의 채용공고

2017년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K-Move의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가 현지 구인/구직 기반 체계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6년부터 한인사회 정보 포털로 활용되어 오다, 최근 구인/구직 종합 포털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인도웹(<http://www.indoweb.org/love/>)이 중요한 정보 원천이다.

물론, 4장의 취업 성공사례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공식적인 채용공고 이외의 다양한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소개와 구인과정을 통해 취업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필요 정보를 확인한다는 소극적 관점이 아니라 정보의 원천에 뛰어 든다는 보다 적극적인 탐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채용공고의 대부분은 간략한 직무 분야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유럽기업들과 같이 상세한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기업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원자는 지원 이전 단계에 담당자 연락처 등을 통하여 해당 직무의 상세 요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면접 및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준비 사항을 미리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채용 담당자의 관점에서 한번이라도 사전 문의가 있었던 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의 지원서를 접할 때 느끼는 준비도의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④ 지원 및 채용의사결정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고, 예외적으로 서류 접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수준이다. 서류상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점검하는 자세는 향후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성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서류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지원자에게는 면접과정이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인사부서의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 정보전달 등의 과정이 없기에, “몇 월 몇 시 어느 빌딩의 몇 층으로 오라”는 정도의 간략한 전달만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면접은 실제 기업의 업무 공간 중 일부에서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기업문화와의 차이로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면접 과정에서는 크게 3가지의 요인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첫째, 인도네시아어의 숙련도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는 영어 구사 수준에 대한 점검. 둘째, 향후 수행 직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와 준비도. 셋째, 인도네시아에서의 업무 여건을 견디어 내고 개인의 경력계획과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에 대한 점검.

이러한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이 진행 된 이후 채용과정상의 합격 여부가 확정되고, 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의사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합격여부가 바로 근무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 외국인 취업비자발급과 근무신고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

④ 취업비자 취득 및 업무 수행

취업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경력개발의 비전과 계획을 추구하는 지원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려움과 고통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요소이다. 이후 비자관련 영역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체류비자 발급은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은 최초 비자발급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과정에서도 반복되게 된다. 비자 갱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2~3개월을 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비자관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한 번에 약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 또한 무시 못 할 수준이다.

또한, 실제 취업비자 관련 서류 진행 시 직무사항(TA01)의 내용과 실제 수행 직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취업 비자의 결함이 업무 수

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심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KITAS 비자를 획득하고 당당히 출근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비자의 갱신과 재고용 과정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직 고려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시작이 그야말로 시작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자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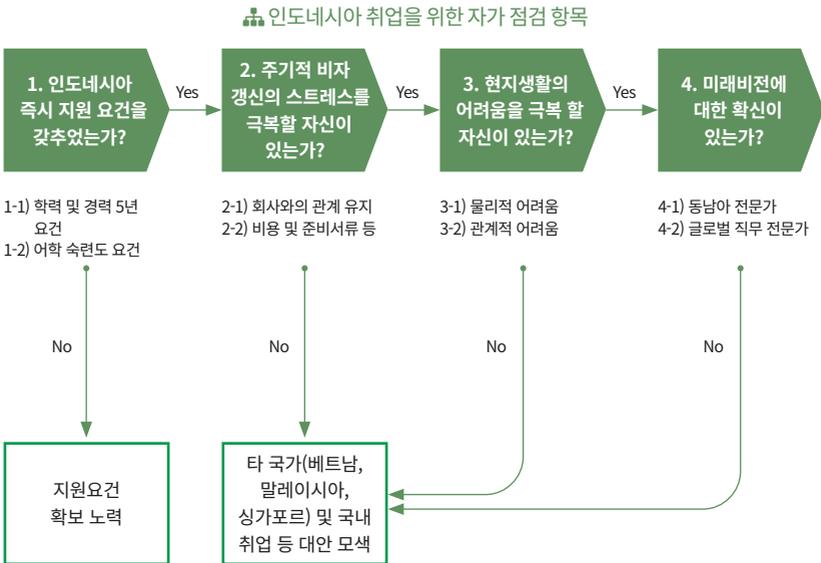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01. 자기분석항목

인도네시아의 취업 유망 직종과 취업 과정을 통해서 취업준비의 핵심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주요 사항들을 자가 점검 항목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즉시 지원 요건을 갖추었는가?

이는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및 공통역량의 준비도 수준에 대한 내용과 취업비자 신청 가능 요건을 포괄한다. 특히 관련 전공 대학 졸업과 5년간의 근무 경력(및 25세 이상)이 공식적인 취업비자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꼼꼼하고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명확한 규정상의 지침이 부족하여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인턴십 등의 근무 경력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근무 경험을 갖춘 신입 지원자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취업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대행업체들이 다양한 편법 등을 통해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접근방



식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④ 주기적 비자 갱신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자신이 있는가?

취업허가와 외국인 고용신고는 취업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고용기업의 노력과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매년도 외국인 취업자들은 고용기업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노력과 비용이 아깝지 않을 수준의 노력과 기여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비자 갱신의 과정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스트레스가 짧고 굵게 지나가기보다는 길고 지난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속 이러한 스트레스를 떠안고 헤쳐 나갈 자신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 경력개발 및 경력계획의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2번 이상의 KITAS 비자를 갱신한 경우에는 장기체류 비자(KITAP)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향후 본인의 삶과 관련된 또 다른 중대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단계를 맞게 된다. 향후 이러한 비자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속단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념하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 다음의 장에서 제시하는 성공사례 들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④ 현지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는가?

한국계 기업의 처우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현지채용인에 비해 2~3배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과 복지 수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채용인들에 비해서는 급여 수준 자체는 경쟁력이 있고, 어느 정도 아끼고 저축을 한다면 생활의 터전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 수준에 대응되는 물리적 어려움도 존재하는데, 우선 대부분의 경우 도심지역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에서 근무하고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평소의 삶의 질 측면에서 불만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근 경제규모의 상승과 맞물려 급상승하고 있는 집세(월세)와 물가수준이 문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음식의 경우 현지식이 아닌 한식과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식 대비 2~3배의 높은 가격수준을 각오해야 한다.

자카르타의 교통정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해지고 있고, 오젝(OJEK)과 고젝

(HOJEK) 등 일종의 브랜드형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자가운전을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자가용과 개인 운전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해당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연애와 결혼의 과정도 인도네시아의 상황에서 쉽지 않다. 이러한 불편함의 요소들이 결국 대부분의 취업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요소들이며, 이를 극복해 나갈 의지와 열망이 없다면 경력 성장과 경력 계획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 미래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도네시아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취업 이후의 문제점 들을 극복하고 성공적 해외취업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한국 내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인도네시아 취업 경험을 일종의 스펙처럼 간주하는 경우에는 취업 자체의 관문에서 높은 현실의 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막연히 동남아시아의 여유로움을 동경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한국을 넘어선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특정 직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직무 전문가로서 성장하겠다는 명확한 미래비전의 수립과 이에 대한 몰입이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점검요소이다.





05 주요 로컬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01. 인도네시아 100대 기업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삼성전자가 포함된 삼성그룹의 경우 연간매출액 기준 우리나라 전체 GDP의 20%에 육박할 정도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도 글로벌 상위권에 포함되는 대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가 2022 포브스 글로벌 2000 순위(Forbes Global 2000 Ranking)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공개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세계 최대 2,000개 기업 순위에서 전년 362위에서 2022년 349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PT BRI는 최근까지 PT Bank Central Asia TBK와 인도네시아 1위 기업을 두고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2022년 1월 기준 인도네시아 100대 기업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인도네시아 100대 기업 (Market Cap기준)

순위	기업 명	연간 매출 (USD)
1	PT BANK CENTRAL ASIA TBK	5,425 Million
2	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10,409 Million
3	PT TELEKOMUNIKASI INDONESIA TBK	9,552 Million
4	PT BANK MANDIRI (PERSERO) TBK	6,738 Million
5	PT BANK ARTOS INDONESIA TBK	회계기간 미종료
6	PT ASTRA INTERNATIONAL TBK	12,078 Million
7	GO-JEK	225 Million
8	PT UNILEVER INDONESIA TBK	2,752 Million
9	PT. CHANDRA ASRI PETROCHEMICAL TBK	2,580 Million
10	PT ELANG MAHKOTA TEKNOLOGI TBK	831 Million
11	PT BANK NEGARA INDONESIA (PERSERO) TBK	3,864 Million
12	TOKOPEDIA	미집계
13	PT HANJAYA MANDALA SAMPOERNA TBK	6,882 Million
14	PT INDOFOOD CBP SUKSES MAKMUR TBK	3,954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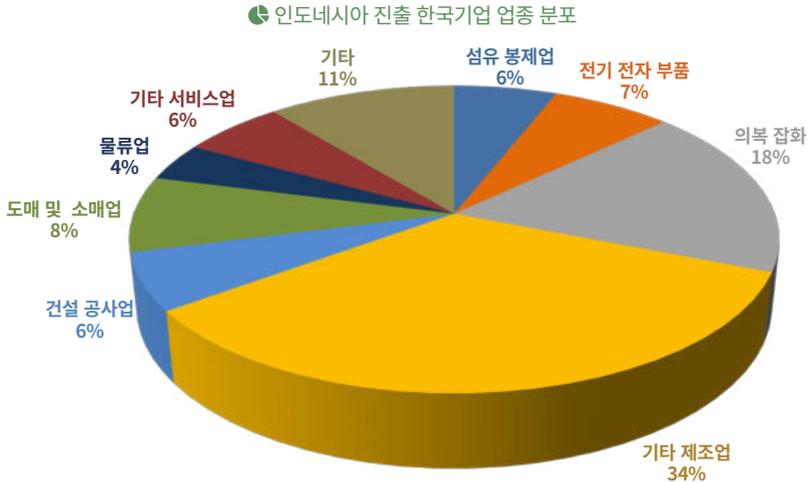
순위	기업 명	연간 매출 (USD)
15	PT CHAROEN POKPHAND INDONESIA TBK	3,598 Million
16	PT BAYAN RESOURCES TBK	2,852 Million
17	PT MERDEKA COPPER GOLD TBK	380 Million
18	TRAVELOKA	미집계
19	PT UNITED TRACTORS TBK	5,530 Million
20	PT BARITO PACIFIC TBK	3,155 Million
21	PT ADARO ENERGY TBK	3,992 Million
22	PT SINAR MAS MULTIARTHA TBK	2,510 Million
23	PT BANK BRISYARIAH TBK	2,211 Million
24	PT TOWER BERSAMA INFRASTRUCTURE TBK	368 Million
25	PT BANK MEGA TBK	434 Million
26	PT GUDANG GARAM TBK	8,013 Million
27	PT INDOFOOD SUKSES MAKMUR TBK	5,640 Million
28	OVO (Digital payment solution provider)	미집계
29	PT BANK PERMATA TBK	612 Million
30	PT ANEKA TAMBANG TBK	1,889 Million
31	PT SARANA MENARA NUSANTARA TBK	514 Million
32	PT TRANSCOAL PACIFIC TBK	114 Million
33	PT BUKALAPAK.COM TBK	95 Million
34	PT MAYORA INDAH TBK	1,689 Million
35	PT SUMBER ALFARIA TRIJAYA TBK	5,232 Million
36	PT INDAH KIAT PULP & PAPER TBK	미집계
37	PT MULTISTRADA ARAH SARANA TBK	304 Million
38	PT INDORITEL MAKMUR INTERNASIONAL	34 Million
39	PT VALE INDONESIA TBK	765 Million
40	PT BERKAH BETON SADAYA TBK	631 Million
41	PT SEMEN INDONESIA (PERSERO) TBK	2,427 Million
42	PT BANK HARDA INTERNASIONAL TBK	미집계

순위	기업 명	연간 매출 (USD)
43	PT INDOCEMENT TUNGGAL PRAKARSA TBK	979 Million
44	PT SARATOGA INVESTAMA SEDAYA TBK	미집계
45	PT DIAN SWASTATIKA SENTOSA TBK	1,689 Million
46	PT INDOSAT TBK	1,927 Million
47	PT PERUSAHAAN GAS NEGARA TBK	미집계
48	PT XL AXIATA TBK	1,795 Million
49	PT BUKIT ASAM TBK	1,195 Million
50	PT BANK RAKYAT INDONESIA AGRONIAGA TBK	51 Million
51	PT MITRA KELUARGA KARYASEHAT TBK	236 Million
52	PT BANK ALADIN SYARIAH TBK	미집계
53	PT JASA MARGA (PERSERO) TBK	946 Million
54	PT CAPITAL FINANCIAL INDONESIA TBK	818 Million
55	PT INDUSTRI JAMU DAN FARMASI SIDO MUNCUL TBK	230 Million
56	PT BANK TABUNGAN PENSIUNAN NASIONAL SYARIAH TBK	미집계
57	PT. HARUM ENERGY TBK	336 Million
58	PT SMARTFREN TELECOM TBK	649 Million
59	PT BANK MAYBANK INDONESIA TBK	680 Million
60	PT BANK CIMB NIAGA TBK	1,119 Million
61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1,024 Million
62	PT ACE HARDWARE INDONESIA TBK	536 Million
63	PT BANK DANAMON INDONESIA TBK	1,220 Million
64	PT PAKUWON JATI TBK	274 Million
65	PT INDO TAMBANGRAYA MEGAH TBK	2,076 Million
66	PT METROPOLITAN KENTJANA TBK (Real Estate Business Group)	미집계
67	PT. MNC STUDIOS INTERNATIONAL	미집계
68	PT BANK YUDHA BHAKTI TBK	320 Million
69	PT BANK INA PERDANA TBK	330 Million
70	PT BUMI SERPONG DAMAI TBK	426 Million
71	PT BANK BTPN TBK	808 Million
72	PT DIGITAL MEDIATAMA MAXIMA TBK	355 Million

순위	기업 명	연간 매출 (USD)
73	PT SURYA CITRA MEDIA TBK	352 Million
74	PT ASTRA AGRO LESTARI TBK	1,298 Million
75	PT. GARUDA INDONESIA (PERSERO) TBK	921 Million
76	P.T. FAJAR SURYA WISESA TBK	773 Million
77	PT GARUDAFOOD PUTRA PUTRI JAYA TBK	미집계
78	PT BANK BUKOPIN TBK	771 Million
79	PT BANK TABUNGAN NEGARA (PERSERO) TBK	761 Million
80	P.T. BANK PAN INDONESIA TBK	802 Million
81	PT BFI FINANCE INDONESIA TBK	593 Million
82	PT SOLUSI TUNAS PRATAMA TBK	570 Million
83	PT CIPUTRA DEVELOPMENT TBK	557 Million
84	PT BENTOEL INTERNASIONAL INVESTAMA TBK	828 Million
85	PT BANK SINARMAS TBK	267 Million
86	PT AKR CORPORINDO TBK	127 Million
87	PT METRO HEALTHCARE INDONESIA TBK	42 Million
88	PT JAPFA COMFEED INDONESIA TBK	2,551 Million
89	PT ULTRAJAYA MILK INDUSTRY & TRADING COMPANY	412 Million
90	PT MULTI BINTANG INDONESIA TBK	137 Million
91	PT MEDIKALOKA HERMINA TBK	280 Million
92	PT SOLUSI BANGUN INDONESIA TBK	697 Million
93	PT BANK OCBC NISP TBK	627 Million
94	PT BANK BISNIS INTERNASIONAL, TBK	197 Million
95	PT SILOAM INTERNATIONAL HOSPITALS TBK	208 Million
96	PT KIMIA FARMA (PERSERO) TBK	192 Million
97	PT IMPACK PRATAMA INDUSTRI TBK	124 Million
98	PT BANK PEMBANGUNAN DAERAH JAWA BARAT DAN BANTEN TBK	미집계
99	PT BUMI RESOURCES MINERALS TBK	229 Million
100	PT. MITRA ADIPERKASA TBK	1,128 Million

02.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 리스트

2018년 상반기 기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1,500~2,000개사 내외이며,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2,000개사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 회사들은 제조업, 자원·에너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있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타 제조업 (34%)이며, 의·복잡화가 뒤를 잇고 있다. 섬유·봉제산업은 대략 24%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섬유/봉제 산업은 2016년 기준 세계 섬유 수출시장에서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71억 7,0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섬유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데틱 파이낸스(detik finance)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의 60%는 서부 자바에 몰려 있고, 이 지역 임금은 다른 지방보다 훨씬 더 높다. 중앙 자바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이다. 이런 탓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섬유 회사 45곳이 문을 닫았으며, 2019년 기준 한국 의류 회사는 불과 160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기진출 산업 중 6.9%를 차지하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법인을 설립해 진출하면서 부품

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 시장에 동반 진출하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앞세워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주도하던 일본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도·소매 산업은 인도네시아 기진출 산업 중 8.0%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도·소매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롯데마트 등 대기업 주도의 하이퍼마켓 진출이 활발하며, 한국식품 소매 유통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중인 무궁화유통 등 현지 기업의 활약도 돋보인다. 온라인 판매를 활용하여 종합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Feelbuy, Orange Needles 등의 중소기업도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KOTRA 발표 기준 한국기업의 주요 진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기업명	진출연도	진출형태	업종	취급분야	모기업명
코린도 그룹 (PT Pelayaran Korindo, Pt Aspek Kumbong, PT Korindo Stainless Steel)	1969	제조판매 및 서비스 법인	제조, 금융, 자원개발 및 서비스	목가공, 조림, 제지, 중공업, 풍력발전 타워, 물류, 무역, 금융, 부동산	
키데코 자야 아궁 (PT KIDECO JAYA AGUNG)	1982	생산법인	광업·자원개발	석탄-Batubar	삼탄(주)
LG전자(PT LG Electronic Indonesia)	1992	생산법인	제조업/전자·전자·정밀기기·부품	Monitor, DVD, Audio, 홈시어터, VCR 등 생산 및 판매	LG전자(주)
한국 타이어 인도네시아 (PT. Hankook TIRE Indonesia)	2011	생산법인	제조업/자동차·자동차부품	타이어	한국타이어(주)
시제이 인도네시아(PT Cheil Jedang Indonesia)	1988	생산법인	제조업/식품	사료 및 식품 첨가물, 프리믹스, 외식, 물류, 게임 서비스 등	CJ(주)
에스케이이엔에스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2013	서비스 법인	광업·자원개발	가스, 에너지	SK E&S(주)
미원 인도네시아 (PT Miwon Indonesia)	1973	생산법인	제조업/식품	MSG, DGA, 그라비아 인쇄, 플라스틱 원료	대상(주)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PT Lotte Mart Indonesia)	2009	판매법인	도매 및 소매업/리테일	소매 유통, 생활소비재	롯데마트(주)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PT. Lotte Chemical Titan Nusantara)	2010	생산법인	제조업/화학	폴리머 제품(PE, PP) 등 석유화학 제품	롯데케미칼(주)
삼성물산 상사부문 (Samsung C&T Corp. Jakarta Office)	1975	지점	도매, 소매 및 서비스업	무역업 (에너지 자원, 화학, 철강, 섬유 등)	삼성물산(주)
우리 소다라 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92	서비스 법인	금융, 보험업	환전, 예금, 송금, 대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은행 서비스 전반	우리은행(주)

기업명	진출연도	진출형태	업종	취급분야	모기업명
포스코 이엔씨 인도네시아 (PT POSCO E&C Indonesia)	2010	서비스 법인	건설-공사업	건설	포스코건설(주)
크라카타우포스코 (PT KRAKATAU POSCO)	2010	생산법인	제조업/철강	철강, 제철	포스코
KEB하나은행 (PT KEB HANA)	2007	서비스 법인	금융, 보험업	환전, 예금, 송금, 대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은행 서비스 전반	KEB하나은행(주)
인도네시아 삼성전자 현지법 인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1991	생산법인	제조업/전기· 전자·정밀기 기·부품	VCR, CD ROM 등, 전자 통신장비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 인니 법인 (HMMI)	2019	제조 및 판 매법인	제조업/자동차	자동차	현대자동차
IBK 기업은행 인니 법인 (PT Bank IBK Indonesia)	2019	서비스 법 인	금융, 보험업	환전, 예금, 송금, 대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은행 서비스 전반	IBK 기업은행
윈텍스타일 (PT Win Textile)	2010	생산법인	섬유, 피혁	원단공장, 원단 염색 공장 가동	세아상역(주)
지누스 인니 법인 (PT ZINUS Global Indonesia)	2018	생산, 판매 법인	제조업/가구	가구	지누스
종근당 인니 법인 (PT CKD OTTO PHARMACEUTICALS)	2015	생산법인	제약	의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인니 법인 (PT DAEWOONG INFION)	2012	생산법인	제약	의약품	대웅제약
KCC 글라스 인니 법인 (PT KCC Glass Indonesia)	2021	생산법인	제조업(건축용 판유리)	건설자재	KCC 글라스
KB 국민은행 인니 법인 (PT Bank KB Bukopin)	2021	서비스 법인	금융, 보험업	환전, 예금, 송금, 대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은행 서비스 전반	KB 국민은행
LG에너지솔루션-현대자동차	2021	합작투자	자동차 부품 (전기차 배터 리)	전기차 배터리셀	LG에너지솔루 션, 현대자동차

자료 : KOTRA (2021)



☑ 체크포인트 - 일본자동차 텃밭에 도전장을 내민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도로를 점령한 일본자동차에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업체의 자동차는 정말 찾기 힘들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9년 11월,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투자 금액은 약 1조 8,000억 원. 전기차 아이오닉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단독투자의 형태이며 일본의 텃밭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리고 2022년 3월 마침내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거점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하였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인접한 브카시의 델타마스 공단 내 77만 7천m² 부지에 아이오닉 5 생산거점을 준공하였고, 준공식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현지화 전략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배터리셀 공급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공공기관, 해외취업 박람회(설명회), 기타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1. 월드잡플러스(웹/앱)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는 청년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해외진출정보(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등)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일자리(구인/구직)정보, 해외취업 후 경력관리, 국내 복귀 후 재취업 등 해외진출 전(全)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진로적성 진단과 연계한 커리어플래너 제공
- ✓ 주요 국가별 기본 정보 및 유망 직종 취업전략 제공
- ✓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한 해외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 영문/일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무료 첨삭 서비스 제공
- ✓ 해외취업, 해외연수(K-Move스쿨),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모집 공고 제공
- ✓ 청년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취업설명회(박람회)참여, 해외취업 아카데미 신청 정보
- ✓ 취업사실 확인 및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원
- ✓ 해외진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국내 재취업 정보 제공
- ✓ 부당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



▶ 일자리 검색하기

🔗 월드잡플러스



☑ 체크포인트

- (1) 앱스토어에서 월드잡플러스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친구추가(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 링크드인(Linkedin)에서 worldjob plus를 검색하는 경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2)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또는 이력서 작성 시 희망 국가와 직종을 체크해두면 나에게 맞는 해외취업 정보를 [마이페이지] > [빅데이터 기반 추천정보]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력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구인공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지원도 가능하다.
- (3) 해외일자리 BEST 20은 평균 연봉 2,400만 원 이상, 주거지원 등 근무 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골라 월 2회 선정하고 있으니, 일자리 검색 시 BEST20 스티커를 확인하자!

👉 해외진출 정보 찾기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비자정보, 진출현황, 취업 성공수기 등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가이드 화면

WORLDJOB+ International Job Search Platform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조건보기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메뉴	사업소개	일자리찾기	해외취업가이드	해외취업상담	공지&뉴스	마이페이지	경력관리
해외취업준비 해외진출의 모든것 주요국가취업정보 출입국절차	영·일본 이력서가이드 영·일본 이력서 작성법 & 영어인터뷰 대비 영문이력서 첨삭신청 일본이력서 첨삭신청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지역별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국가별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온라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청년해외진출 K-MOVE 멘토링 사업소개 멘토찾기 멘토링 콘텐츠 나의 멘토링	해외취업 가이드북 해외취업 야카데미 해외취업 K-Learning 해외취업 K-Class	해외진출 성공수기 해외진출사연테스트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 체크포인트

- (1) 국가별 해외취업 가이드북, 해외진출 성공수기 등 알짜정보가 곳곳에 있으니 찾아서 이용하자!
- (2) 영문/일본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니 구인공고에 지원하기 전에 미리 이용하자!

월드잡플러스 앱은 아직도 실력 진신번호에게 진신일인 프랭크 보여요.

영문 이력서 검정당 신청

신청현황

리뷰

Request for resume correction

수정자 : 김다비

작성일 : 2021 09 28 22:37:02

★★★★★

영어/일본어는 외국어에 서툰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Request for Resume Correction

수정자 : 김다비

작성일 : 2021 09 27 00:3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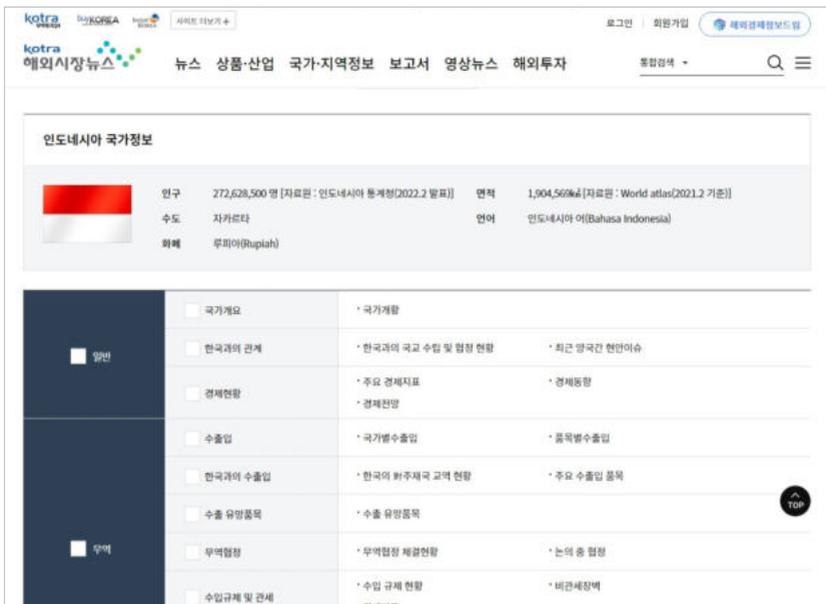
★★★★★

Thank you so much!!

02. KOTRA

KOTRA는 해외시장 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를 통해 인도네시아 등 94개국에 대한 국가정보, 무역·투자진출 현황, 취업유망분야 등의 자료와 해취투게더 카페(cafe.naver.com/kotrajobinfo)를 통해 비자정보, 정착생활 후기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



인도네시아 국가정보

	인구	272,628,500 명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2022.2 발표)]	면적	1,904,569㎢ [자료원 : World atlas(2021.2 기준)]
	수도	자카르타	언어	인도네시아 어(Bahasa Indonesia)
	화폐	루피아(Rupiah)		

인간	<input type="checkbox"/> 국가개요	* 국가개발	
	<input type="checkbox"/>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무역	<input type="checkbox"/> 경제현황	* 주요 경제지표	* 경제동향
		* 경제전망	
	<input type="checkbox"/>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input type="checkbox"/> 한국과의 수출입	* 한국의 화주재국 교역 현황	* 주요 수출입 품목
	<input type="checkbox"/> 수출 유망품목	* 수출 유망품목	
	<input type="checkbox"/> 무역협정	* 무역협정 체결현황	* 논의 중 협정
	<input type="checkbox"/> 수입규제 및 관세	* 수입 규제 현황	* 비관세장벽

03.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는 글로벌시장 리포트를 통해 주요 국가의 해외시장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잡투게더(www.jobtogether.net)를 통해 해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2 정부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취업 단계별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등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취업준비단계별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

구분	추천 프로그램	비고
관심	해외취업센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잡/해외취업센터 (카카오톡 실시간 채팅상담 / 전화, 이메일, 방문상담, 화상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취업 설명회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채용정보, 비자정보, 고용동향 등 제공(월드잡 공지사항 참조)
	청년해외진출 K-MOVE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직종별 멘토가 해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온라인 콘텐츠 형식으로 전달
준비	해외취업 아카데미 (K-Learnings, K-Class) (서울/부산/군산/통영 해외취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글로벌 네트워킹 스킬 등 교육(월드잡을 통해 신청)
	역량 강화 온라인교육(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잡을 통해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제공
	청해진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 과정과 K-Move스쿨, 중장기 통합지원 프로그램
	K-Move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어학교육 맞춤형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도전	공공알선(해외취업센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채팅상담, 전화, 방문상담을 통한 상세 상담
	월드잡플러스 구인공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K-Move센터를 통해 발굴·모집된 해외구인기업과 구직자 매칭
	해외취업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기업과 구직자의 온·오프라인 채용 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민간알선 기관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성공	해외 K-Move센터 헬프데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17개소(KOTRA,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취업자의 해외정착 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자의 조기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1차, 2차, 3차)
	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취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외취업 정보와 노하우 제공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잡 경력관리시스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업자의 현지정착 지원, 경력이동경로 파악, 이(전)직 지원 등



01. 해외취업센터

센터에서는 해외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채용관 운영을 통해 면접을 지원하며, 해외취업 정보제공,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역량진단, 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 해외취업센터 현황

구분	내용
온라인 상담신청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방문상담예약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402호(02.6964.7071~7077)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지빌딩 610호(051.715.7011~7014)
군산청년 해외취업센터	전북 군산시 내항 1길 4, 상공회의소 4층(063.443.1558)
통영청년 해외취업센터	경남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센터 2층(055.648.6544, 055.649.6544)

☰ 해외취업센터 이용정보

구분	내용
해외취업상담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 화상상담(해외취업 알선 지원) 실시간 채팅 상담(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실시간 채팅문의)
해외취업 아카데미 (무료)	해외취업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인재의 조건,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강의) 신청 : 매월 신청 진행, 기수당 정원 50명 내외로 선발
해외취업 알선	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
상시채용관	기업의 채용 설명회 및 (화상)면접 장소 제공 해외취업동아리 스터디 공간 제공

※ 아카데미 과정은 수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운영(IELTS 시험대비반, 독일 취업반 등)

02. 청해진 대학

청해진 대학은 해외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장기적으로 대학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편성·운영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 청해진대학 사업 운영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기관명	국가	연수과정명	연수직종
대구보건대학교	미국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전문가 연수과정	의료/보건
동명대학교	미국	TU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1기)	사무
동명대학교	일본	TU 일본 IT(I-Construction)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2기)	사무
동의과학대학교	일본	일본취업 자동차 부품 및 기계설계 과정	기계/금속
백석대학교	미국	호텔 스페셜리스트 육성과정	서비스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	베트남 무역물류사무직 과정	사무
선문대학교	미국	일본 IT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IT
선문대학교	일본	K-서비스 전문인재 양성과정	서비스
영남이공대학교	일본	일본 기술비자 취득 IT 취업 연수과정	IT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일본향 웹 모바일 프로그래머 전문가 양성과정	IT
한양여자대학교	일본	일본 스마트 IT 개발자 취업과정 2기	IT

03. K-Move스쿨

K-Move스쿨은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직무, 해외문화 및 직장예절 등 구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K-Move스쿨 사업개요(2022년 6월 기준)

구분	내용
지원 대상	<p><지원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30%범위 내에서 연령초과자 선발가능)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최종 학교(대학교 이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 자로 연수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자 <p><지원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수로일 혹은 중도탈락일자부터 기산)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한 자(국가, 직종, 과정, 참여 연도 무관) 연수종료 후 취업을 산정기간 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연수 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자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위한 해외 출·입국 및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자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 대상 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교환학생 체류기간 등 예외 인정)
연수분야	IT, 경영사무, 외식조리, 무역물류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분야
연수국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중남미, 중동 등
연수 기간	<p>(단기) 200시간 이상 (장기) 600시간 이상 (트랙 II) 1,000시간</p> <p>* 주당 52시간 이하 자율적 운영, 주말 수업 가능 ** 단기는 6개월 이내, 장기/트랙 II 는 11개월 이내 연수 종료)</p>
연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확보형 :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 후 취업으로 연계 자격취득 또는 훈련(교육)과정 이수형 : 해당국 부족직군, 기술·기능 및 전문 직종으로 자격취득 또는 해당국 지정 훈련과정 이수 후 취업과 연계 * 호주 유아교육 과정, 필리핀 스킨스쿠버 강사 과정 등 도제제도 연계형 : 호주·캐나다·독일 등 도제훈련을 운영 중인 국가의 구인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과정 특화모델 연계형 : ①신시장 개척 연계: 새로운 국가, 직종의 구인수요가 있을 시 연수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과정 ② 과정평가형 자격 연계: 과정평가형 자격과 연계하여 연수과정 후 취업 연계 과정
지원 금액	<p>(단기) 1인당 최대 580만 원 (장기) 1인당 최대 800만 원 (트랙 II) 1인당 최대 1,350만 원 (청해진) 1인당 최대 1,000만 원 (대학연합) 1인당 최대 1,200만 원</p> <p>※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의 20% 이내(신흥시장 취업 과정의 경우 10%), 단, 대학 과정(청해진, 대학연합 포함)은 개인부담금 편성 불가</p>
신청방법	월드잡 플러스 검색 후 지원(일자리찾기-해외연수)

≡ K-Move스쿨 신청 및 취업절차

구분	내용
① 월드잡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등록)
② 모집공고 지원	과정별 모집요강 확인 및 지원
③ 연수생 선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④ 연수 실시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실시
⑤ 취업 알선	해외기업 알선 및 면접(일반적으로 연수과정 80% 경과 후)
⑥ 사후 관리	연수 종료 후 1년까지

≡ K-Move스쿨 주요과정(2022 6월 현재)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2	일본	청해진	한양여자대학	[청해진대학] 일본 스마트 IT 개발자 취업과정 2기
2022	미국	청해진	동명대학교	[청해진대학] 2022년 TU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 1기
2022	일본	청해진	동명대학교	[청해진대학] 2022년 TU 일본 IT(I-Construction)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 2기
2022	호주	장기	연성대학교	2022년 호주 조리자격 취득 및 관광서비스 전문가양성 취업과정
2022	일본	장기	경성대학교	[일본] Global IT 융합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4기)
2022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Art Design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 (7기)
2022	말레이시아	장기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말레이시아 글로벌 기업체 인력양성 연수과정
2022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Business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 (7기)
2022	미국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우수과정] (북미) 디지털 심미보철사 양성과정
2022	미국	장기	한성대학교	미국 온라인 유통 전문가 양성과정
2022	일본	트랙 II	JSL 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9기
2022	미국	장기	제이엠피코리아(주)	미국 IT Support/Developer 전문가 연수 과정(2기)
2022	미국	대학연합	청운대학교	[대학연합] 2022년 글로벌 셰프 육성과정
2022	일본	대학연합	호서대학교	[대학연합] 2022년 글로벌 소프트웨어&게임개발자 양성과정
2022	싱가포르	대학연합	백석대학교	[대학연합] 2022년 글로벌 Taekwondo Master과정
2022	미국	대학연합	백석대학교	[대학연합]2022년 글로벌 Hospitality 전문가 과정
2022	일본	대학연합	백석문화대학교	[대학연합]2022년 글로벌 소프트웨어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2022	필리핀	대학연합	백석문화대학교	[대학연합] 2022년 글로벌 스킨스쿠버다이빙 전문가과정
2022	홍콩	대학연합	백석문화대학교	[대학연합] 2022년 글로벌 호텔외식서비스과정
2022	미국	대학연합	백석대학교	[대학연합]2022년 글로벌 경영실무사 양성과정
2022	미국	단기	주식회사워싱턴 국제교류센터	제9차 패션 브랜드 전문가 연수과정
2022	미국	장기	대구보건대학교	미국 치과기공 전문가 연수과정
2022	베트남	청해진	부산외국어대학교	[청해진대학] 베트남 무역물류사무직 과정
2022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테크니션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2기)
2022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디자인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2기)
2022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2기)
2022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물류무역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2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2	미국	장기	아이씨에스글로벌	글로벌 E비즈니스 디자인경영 실무인력 양성 과정
2022	미국	장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취업 E-BUSINESS DIGITAL 전문인력양성과정 2기
2022	태국	단기	백석대학교	태국 Global sport protector 전문인력 양성과정
2022	미국	장기	(주)외대어학연구소	2021년 미국취업 국제 하이브리드 경영실무자 양성과정 3기
2022	미국	청해진	선문대학교	[청해진대학] K-서비스 전문인재 양성과정
2022	일본	청해진	선문대학교	[청해진대학] 일본 IT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2022	싱가포르	단기	한양여자대학	싱가포르 호텔실무자 취업연수과정 20기
2022	일본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 IT 엔지니어 집중취업 연수과정
2022	베트남	장기	디엔에스코리아(株)	베트남취업 제조기업 관리자 연수과정
2022	일본	청해진	동의과학대학교	[청해진대학] 일본취업 자동차부품 및 기계설계 과정
2022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주)	일본 웹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8기
2022	멕시코	장기	한중남미협회	멕시코 경영지원 중간관리직 양성과정
2022	미국	장기	(주)리얼스톤	미국 취업 e-Biz 실무자 양성과정 4기
2022	미국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한미 통번역 비즈니스 실무자 양성과정(57기)
2022	미국	장기	한남대학교	미국 경영지원 실무행정인력 양성과정 8기
2022	미국	장기	한국교통대학교	미국 빅데이터 기반 경영시스템 실무자 양성과정 2기
2022	말레이시아	단기	(주)친HR	말레이시아 웹 플랫폼 마케팅관리자 양성과정
2022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호텔리어 양성과정
2022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셰프 양성과정
2022	대만	단기	(주)네오아이엔씨	대만 뷰티 미용실무자 5기 연수과정
2022	대만	단기	(주)네오아이엔씨	대만 뷰티 헤어실무자 3기 연수과정
2022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87기)
2022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IT융합 엔지니어 양성과정(77기)
2022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117기)
2022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무역물류프린터 양성과정(97기)
2022	멕시코	장기	(주)드림힐	중남미 사무관리직(자동차/전자) 취업연수과정 5기
2022	일본	단기	(주)더드림버스	일본 공황서비스직 취업과정 5기
2022	사우디아라비아	장기	팍시아 주식회사	[우수과정]제6차 사우디 보사부 국립병원 및 협력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
2022	미국	장기	아르케	미국 디지털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
2022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기계자동차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2	미국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미국 기업경영 기술직 실무자 양성과정
2022	미국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미국 e-commerce 웹/앱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 2기
2022	중국	장기	(주)드림힐	중국진출 한국기업 사무관리직 취업연수과정 13기
2022	미국	단기	백석대학교	미국 호텔리어 전문인력 양성과정
2022	일본	장기	백석대학교	일본 IT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77기)
2022	인도	장기	아이씨에스글로벌	글로벌 INDIA 비즈니스 개발/운영 실무인력 양성과정 7기
2022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자회로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2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2기
2022	미국	장기	건국대학교	미국 경영정보시스템 실무자 양성과정
2022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기설비 전문가 연수과정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2	미국	청해진	백석대학교	호텔 스페셜리스트 육성과정
2022	일본	단기	(주)더드림버스	일본 공항서비스직 취업과정 4기
2022	일본	장기	동서대학교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6기)
2022	호주	장기	(재)한국능력개발원	호주 타일 씨티3 자격취득과정
2022	미국	청해진	대구보건대학교	[청해진대학] 치기공전문가 연수과정
2022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글로벌지원센터	미국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6기
2022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글로벌지원센터	미국 글로벌 테크니컬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8기
2022	쿠웨이트	단기	(주)엘리트 네트워크센터	중동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취업과정
2022	호주	장기	서울현대교육재단	호주 조리사 자격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2022	일본	트랙 II	헥사곤지엠아이 주식회사	일본취업 JAVA 및 ICT 전문가 양성과정
2022	미국	장기	(주)아이씨엔그룹	미국 기업맞춤형 품질공정관리 엔지니어 양성과정 7기
2022	미국	장기	(주)아이씨엔그룹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8기
2022	일본	트랙 II	(주)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일본 IT ABC Digital Expert (광주 10기)
2022	일본	트랙 II	(주)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일본 IT ABC Digital Expert (부산 3기)
2022	일본	장기	전경련 국제경영원	일본 호텔&리조트 전문가 양성과정(취업연계형)
2022	일본	청해진	영남이공대학 산학협력단	[청해진대학] 일본 기술비자취득 IT 자동차 취업 연수과정
2022	미국	장기	전경련 국제경영원	2022년 전경련IMI 미국취업 글로벌 경영·회계 인재양성과정
2022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글로벌지원센터	미국 글로벌 디자인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7기
2022	일본	트랙 II	(사)한국무역협회	일본 ICT 2022 SMART Cloud IT마스터 Plus
2022	미국	장기	(주)코리아리크루트	미국취업 International Business 실무자 양성과정
2022	호주	장기	에이스리크루트	호주 씨티3 취득과정(타일) 연수과정
2022	일본	단기	(주)엘리트 네트워크센터	일본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취업과정
2022	일본	장기	글로벌인	22년 2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2	일본	장기	글로벌인	22년 2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2	일본	장기	글로벌인	22년 1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2	일본	장기	글로벌인	22년 1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2	베트남	트랙 II	헥사곤지엠아이 주식회사	베트남 글로벌 비즈니스(생산품질/무역)전문가 양성과정(2기)
2022	일본	트랙 II	헥사곤지엠아이 주식회사	2022년 일본취업 기계/자동차설계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7기)
2022	일본	단기	헥사곤지엠아이 주식회사	2022년 일본취업 공항시상직 연수과정(7기)
2022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경영인 양성 및 경력개발과정 7기
2022	필리핀	장기	주식회사 베스트 커리어	22 필리핀 관광서비스원 연수과정 1차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2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주)	일본 웹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7기
2022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7기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물류유통관리자 연수과정
2022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6기 미국 해외취업 국제 관광경영관리자 연수과정
2022	일본	장기	(주)현대CAD디자인 직업전문학교	일본 3D자동차부품기계설계 12기
2022	일본	청해진	영진전문대학교	[청해진대학] 일본항 웹/모바일 프로그래머 전문가 양성과정
2022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웹/모바일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2022	일본	장기	JSL 인재개발원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4기
2022	영국	단기	해외인턴십 교류센터(주)	[영국]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과정 4기 해외취업 연수과정
2022	사우디 아라비아	장기	(주)코사솔루션	[우수과정]2021년 제17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JSL 인재개발원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3기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21년 5차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한국능력개발교육원	일본 JAVA 웹개발자 5기 연수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주)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일본 IT 제2기 Digital ABC 마스터
2021	일본	장기	핵사곤지엠아이 주식회사	일본취업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문가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주)	일본 웹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6기
2021	일본	트랙 II	JSL 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7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1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테크니션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1기)
2021	일본	트랙 II	(주)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일본IT 제9기 SW DevOps마스터
2021	일본	트랙 II	핵사곤지엠아이 주식회사	2021년 일본취업 기계/자동차설계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6기)
2021	일본	장기	경일대학교	일본취업 ICT전문가연수과정(5기)
2021	중국	트랙 II	주식회사 해성 인재개발원	중국 취업 기업혁신리더 양성과정 제2기
2021	베트남	트랙 II	(주)드림힐	[트랙 II] 베트남 제조기업(전자/자동차)운영감독자 취업연수 5기
2021	일본	장기	(주)현대CAD디자인 직업전문학교	일본 3D자동차부품기계설계 11기
2021	호주	장기	에이스리크루트	호주 써티3 취득과정(타일) 연수과정
2021	베트남	트랙 II	한국능력개발직 업전문학교	베트남 한국기업 운영감독자 양성과정 11기
2021	베트남	트랙 II	(사)대우세계 경영연구회	글로벌청년사업가(GYBM)양성 베트남11th-아세안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주)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제1기 Digital ABC 마스터

04.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해외취업은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리크루트사)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기관 중에서 월드잡플러스를 통하여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이 성사된 경우 구직자를 신하여 공단에서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05.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경력관리시스템(월드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지원 -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취업자 지원 강화 	→	향후 계획
해외취업자의 직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인별 경력관리 플랫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 경력증명서 발급 - 국내 재취업 등 이(전)직 지원
설문조사	→		→	향후 계획
해외취업자의 취업만족도, 직업이동경로, 희망서비스 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취업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장기적으로 파악

체크포인트

경력관리시스템은 역량개발 및 직무경험을 구직 단계부터 취업 후 국내 복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플랫폼으로 해외취업 준비자, 취업자, 취업 후 국내복귀자 등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06.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사전 구직등록 이후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공단에서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금 우대국가	600만원	(1차) 취업 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 후 12개월 : 2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 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 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승인 순(선착순)으로 지원

※ 지원금우대국가: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 지원대상 및 취업 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① 만 34세 이하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8분위 이하인 자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한 자
취업 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공단사업(취업알선, 연수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 - 청소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등 ③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체크포인트

- (1) 취업 전에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만 해외취업 후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청은 '월드잡플러스-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메뉴에서 하세요.
- (3) 신청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취업사실확인(K-Move/EPS센터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하며 K-Move/EPS센터 확인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4) 1차 지원금은 근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까지, 2차 지원금은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3차 지원금은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5)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취업경력(취업처, 재직기간 등)을 입력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PART

04

해외취업 사례



01

성공사례

월드잡 플러스와 함께하는 해외취업 성장가이드

-

성공사례

흙수저로 태어나너 금을 캐는 수저로 만들어라

-

성공사례

잠깐의 관심이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다

-

성공사례

10년 후의 내 모습을 꿈꾸라!

-

성공사례

현재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미래가 된다

-

성공사례

이봐, 해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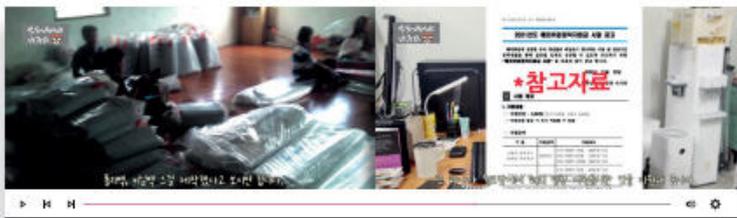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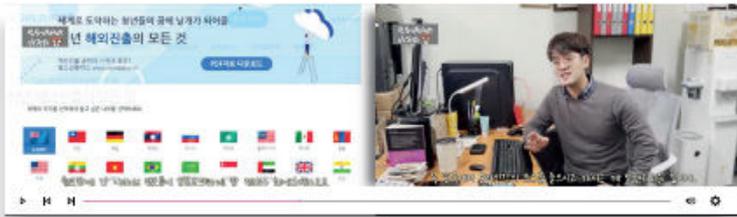


01 해외취업 성공사례

👍 성공사례 이

월드잡 플러스와 함께하는 해외취업 성장가이드

"정한수" 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우수상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ryHdfSjegXY>)





인도네시아 공화국, 약칭 인도네시아는 2020년 기준 약 2억7천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으며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섬나라입니다.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우리나라에는 휴양지 발리로 유명합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회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입헌 공화국입니다.

언어는 많은 섬만큼 수백개의 다양한 언어를 가졌지만, 공용어로 인니어(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 통화는 루피아라고 하며, 2021년 11월 9일 기준 1만 루피아는 825원이며, 신라면 한봉지가 1만 루피아 정도입니다. 빅맥지수는 2020년 기준 2달러 23센트이며 3달러 8센트의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는 빅맥이 고급음식인 반면 한국은 패스트푸드이니 단순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민의 87%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산업은 풍부한 목재를 생산하며 석유 산유국으로 화학, 의약품은 물론 관광업,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1차 생산 및 2차 가공업등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Q. 왜 해외직장을 결심했는가?

저는 산업공학과를 전공하였습니다. 경영학을 부전공하였구요. 사업을 학생때부터 하고 싶었고, 열정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직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는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Q.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학교게시판도 확인하고 인터넷 및 주변 선후배들에게도 문의를 하였지만, 제가 원하던 뚜렷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잡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월드잡에 각 나라의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남아 시장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제가 해외에 관심을 가지게

된 2014년 당시에 경제성장률이 5~6%대를 육박하고, 인구도 2억 5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확 와닿았습니다. 당시 한국 성장률이 2~3% 수준이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동남아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나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취업 후 연봉에 대한 정보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달러로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고, 세후금액으로 월급을 산정한다는 점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사대보험이라던지 각종 세금들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라 급여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이 결국 인도네시아 취업에까지 이끌었습니다.

Q.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는다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가?

요약하자면, 동남아 회사들은 사대보험 및 세금을 회사에서 직원 대신 납부합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시 적시했던 금액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을 직접 처리해야 하고 그 세금의 부담도 매우 큼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연봉 계약시 대부분 실제 지급되는 세후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 언어(바하사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

인니어가 있다는 것을 2014년에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가 없었고, 면접을 볼 때도 당시 부장님께서 회사에 들어온 이후 그때부터 해도 된다는 말을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적응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회사일도 익히는데 어려웠고, 할 수 없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에서 꼭 온라인 어학 과정을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Q. 비자발급은 어떻게 했는지?

비자발급은 쉬웠습니다. 취업이 된 이후 기업에서 한국 에이전시로 서류가 넘어가고, 이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넘어가서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

접 비자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월드잡 사이트에 비자 관련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없었습니다!(강조)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동남아에서 7년간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4개 정도의 회사에서 근무했고 3번의 이직을 한 셈입니다. 첫 번째 회사는 매출100억의 비닐백을 만드는 회사였고, 거기서 영업사원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신발 제작 공장 등 OEM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용 비닐백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출 1조 정도 되는 규모의 신발,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더불어 자재 수입 및 관리 업무까지 약 2년을 일했습니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인보이스(대금 청구), 패키리스트와 같은 수출용어도 익히면서 수출업무를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매출 10조 규모의 규모가 큰 건설회사에서 원가관리, 회계업무 등 각종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년은 인도네시아, 1년은 동사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곳에서 원가가 사용되고 비용은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 회사의 경영원리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회사는 매출 100조의 자동차회사인데요, 인사업무를 맡았습니다. 딜로이트라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협업해서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Toyota자동차를 벤치마킹해서 회사의 제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남아에서 코로나가 심하게 확산되면서 가족들과 협의 후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왜 여러번 이직을 하셨는지?

급여와 복지 조건을 좋게 제시해주셔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도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의 뜻을 가

지고 계신 분이라면 급여와 복지조건이 좋은 인도네시아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했던 건설사의 경우 3개월에 2주의 휴가가 있었습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신자가 90% 정도되는 종교 국가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중에 기도하러 가고 새벽부터 온 동네에 기도 소리가 울리고 이런 점은 한국과 매우 많이 다른 특별한 면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필수적으로 익숙해져야 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대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차량과 기사를 이용할 수 있지요.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에서처럼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수입된 한국 식자재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물품이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지요.

월드잡플러스에서는 해외 정착 지원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월드잡플러스의 해외 정착 지원금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 가정부와 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큼니다. 자카르타의 대도시에서도 월 30-40만원이면 상주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시골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Q. 회사에서 보통 차량과 기사를 제공해주나?

대부분은 지원해줍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위해서 보통 제공해주는 편입니다.

가정부와 기사를 둘 다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월 50-6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월급 500-600만원 정도 받으신다면 가정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Q.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교민이 약 5만명 살고 계십니다. 도전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

진 편이고, 발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공사례 02

흡수저로 태어나너 금을 캐는 수저로 만들어라

"이동주" 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장려상



해외 진출을 도전하게 된 나만의 계기

일본에서 IT 업계에서 7년 이상 나의 청춘을 불사르고 있었을 때, 2008년에 찾아온 외환 위기는 일본에서의 재직 및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다. 당시 동티모르는 신생 국가로 넘어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감독 및 작고 큰 아르바이트로 연명해 가면서 살고 있을 때다.

당시 이훈과 함께 찾아온 경제난과 좌절의 날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내려가는 듯한 기분으로 항상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국경

으로 다니고 있었던 Kupang이라는 지역을 알게 되었다. 그곳이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 육로였고, 그로 인해 여러 인도네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서서히 인도네시아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에 동티모르에서도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있었다. 인니어를 배우면서 ‘언젠가는 인도네시아에서 나의 꿈을 펼치리라.’라고 마음먹고 있던 2년이 지난 2017년, 월드잡플러스라는 사이트가 내 눈앞으로 지나쳤고, 순간 내 눈에 들어온 ‘일본어 가능 인도네시아 Cikarang의 금형 업체 영업 관리직 구함’이라는 구인 구직에 반신반의 이력서를 넣었다. 바로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다.

해외 진출 준비 과정

여학 관련하여, 당시 나는 인도네시아의 취업 및 창업의 꿈을 생각하면서 서 준비하던 터였다. 동티모르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한국어 능력시험과 CBT 시험의 시험 감독으로 참여한 7여 년간 종이 시험 때부터 CBT 시험센터가 세워지는 역사를 매해 보면서 인니어를 함께 공부하며 혼자서 준비하였다. 직무 역량 강화 관련하여, 인니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함께 공부하면서 실제 인도네시아에 취업했을 때는 일본 회사 거래처 및 중국 거래처와 인니 직원들과 모두 4개 국어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언어 역량을 강화하였다.

채용 절차 관련하여, 월드잡플러스에서 수순을 밟아 정식으로 금형 회사에 2017년에 취업을 하고 2019년경에 퇴사를 하게 됐다. 그 후 준비했던 월급을 모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SPA 및 마사지 숍을 오픈하였다. 비자 발급과 인니 전반 관련하여서는, 동티모르 때 이미 2년 이상 언어를 혼자 습득하고, 인니 금형 회사가 중견 기업이어서 정확한 시스템하에 관리직으로 취업이 되어서 모든 행정 절차에는 문제없이 진행해 주었고 금형 영업 관리직의 업무를 하면서 더 넓은 뿌리 산업과 제조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한국이 아닌 내가 살아보지 않은 곳에서 당시 겪어 오고 있었던 경제난을 딛고 3살 남짓 어린 딸과 둘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초기에는 있었지만, 나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베이비시터가 와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운전을 못하는 나에게 좋은 드라이버 기사를 회사에서 지정해 줘서 출퇴근하는 문제점 및 차량 사용하는 등에 대한 문제점이 사라졌다. 작은 조연이라고 한다면, 어딜 가나 같은 문제겠지만, 일단 내가 한걸음 딛

지 않으면 그 어떤 길도 나지 않으며, 그 어떤 환경도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월드잡플러스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여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

해외 진출 경험을 통한 현재의 모습

“현지 EPS 콘텐츠 사업”

동티모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으로 취업하는 것이 큰 영광이고 또 마을의 자랑이 되며, 본인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되는 로또 당첨과 같은 길임을 지켜보면서 그 와중에 돈 없고 성실한 친구들은 기회가 없어서 계속 낙방하고, 돈 있고 수업 체계를 똑바로 받은 친구들은 잘 붙는 현실에, 당시 KOICA 봉사단으로 왔던 선생님들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동티모르어(테툼어) 교재 및 강의를 만들어서 3만 불짜리 코이카 현장 사업을 수행했다. 동티모르 전역에서 나의 강의와 교재가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작년 2020년에는 2차적 저작물의 지식재산권도 취득하였다.

“해외 인니 SPA 사업 2호점 오픈”

코로나로 2020년에는 위의 일본 IT 기업의 8년 이상의 경력과 인도네시아의 10여 년 경력 그리고 동티모르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시험 감독 및 KOICA 봉사단을 위한 교재 개발 등의 교재 제작 등을 기반으로 많은 교재, 교육 콘텐츠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5월 KOICA 리턴프로그램 사업에 EPS-TOPIK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이 선정되고, 9월에는 서울시 스타트업 CEO로 선정되어 작년에 설립한 스타트업 회사가 잡지에 실리는 기업을 토해냈다.

“해외 기업 고용”

2021년 인니에 있는 한일합작 중견기업이자 금형 회사인 PT. Meiwa Mold Indonesia에서 나를 스카우트하여 CTO(경영 기술 이사)직으로 올해 7월부터 사장을 대신하여 회사 전반적 경영을 도맡고 Zoom 미팅 등으로 인니 직원들과 업무 처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한국 본사에 출근하면서 모두 재택근무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MBA 경영대학원 졸업”

2020년 1월,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지옥의 시발점이었지만, 나에게서는 코로나의 등장에 무서움과 두려움도 생각할 겨를 없이 홀로 육아와 공부 그리고 먹고사는 일까지

모두 가장의 역할, 엄마의 역할, 사장의 역할, 학생의 의무까지 견뎌야 했다. 내가 견뎌 냈던 작년과 올해의 시간을 모두 내 어깨에 짊어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단 1분의 사치스러운 시간도 허용되지 않고 살아 냈었던 것 같다.

해외 진출을 통해 목표로 하는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 계획

현재는 교육 콘텐츠 사업을 위주로 EDUKOREAS라는 LMS 학습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바일과 PC를 통해 어디에서나 56개국 다국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EPS 시험 및 교재 등을 무료로 쉽게 공부하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공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거 1년 이상 일본에서의 IT 경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KOICA 사업 관련 LMS 교육 플랫폼 납품 등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IIW의 용접기술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곳과 연계하여 함께 인증 기관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내년에는 ‘한국교육기술원’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 법인 설립을 목표로 광운대학교 캠퍼스 및 KOICA 등의 지원을 받아 차근차근하게 한 단계씩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나는 옛날 미아리 촌이라는 창녀촌에 있던 판자촌 집에서 태어나서 상고를 졸업하고 19세에 전산실이라는 곳에 취업한 계기로 일본 IT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일본에서 8년의 시간을 견디고 나니 어느 순간 동티모르에서 나만의 사업을 갖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인생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월드잡플러스라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서 인니에서 관리직으로 금형 회사 및 제조업 네트워크 분야 경력을 3년 이상 쌓고 그 자본금으로 인도네시아란 황량한 곳에 SPA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제2호점을 런칭하고, ‘상고’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네 번의 휴학을 하면서 사이버대학을 6년간 다니다가 올해 기적처럼 숭실대학교 MBA 경영대학원을 4.2라는 말도 안 되는 학점을 받아 졸업했습니다. 아무리 흡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수저를 계속해서 갖고 닦아 줄 수 있는 윤활유와 도포제는 지금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시련들과 좌절에 빠진 문제들일 것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누구에게는 환난의 시간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찬스의 시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내일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찬스

의 시간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선택하는 데 월드잡플러스와 한국산업인력 공단이 제2의 인생을 위한 터닝포인트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제 인생을 회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공사례 03

잠깐의 관심이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다

다르다는 것

20살에 인도네시아에 잠깐 놀러 왔다가 인도네시아 문화에 흥미가 생겨 현지 대학문에 진학하게 되고 취업하며 산지 벌써 6년차가 되었다.

처음 일이 년 차까지만 해도 그저 모든 것이 흥미롭고 궁금하고 배우고 싶었다. 다르다는 것마저 나를 역동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될수록 다르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다. 처음 나를 가장 흥미롭게 했던 것은 인도네시아가 6개의 종교(크리스천,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교)를 인정하며 전체 인구의 90% 가까이 이슬람교라는 점이다. 10명중 9명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문화는 이슬람교의 색깔이 짙게 나타난다.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학업이나 비즈니스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기도시간은 지켜주어야 하며, 인사를 할 때나 돈거래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해야 한다는 점들이다. 처음에 새벽 4시에 울리는 Azan(새벽기도)소리에 잠을 설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장가인 마냥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질 때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300여개의 부족이 통합된 나라이다. 그만큼 인도네시아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름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 다르다는 것에 차별과 비난이 아닌 존중을 해준다. 내가 이방인으로써 오랜 시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매우 쉬우면서도 중요하게 여긴다. 이 점이 필자를 정말 많이 변화시켰다.

컨유스픽 비행사 인도네시아?

이니어(인도네시아어 줄임 말)는 알파벳을 그대로 쓰고 발음 또한 어렵지 않기 때문

에 세계에서 배우기 가장 쉬운 말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비주류언어로 분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 명 정도 되며 중국, 미국, 인도 다음인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독립국가인 브루나이와 띠모르레스페 국가의 언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SEAN의 본부가 인도네시아에 위치할 만큼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채용을 한다면 반드시 인니어를 할 줄 알아야한다. 필자가 처음 인니어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는 인니어만 잘하면 취업 되는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유학생 및 교환학생들의 유입으로 인니어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어필되어야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의 현지채용에 보다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현지인과 친해져라!

만약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나에게 어떠한 것을 물어본다면 본인은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인가? 인도네시아는 한류의 열풍이 몰아치는 곳 중에 하나이며 상당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인들과 친구를 맺고 싶어 한다. 여기서 필자는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처음에 어눌한 인니어로 많은 현지 친구를 사귀며 한국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많이 보았다.

필자가 20대 초반일 때 UPH라는 대학교의 행사에 참여하며 한 살 위의 화교 친구를 만났다. 여기서 이 친구의 아버지는 Adidas 공장을 운영하시며 매우 유복한 집안의 장남이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용돈을 벌어서, 본인이 대학 입학 후, 주식을 공부하며 2년 동안 본인 이름으로 산 오피스텔 방 5개와 개인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예시로 필자가 막 인도네시아에서 영어공부를 하며 만났던 반동 소년이야기를 하겠다. 그는 20살에 반동(지방)에서 자카르타로 공부하러 온 친구였는데 Communication쪽에 관심이 많아 그 분야에 가장 좋은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조그만 라디오 회사에 취직하여 평일에는 새벽방송 및 야간방송, 주말에는 행사 MC를 보며 생활비를 벌고 졸업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라디오 방송국인 Prambors에 취업하여 현재 Senior PD로 활동하고 있다.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20대 초반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학업과 취업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지만 인도네시아의 젊은 친구들은 학업에

치중하기보다 본인의 미래에 보다 중심을 두고 대학을 다닌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주위에 이러한 친구들과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매년 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양질의 친구들을 어디서 사귀나?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든 다가가다 보면 당신과 또래의 친구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 때 그들에게 인사 한번 건네 보다면 본인의 미래가 조금씩 바뀌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을 하지?

14,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지며, 세계 인구 4위를 차지하고, 방대한 자원이라는 무기를 가진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봉제, 섬유, 기타 생산 공장, 무역, 물류, 유통, 광산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필자 역시 자원물류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출 증진 및 수입 감소 정책과 관련하여 팜오일, 농업, 에너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은 비자관련 문제로 한국기업에 취직을 한다. 여기서 주로 취직하는 곳이 생산 공장이거나 CJ, LG, SAMSUNG 등 한국 대기업의 지사에 현지 채용으로도 많이 취직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온 한국 유학생들 역시 이런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으며, 본인이 이런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부분(현지에서 대학 나왔다고 인니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한 이해, 본인이 이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어필을 잘한다면 필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혹시 본인이 워라벨(Working & Life Balance)을 지향하는가?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구직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중소기업 형태를 유지하며, 현지 법률 상으로 한국인이 1명이면 현지 직원을 대략 10명 뽑아야 한다. 이런 기업 구조상, 한국인은 적고 관리해야 할 직원들,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신입사원이라고 입사를 하지만 결국 본인이 하는 업무는 한국의 최소 대리급 이상 업무들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 따라 격주로 토요일 출근하는 곳도 많다. 여기서 장점은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전문성을 더

빨리 기를 수 있으며, 더욱 빨리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도네시아 휴일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업무 중 이슬람 직원들의 하루 5번 기도로 인하여 업무 흐름이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반대로 미팅을 하러 가더라도 기도시간을 피해서 약속 시간을 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며 그들의 문화에 적응을 해야 한다.

👍 성공사례 04

10년 후의 내 모습을 꿈꾸라!

세기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필자가 어렸을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제목이다. 이 책이 아마 내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인 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길을 향해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갈 것을 권한다. 필자는 대학생부터 프랑스,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통해서 언제나 해외에서 우뚝 서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려왔다. 그러던 와중에 기회가 생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광산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환경 Green Coal 석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실력을 갈고 닦는 중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이다. 막연하게 해외취업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 힘든 환경이나 조건에 쉽게 노출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동반되어야 할 것은 본인이 진지하게 심사숙고 하여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다. 나는 Post China 라고 불리고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있는 또한 평균연령 30세의 인구 3억 대국 인도네시아로 결정했다. 개발도상국이지만 누구나 자카르타의 고층 빌딩 숲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이 나라의 역동성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대학생 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자원물류 회사에 인턴을 하게 되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꼭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

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와 나아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하였다. 석탄, 팜 오일 등의 지하자원이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은 ‘자원 트레이딩’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큰 가치를 만들어 내고 싶었다. 또한 평소에 관심 있었던 ‘기후변화 대응 및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자원무역과 융합하면 스스로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 자원사업 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해외 취업을 위하여 도전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 돌파구를 스스로 찾자!

처음 해외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할 것이다. 유창하게 영어와 현지어를 하며 해외 바이어들과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현실은 다르다. 보통 해외취업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 비즈니스를 진출 또는 확장하기 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회사 내에서 핵심 인물로 성장하고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Key Person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필자의 회사에는 독일, 네덜란드, 홍콩, 태국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어울리며 업무를 진행한다. 이 집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욱더 Research 하고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일례로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 보통 서양 사람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타 업계의 비즈니스가 아직까지도 서양기업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네트워크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유창한 영어 실력과 비즈니스 매너로 더욱 유리하게 상황과 여건이 형성 되어있다. 이러한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곁에서 보고 배우며, 어떻게 그 차이와 괴리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금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례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직원들과 잦은 미팅과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항상 그들을 찾으면 기도를 하러 가서 자리에 없다. 하루에 다섯 번 꼭 기도를 해야 하는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10년 후 내 모습은 어떤 걸까?

해외취업이 단순히 잠시의 일탈 또는 호기심에서 이루어진다면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된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생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인 외로움, 향수병 등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는 확신과 믿음일 것이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은 쉽게 형성될 수 없다. 본인은 항상 10년 후 내 모습을 그리며 확신과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 10년 후 내 모습을 그리게 되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계획하며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세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을 가지기 위해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10년 후 내 모습은 어떤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가진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서쪽의 Aceh 지역에서 동쪽의 Papua 지역까지 무려 5,000km. 그리고 약 14,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아세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에서 본인도 조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기여를 할 그 날을 꿈꾼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외의 회사들은 우리나라처럼 공채를 통하여 구인을 하지 않는다. Jobstreet.com 또는 linked in 등의 리크루팅 플랫폼에 자신의 이력서와 경력 사항들을 잘 기재한다면 언제 어느 회사에서 연락이 올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하여 스스로 이력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다양한 경력사항들을 준비한다면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취업 시 중요한 역량은 당연히 영어와 인도네시아어이다. 비교적 타 언어보다 인도네시아어는 빨리 습득하고 활용하기 쉽다. 또한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도 ‘이방인’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 중에 하나다.

👍 성공사례 05

현재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미래가 된다.

약 10년 전쯤, 대학생을 위한 외교통상부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참가자들과 MT를 갔던 적이 있다. 거기서 참가자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

오는 세계에 대한 경험들은 참으로 놀라웠다. 나만 빼고 모두가 일반 관광이 아닌 특별한 해외 경험이 있었고, 심지어 자비로 다녀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들의 경험을 들으며 해외에 대한 호기심은 증폭됐고, 막연하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해외에서 일 해 보겠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품게 됐다.

그 후로 10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크고 좋은 회사는 아닐지라도, 목표로 했던 일반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차근 차근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뿌듯하다.

현재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미래가 된다.

사실 정확히 해외 어느 나라에서 일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던 적은 없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해외에서 일 해보겠다는 생각은 놓아본 적이 없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임했기에, 작은 일들에도 최선을 다했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 것 같다. 사실 아래 언급하는 몇 가지 사항 중에 뛰어난 것은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부분이 된 것 같다.

1. 영어공부

한국에서 취업의 기본이라는 토익을 공부하면서도 회화를 생각하며 공부했다. 짧지만 회화 수업도 들으며 토익 표현도 회화에 써먹으려 노력했다.

2. 문화공부

중동과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슬람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호기심에 중동 관련된 책자들을 읽었던 부분들이 인니에 적응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다.

3. 직무 경험

좋은 조건은 아니었으나 인니에서 처음 인허가 회사에서 일하며 일반관리 업무에 필요했던 외국인 취업비자, 법인인허가 기본 지식을 터득했다.

4. 교민사회 적응

현지 한인교회를 다니며 심리적 안정을 얻었고, 도움을 주신 많은 교민분들을 만나게 됐다. 이로 인해 빠른 적응과 다양한 정보 및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5. 현지 언어

어학당에서 공부하면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또

한 현지 친구들을 만나려 하고, 현지 신문을 보려 노력했다.

인허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는 현지인들과 인니어로 대화를 많이 하고, 업무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현지 취업시장 상황 및 조언

- 인도네시아 역시 이전보다는 구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나, 수도권 자카르타 외곽 혹은 지방에 있는 공장 혹은 회사들은 구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 각 회사는 교민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로 채용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주변에 수소문하여 괜찮은 인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경향도 많다. 인니에 먼저 들어왔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회사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게 되면 추후에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전으로 봐야한다.
- BIPA라는 인니어 어학당적인 언어 코스에서 기본 언어를 습득하며 구직을 준비하고 네트워크를 쌓아가면 구직에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밟는 기본 취업 코스이기도 하다.

장기체류하며 구직 시 어학사항 및 주의 사항

- 비자가 까다로운 국가이므로 장기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하게 될 경우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인니 비자의 종류를 사전에 알아보고 자신의 체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취업비자가 아닌 비자로 인도네시아를 자주 왕래하게 되면 공항 입출국 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 해외인 관계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입사 시 주변에 해당 회사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입사하는 것이 좋다.

일단 시도해보라!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운도 따라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기회도 없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라는 두 글자에 웬지 모를 부담감을 갖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물론 실제로 여기 뛰어난 사람들도 참 많다. 반면에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도 많다. 나 또한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일단 부딪쳐보니 길이 열렸고, 부담감과 생소함이란 단어는 점차 경험과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갔다. 부담은 찰나의 두려움이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Now or Never.

그러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으니까.

 성공사례 06

이봐, 해봤어?

대학 시절, 열대·아열대에서 이루어지는 재식농업인 플랜테이션 사업을 말씀하시던 교수님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교수님의 이야기는 평범한 우리네들처럼 여자친구, 자동차, 생일파티가 아니라 찌작과 원주민, 말라리아와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교수님께서 간혹 해주시는 젊은 시절 이야기들은 나의 혼을 쑥 빼놓기 일쑤였고, 이때부터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나를 앞으로 이끌어 플랜테이션이란 것을 알게 하였고,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 충북농업기술원 근무, 라오스 해외농업봉사단 활동을 거쳐, KOTRA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선발로 이어져 기어이 인도네시아까지 오게 만들었다.

명확한 목표가 취업으로 이끈다!

인도네시아에 KOTRA라는 안정적인 디딤돌을 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정착은 매우 힘들었다. 인니어를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 기업을 찾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간혹 KOTRA에서 알려주는 실날같은 업체 소개를 통해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가면 무슨 상가 빌딩에 입주한 어두침침한 이상한 업체가 나를 기다리곤 했다. 그럴 때면 이런 데서 일하려고 이 머나먼 나라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 업체

면접마저도 떨어지고 나면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준 건 목표였고, 비전이었다. 애초에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 향후 플랜테이션 사업의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하여 다른 업종의 회사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회사를 찾아 두드리기 시작했다. 우선 내가 원하는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추렸고, 그 회사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가지 회사를 추렸고 그 회사들에 집중했다.

한인 네트워크는 필수!

해외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한인 네트워크라고 하겠다. 물론 한인이 아닌 다른 인종도 가능하겠으나 그 베이스가 한국인이며, 한인 사회에서 크고자 한다면 한인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 한인 네트워크가 가장 잘 되어있는 곳은 보통 종교집단이다. 한인 교회 혹은 한인 성당을 위주로 한인 네트워크가 가장 잘 되어있고, 또 가장 편하게 인간관계를 넓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 또한, 한인 교회를 통해 한번은 인도네시아의 깔리만탄이라는 섬으로 여러 한인 청년들과 함께 캠프를 가게 되었다. 근데 이게 웬걸 깔리만탄 공항에 도착해보니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기업의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캠프 장소는 그 기업의 깔리만탄 사업장이었다. 2박 3일간 그 사업장의 베이스 캠프에서 묵으며 회사 견학은 물론, 직원들과 운동도 함께하며 사내 분위기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인 교회를 다니시던 회사의 임원분께서 배려해주신 것이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한인 교회가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하며, 처음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꿀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한번은 KOTRA에서 기업간담회가 열렸다. 때마침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이 참석하였고, 각 기업의 소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나는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담당 임원에게 질문했다. 회사에 관심이 무척 많으며, 당신의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력서를 보내드리면 되겠는가 하고 말이다.

담당 임원께서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며 한번 보내보라고 하셨다.

그다음 주인가, KOTRA에서 또 한 번 행사가 열렸고, 우연하게도 그 임원분도 참석 하시게 되었다. 바로 곁으로 다가가 여쭙었다. 제 이력서 확인하셨냐고. 그리고 회사로 한번 찾아봐어도 되겠느냐고. 그러자 부하 직원 연락처를 하나 주셨고, 회사로 찾아오라고 하셨다. 다음날 바로 전화를 드리자 받으신 분은 언제가 시간이 괜찮으니 그때 한번 찾아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약속된 날 회사로 찾아갔다. 물론 혹시 모르니 정장을 입고 갔는데 웬걸, 회사로 찾아가자마자 방으로 안내받았고 면접을 봤다. 그리고 그 이후 몇 차례 과정을 거쳐 끝내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

해외 취업에 대한 조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해외 취업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조언들이 있겠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바로 내가 왜 이 곳에서 취업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아닌 해외까지 와서 취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러한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기 매우 쉽다.

따라서, 해외 취업을 원한다면 왜 해외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지, 꼭 이곳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구해놓고 취업시장에 뛰어들기 바란다. 그래야 목표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사실 취업이 끝이 아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평생 해외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정말 바라던 삶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들이 무수히 많다. 해외에서의 삶은 불편하다. 치안, 식수, 물가, 언어, 결혼 등 언제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요소는 많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있어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버틸 수 있다.

이봐, 해봤어?

정주영 회장 어록 중 유명한 말이 있다. “해봤어?” 사실 이 말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와 닿는 말은 없다. 취업이건 회사생활이건. 해본 사람만이 얻는 것이 있다. 해본 만큼 자신의 세상이 넓어진다. 그러니 해보라. 혹여 누가 알까, 해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일지.

PART
05
취업비자



01
취업비자 종류

-

02
취업비자 신청 및 취득





01 취업비자 종류

01. 개요

인도네시아 비자의 종류는 크게 방문비자와 제한적 체류비자로 분류된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취업용 비자라는 개념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문비자는 무비자, 도착비자, 방문 비자, 복수 비자가 있으며 제한적 체류비자로는 동거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실버비자, 장기체류비자가 있다. 즉, 취업의 경우 발급되는 제한적 체류비자가 1차 고려 대상이 된다.

방문 비자는 무비자, 도착비자, 방문비자(사회문화/상용비자), 복수비자가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30일간 체류 후 연장이 불가하다. 도착 직후 해당 공항이나 항구에서 비자발급 시 입국 후에 1회 연장을 허용한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사전에 발급받는 방문비자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60일 체류를 허가하며 4회까지(1회 연장 시, 최대 30일) 연장을 허용한다. 복수 비자로 입국 시 연장이 불가하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인에 한해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에 취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체류 기한과 비자 방문 횟수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정작 입국이 필요한 시점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낭패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방문비자 종류별 세부내용

비자종류	방문비자			
	무비자	도착비자	방문비자 (사회문화/상용비자 등)	복수비자
목적 및 체류활동	1. 관광 2. 가족방문 3. 사회활동 4. 문화예술활동 5. 공무 6. 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석 7. 인도네시아 본사 또는 지사의 업무상담 8. 경유	1. 공무 2. 교육 3. 사회문화 4. 관광 5. 업무상담 6. 가족방문 7. 취재 8. 경유	1. 공무 2. 교육 3. 사회문화 4. 관광 5. 업무상담 6. 가족방문 7. 취재 8. 경유	1. 공무 2. 상용 3. 가족방문
비용	수수료 없음	USD 35	USD 50	USD 110
체류 기간	30일	30일(최대 60일)	60일(최대 210일)	60일(최대 1년)
체류허가 연장	불가	1회 연장가능 (30일 이내) 체류자격 변경불가	4회 연장가능 (30일 이내) 조건부 체류자격 변경가능	불가
비자 신청 및 발급	124개 지정공항, 항만, 국경	68개 지정 공항, 항만, 국경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연령 제한조건	제한 없음			
공통사항	귀국 및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별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비자 및 복수비자의 경우 추가 준비사항 : 여권 사본(단수여권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복수여권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신청서 및 보증 레터, 은행거래 계좌 사본, 재입국 허가증(국적이 없거나 난민의 경우 해당)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으로의 비자 허가 텔렉스 : 10만 루피아 			

자료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이민청(2018년 7월 기준)

제한적인 체류비자는 KITAS와 KITAP으로 나누어진다. KITAS는 통상적으로 1~2년 사이 완료되며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이다. KITAP은 위 6가지의 체류 목적에 한해 5년까지 장기적인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이다. 특이사항은 5년 체류 후 연장 시 무제한 체류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 제한적 체류 비자 종류별 세부내용

KITAS				KITAP
동거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실버비자	장기체류허가
1.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국제결혼 2. 가족동거(부부) 3. 가족동거 (미성년자녀)	취업	유학	은퇴 후 휴양	1. 종교인 2. 근로자 3. 투자자 4. 노후휴양 5. 국제결혼 6. 장기체류허가 소지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6개월 이하 : USD 55 1년 : USD 105, 2년 : USD 180 * KITAS/K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수수료 별도	
1년	1~2년	1~2년	1년	5년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연장가능(5년 체류 후 연장 시 기간 제한 없음)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 공관에서 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성의 허가서(cable) 획득 후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인도네시아 입국 후, 관할 이민성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부부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노동부 허가 내용에 따름	교육부 추천서 내용에 따름	55세 이상 별도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체류 기간 1년의 경우 : 18개월 이상 • 체류 기간 2년의 경우 : 30개월 이상				

자료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이민청(2018년 7월 기준)

비자 발급은 각국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관광객의 경우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만,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



호주 등 68개국에 대해서는 공항(또는 항구)에 도착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교관, 관용여권의 경우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2004년 5월부터 14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4년 6월부터 한국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14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최장 3개월 부여). 일반 여권의 경우 현지에서 30일 체류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도착비자 발급비용은 35달러이며, 30일간 추가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단, 2015년 6월 9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입국(호텔 체류, 관광 목적 확실)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도착비자 받는 요령은 공항 입국심사 전에 도착비자 받는 창구가 있으므로 이 창구에서 먼저 비자 수수료를 내고, 다음 창구에서 여권 상에 도착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는다. 그러나 무역사절단과 같이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루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은 기내에서 도착비자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공항과 항구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02. 취업비자의 종류

최근 인도네시아는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도착비자(관광비자 / On Arrival Vis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던 한국인이 인

도네시아 이민국 직원의 불시 검문으로 여권을 빼앗긴 사례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사전에 대사관과 연락한 후 반드시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하다.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사용계획서(RPTKA)에 의해 발급받은 TA01(임시비자용추천서), (2) 외국인고용허가(IMTA)이다. 상기 2가지 서류 준비 기간은 약 2달 정도 소요되며, 비자신청 시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회사 측 서류와 외국인(한국인)의 서류가 각각 필요하다.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KITAS		
비자종류	취업, 동거비자(허가기간 30일)	수수료 USD 64
	취업, 동거비자(허가기간 6개월 이하)	수수료 USD 55
	취업, 동거비자(허가기간 6개월 초과)	수수료 USD 105
	취업, 동거비자(허가기간 2년)	수수료 USD 180
6개월 이하 : USD 55 1년 : USD 105, 2년 : USD 180 * KITAS/K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기간	1~2년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 공관에서 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성의 허가서(cable) 획득 후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인도네시아 입국 후, 관할 이민성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여권 잔여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 기간 1년의 경우 : 18개월 이상 체류 기간 2년의 경우 : 30개월 이상 		

자료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이민청(2018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경우, 엄격하게는 취업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취업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경우 취득하게 되는 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를 취업목적으로 비자를 획득하는 경우는 전문가(expert), 투자자(investor), 전문가(WTO 직원)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제한체류허가(KITAS)의 활동범위는 취업(전문가, 성직자, 생산품질 관리, 기사, 감사, 기계 설치 및 보수 의료 등), 비취업(투자, 연구, 유학, 가족동거, 국제결혼자 등)으로 분류된다.

셋째, 현지에서의 취업도 가능한 영구체류허가(KITAP) 대상자는 3년 이상 KITAS 소지 성직자, 전문직, 투자자, 고령자 또는 2년 이상 국제결혼을 한 대상자이며, KITAP 소지 배우자 및 자녀, 인니 국적 포기(이탈자)로 하고 있다. 다만, 1년 이상 해외체류, 외국인 불법고용, 국제결혼자 중 10년 이내 이혼자는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02 취업비자 신청 및 취득

01. 취업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KITAS: artu Izin Tinggal Terbatas, 단기체류증)

외국인 등록 및 제한체류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90일 이상 체류 시 등록(BUKU BIRU)을 해야 하며, 제한체류사증 소지자는 KITAS 신청 시 등록하게 된다. 또한 방문비자 소지자는 최초 연장 시 등록하고, 제한체류허가(KITAS) 신청은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이민국 신청해야만 한다.

유의해야할 사항은 7일 초과 시 체류 기간 초과로 처벌(1일 20만 Rp 벌금)받을 수 있다. 현지 보증인의 의무도 중요한 유의사항으로 숙지해야 한다. 첫째, KITAS, KITAP 소지자(국제결혼자 제외)는 보증인(Sponsor)을 두어야 한다. 둘째, 보증인은 외국인의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체류를 보증한다. 부수적으로 자격 및 주소변경 등 신고의무 부과 및 외국인의 귀국경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5천만 Rp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사업체가 갖추어야 할 서류이다.

첫째, 외국인력 사용 계획서 RPTKA(The Expatriate Placement Plan), 외국인 인력고용허가서IMTA(License to Hire Foreign Workers), 외국인 노동허가서 IKTA(Working License for Foreigners), 한정체류비자KITAS (Limited Stay Visa Card)이다. 먼저 스폰서가 해외 투자기업(PMA)이라면 ‘외국인력 사용 계획서(RPTKA)’를 인력부와 투자조정청(BKPM)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된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1년간 일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갱신된다. 특히 간부급인 사장, 이사 등은 3년 동안 일할 수 있고, RPTKA는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체의 RPTKA가 승인되면 업체는‘외국인 인력고용허가’IMTA를 받게 되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허가서’IKTA와‘한정체류비자’KITAS를 발급받기 위한 요구조건이다.

둘째, DPKK(Skill and Development Fund Fee) 기술개발 기금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외국인 노동자 1 인당 한 달에 미화 100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DPKK라고 부른다. 이 기금은 인도네시아의 인적 자원의 개발과 훈련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며 환불되지 않는 기금으로서 노동 허가가 승인되기 전에 지불해야한다. 취업 비자 기간에 맞는 비용을 선지불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



자는 인도네시아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특정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하도록 분류되어있다. 회사의 RPTKA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있는지 입증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자금 DPKK는 KITAS 한정체류 비자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ITAP/KITAP(Permanent Stay Permit) 영주허가증이 필요하다. 영주 허가 ITAP은 이민국에서 여권에 인증도장이 찍히고 영주허가를 설명하는 문건에 기록된다. 하지만 KITAP은 영주허가를 증명하는 카드로 ITAP이 허용된 후 발급된다. 신청비용은 400만 루피아 정도이며, 약1,000만 루피아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이 비용은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진행절차	구비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UU No.7 Wajib Lapor</p> <p style="text-align: center;">* Kitas</p> <p>RPTKA(외국인 채용계획) TA. 01(노동부 비자 추천) VTT Telex(단기체류비자케이불전송) DPKK(노동부 발전자금) IMTA(취업 허가서) KITAS(단기체류증) POA(이민국 신고서) STM(거주 지역경찰서 신고) SKSKPS(거주 지역 신고) SKTTS(지역 총축청 신고) Laporan Keberadaan(지역노동부 신고)</p>	<p>법인 준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청 사업허가서(Izin Prinsip) or IUT • 회사 투자청 투자 승인서(PPM) 사본 • 회사 정관(Aka Pendirian) 사본 • 회사 소재지 증명(Domosisli) 사본 • 회사 세적등록(NPWP) 사본 • 회사 법무부 등재서(SK KEHAKIMAN) • 회사 고정사업체허가(IUT:IZIN USAHA TETAP) • 현지 직원 2명의 KTP 사본(스폰서) • 외국인 : 현지 직원 (1:2 이상) • 회사 레터지(KOP SURAT)/직인(STAMP)
	<p>개인 준비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 Keluarga(동반가족)</p> <p>VTT Telex(단기체류비자 케이불 전송) KITAS(체류허가서 이후) 상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전체 페이지 사본(잔여기간 최소 18개월) • 영문이력서 • 영문 최종 졸업증명서(최소 4년제 대학) • 개인 보험 증서(영문) • 사진(2×3, 3×4, 4×6) 각 10장 ※ 뒷 배경 붉은색, 카라 있는 상의 착용
<p style="text-align: center;">* Exit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p> <p>단수 : 3개월간 1번 출입국 가능 보수 : 6개월간 여러 차례 출/입국 가능 복수 : 1년간 여러 차례 출/입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 Buku Biru (KITAS 진행 시 발급) • KITAS

모든 준비서류는 2014년 1월 6일부로 칼라복사본이어야 함

02. 취업비자 발급 소요기간

내용	소요기간			총소요기간
	3일			
UU No. 7 Wajib Lapor	3일			43일
RPTKA(외국인 채용계획)		25일		
TA. 01(노동부 비자 추천)				
VTT Telex(단기체류비자 케이블 전송)				
DPKK(노동부 발전기금)		15일		
IMTA(취업 허가서)				
KITAS(임시 체류 허가증)				
POA(이민국 신고서)				
STM(거주 지역경찰서 신고)				
SKSKPS(거주 지역 신고)				
SKTTS(지역 종족청 신고)				
Laporan Keberadaan(지역노동부 신고)				

03.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예정인 경우, 인도네시아 인력이 주부에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지원자의 profile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에는 TA01(직책을 의미하는 코드 : 인도네시아 인력이 주부에서 취업을 허가한다는 추천서)이라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코드는 동일하고 어느 것을 원하는가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

둘째, 보증인(sponsor)이 보증한다는 스폰서의 보증서(가능하면 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 좋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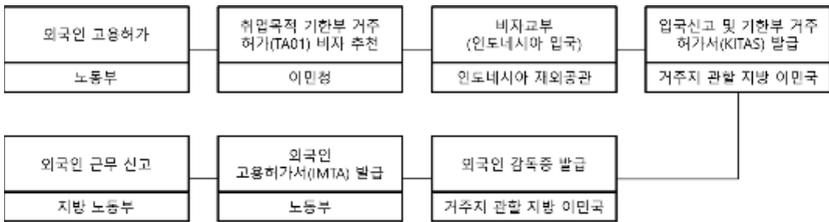
셋째, 스폰서 회사가 세금을 냈다는 서류(NPWP)와 스폰서(인도네시아인)의 ID카드(스폰서 KTP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현지 취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상기 서류가 구비됐을 경우,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서류를 이민청으로 가져 오면 직원들이 접수하고 처리를 해주며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비자신청을 받은 후 3일 정도가 걸린다. 또한 비자신청을 받으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에 3일 이내에 서류를 송부하게 되고, 비자승인서를 신청자가 대사관(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가서 수령되면 된다.

참고로 해외주재의 대사관에서도 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인도네시아의 비자담당기관은 법무인권부 이민청에서 출입국관리 업무수행 및 사증 담당(보청, 지방사무소 108개소, 직원 총 580여 명)하고 있으며, 비자발급은 각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민법은 인도네시아 내 거주 및 노동에 관련된 어떤 부문에 있어서도 복종 되어야 하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민법 위반은 가혹한 처벌을 초래한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거주 기간을 넘긴다면 하루에 최소 30만 루피아에서 200만 루피아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 시 즉각 추방될 수 있으므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거주 신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KITAS 한정체류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해당 거주지의 경찰서에서 자신의 거주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정 체류허가증 ITAS나 영주허가증 ITAP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지역사무소에서 외국인 신분증 KTP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무료이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다.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에 첨부된 비자카드 그리고 여권용 사진이 있으면 된다. 또한 외국인 신분증을 가지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공항 등에서 여권을

대신할 신분증으로 이용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 은행 계좌개설 인도네시아 운전 면허증(5년간 갱신 가능)에 증명서로 사용된다.

현지 생활 중 만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원본서류와 복사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간혹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들은 원본 문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적어도 3부의 복사서류를 만들어 집과 별도로 본인이 챙겨두길 권한다. 만일 원본서류를 들고 다니다 분실한다면 재발급 받기 위해 또다시 어려운 절차를 반복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은 이민청 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합법적인 서류를 갖고 거주하고 있는지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이에 여권과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 후, 한국에 귀국하거나 타국을 여행하는 등 재입국 허가와 비자 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재입국허가 MERP(Multiple exit/re-entry permit)라는 용어가 있는데 한정체류비자 ITAS 및 영주비자 ITAP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인 인도네시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에서 MERP 즉 ‘복수출국 및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여권 안에 도장형태로 찍히고 이 허가를 받으면 MERP 유효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인도네시아를 출국하고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체류비자를 발급 시 한꺼번에 재입국 허가서를 내주고 있지만 외국인인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의 사항은 MERP기간과 ITAS와 ITAP 유효기간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비자연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01
정착

-

02
생활

-

03
생활 에티켓





01 정착

01. 집구하기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아파트, 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997년 폭동 이후 단독주택의 보안을 보장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아파트로 거주지를 선택, 외국인 및 부자들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전반적 부동산 경기가 상승 추세를 보여 자카르타 지역의 아파트 임차료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방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주로 찾는 고급 아파트의 경우, 월 임차료가 2,500~3,000달러 사이에 형성돼 있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매니지먼트 회사가 운영하는 아파트로 나뉘는데 대부분 개인소유의 아파트가 많으며, 이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한 임차 절차가 일반적이며, 아파트들은 Full / Semi / Non Furnished 등으로 구분되고, 각 형태에 따라 같은 아파트라도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 최소 임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며, 장기 임차의 경우, 임차 기간 전체에 대한 임차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목돈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전력사용료의 경우 다소 비싼 편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방 3개 기준 월 전력 사용료가 200달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에어컨을 입주자가 구입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을 구할 때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 사정이 한국처럼 좋지는 않아 대도시인 자카르타에서도 사무실 및 주택에 정전이 종종 발생하므로 비상 전등이나 촛불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가 아닌 LPG 가스통을 매월 또는 격월에 1회 교체해가며 사용하고 있다.

02. 교통편

④ 대중교통

1997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치안불안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방문객 특히 외국인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으므로 버스 등 대중교통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BUS WAY라고 해서 전철 대신에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전용도로 이용 버스는 그중 서비스가 나은 편이므



로, 대중교통수단 중에는 그나마 가장 추천할 만한 교통수단이다. 1회 탑승 시 3,500 루피아(KEB 하나은행 고시 10/1 매매기준율 IDR 100= KRW 7.47 기준, 한화 약 2,450원)이다.

택시 이용은 쉬운 편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블루버드 택시의 기본요금인 6,500루피아(약 585원)로 매우 저렴한 편이나 외국인에게는 길을 돌아가거나 잔돈이 없다는 방식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개인의 치안을 위해 언쟁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처신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 구입 방법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본인 소유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임시거주비자(KITAS)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의 구매절차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차량 보험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차량보험의 경우에는 1년 보험료가 보통 차량 구매금액의 2~2.5% 사이로 형성된다.

차량 구입 후 인도받은 시점에서 약 3주에서 길게는 1달 정도 사이에 정식번호판이 교부되고 차량등록증(STNK)이 발급되며, 자동차 세금은 1년에 한 번씩 삼샷(Samsat)이라는 관청을 통해 부과하면 된다. 특이한 점은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5년 주기 갱신해야 하며, 자동차소유증(BPKB)은 차량 구입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급되는데 해당 소유증이 없을 경우에는 매매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의 구입은 의외로 간단한데, 앞서 설명하고 있듯이 실제로 시내에서 운전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02 생활

01 물가정보

☰ 인도네시아 물가정보

구분	항목	가격(USD)
식품류	쌀 10kg	1.12
	계란 12개	1.68
	쇠고기 등심 1kg	13.44
	닭가슴살 1kg	4.19
	사과 1kg	2.51
	우유 1L	2.10
	생수 1.5L	0.42
	맥주(Bintang, 1병)	1.50
	담배 1갑(던힐)	2.27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2.97
	김치찌개 1인분	7.65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 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1,785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60.15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29.41
차량관련	중형승용차(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6,038
	무연 휘발유 1L	1.04
	자동차 등록비	가격의 2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451.12
교통비	대중교통 기본요금(편도)	0.28
	택시 기본요금	0.45
	택시 1km당	0.24
통신	시내전화 요금(3분)	0.05
	국제전화 요금(3분, 한국으로 걸 때)	2.11



구분	항목	가격(USD)
통신	휴대전화 요금(월 표준 1분)	0.18
	인터넷 월 사용료(ADSL 기준)	25.99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8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중상급)	22,7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중상급)	26,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중상급)	26,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18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120
임금/노무	대졸 초임(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 회사 초임 월급여)	500
	생산직 초임(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251.7
	매니저급 급여(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112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간휴가일수	3개월
	연간 국경일수(2018, 대체 공휴일 포함)	24일
	주5일 근무 여부	부분시행
기타	드라이크리닝(정장 1벌 기준)	5.64

자료: 2018년 7월 기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조사(1달러=Rp.14,520, 18. 7. 2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환율)

인도네시아의 물가수준은 통상적 대졸초임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는 꽤 높은 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매니저급으로 취업하는 경우 월 급여를 100~15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다. 시내 중상급의 아파트를 구하기 위한 월 임대료가 25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물가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필품의 가격은 또 매우 저렴하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정성 비용 또는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크고 일상적 소비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소 적은 편이라 이해하면 쉽다.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등의 가격은 한국의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 많이들 놀라곤 한다.

02. 은행통장개설

인도네시아 은행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한국에 비해 불편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취업 후, 은행통장개설을 위해서는 (1)소속회사의 후원서와 (2)여권, (3)ITAS 사본이 필요하며, US\$ 개인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최소 보증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각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및 국내 은행이 소재하고 있다. 루피아와 외화(주로 US\$) 저축 및 당좌 예금, 정기 예금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와 직불 카드 계정 그리고 외환 서비스 모두를 제공한다. 개인별 안전 금고(Personal Safety Box : PSB)도 일부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급여를 USD가 아닌 루피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루피아 저축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03. 휴대폰 개통

인도네시아는 GSM과 CDMA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GSM이 먼저 도입돼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CDMA는 2003년 말 처음 도입돼 아직 점유율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통화 품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휴대폰은 SIM 카드를 장착하는 형태이며, 요금도 미리 카드를 사서 입력하는 선불제가 대부분이다.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 공항 이외에는 공중전화 이용이 어려우므로, 현지에서 저렴한 휴대폰과 통화 바우처(5만, 10만 루피아)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휴대폰이 있을 경우 SIM 카드만 구입하여 기존 SIM 카드와 바꾸어 끼거나 선불카드(보통 10만 루피아)를 사서 요금을 입력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도 저가폰은 30만~50만 루피아(40~60달러)면 구입이 가능하다.

04. 각종 유틸리티 개설

인도네시아의 통신환경은 열악한 편에 속하여 통화 품질도 저조하고 고장이 빈번하

다. 또한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다. 수도의 경우에는 수질의 불량으로 음료로는 사용 불가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지하수보다 상수도가 훨씬 좋으므로 상수도 사용을 권장하는 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식수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5. 병원 이용

인도네시아의 한국 내 일반 의약품은 현지 열대 기후의 특성상 큰 효능이 없으며 다만, 항생제, 지사제, 파스, 모기약 정도는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다. 한국 식품점에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한국 의약품이 일부 존재하나 가격이 국내의 2~3배이다.

☐ 한국계 소재 병원 연락처

병원명	연락처
뉴월드 메디칼 클리닉	62-21-7279-3809
마타하리 메디칼 클리닉	62-21-739-5885
아름다운 병원	62-21-720-7628
신농씨한의원	62-21-725-1801
관준한의원	62-21-739-7854
서울 치과	62-21-799-6169
OK 치과	62-21-720-1779

☐ 현지 주요 병원 연락처

병원명	연락처
RS MEDISTRA	62-21-521-0200
RS PONDOK INDAH	62-21-765-7525
BRAWIJAYA WOMEN AND CHINDREN HOSPITAL(Kemang)	62-21-2271-7656

06. 우편

우편 이용 시 연착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종종 발생하므로, DHL 등 속달 이용을 권장한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닌 제품 샘플 등을 보낼 경우 DHL보다는 우체국 EMDS 등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통관에 도움이 된다.

현지 우체국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시부터 15시까지 이용가능하다.

07. 긴급상황 시 연락처

☰ 긴급 상황 시 연락처

경찰(Polisi)	112
앰블런스	118, 119
화재신고	113

08. 유용한 앱

☰ 인도네시아 생활에서 유용한 앱

종류	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도보, 차량, 대중교통 이용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완성방식 인도네시아 내에서 활용도가 높고 디스플레이 탁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이 불편한 동남아시아 중심의 택시 어플리케이션 할인코드 적용 등 가격 프로모션이 활성화

종류	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내에서 활성화 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 택시, 오토바이뿐 아니라 음식배달 서비스 • e-money 지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배달 및 정보 서치 어플리케이션 • 음식배달, 인근 음식점 등의 메뉴, 가격 등 정보 제공

09.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월평균 미화 200달러 정도 소요(방 3개 기준)되며, 전화와 수도료는 사용량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비는 별도로 청구되니 미리 알아봐야 한다.





03 생활에티켓

01. 국민성 및 풍습

왼손으로 용변을 처리하는 습관 때문에 왼손으로 사람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악수나 물건을 건네면 매우 큰 실례이다. 돈을 건네받을 때 왼손으로 받는 것 또한 큰 실례이다. 이슬람교도의 경우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을 금기해 지나가는 어린이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여성의 히잡에 붙은 머리카락을 정리해준다고 잡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더운 기후 조건과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 정서가 있어 일 처리가 한국인만큼 빠르지 못한 편이나 로열티가 형성될 경우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현지에서 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인들은 겉으로 보기는 온순하고 잘 웃으나 불만을 드러내고 표출하지 않아 업무를 과도하게 분배해주거나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할 경우 언젠가는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업무 회의나 회식 등으로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헤아려주며 독려해 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업무 지시 후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물을 시 현지인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물이 지시한 바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세부적으로 업무 방향을 지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업무적으로 괜찮다거나 할 수 있다는 답변은 주인의 요구사항에는 거절하면 안 된다는 현지인의 습성으로 인한 경우도 있어 고용주의 재량으로 업무 강도를 조절해줘야 한다.

02. 종교

인도네시아는 종교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부처에 종교만을 관장하는 부처(Ministry of Religious Affairs)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인의 신분증에는 반드시 본인의 종교를 기입하게 돼 있을 정도로 종교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 취업자들의 경



우 특별한 종교적 경향이 없다면 가급적 제약이 적은 종교를 해당 신분증 사항에 기입하는 경우가 잦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어 기타 종교 활동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슬람교를 비롯한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가지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구비율로는 이슬람교(87.2%), 기독교(6.9%), 가톨릭(2.9%), 힌두교(1.7%)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이슬람 국가로, 인구가 밀집된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폭넓게 분포돼 있다.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소개된 것은 13세기경으로 인도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도 여타 이슬람국가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음주를 금기시 하고 있으며, 하루 다섯 차례의 기도과 금요 예배, 단식월(라마단)을 지키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네덜란드 선교사에 의해 16세기 초 처음으로 소개됐으며, 20세기 들어 서양의 선교사들의 파송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슬라웨시 지역과 파푸아 지역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이 분포돼 있는 편이다. 가톨릭교의 경우, 16세기에 말루쿠(Maluku) 섬에 도착한 포르투갈 선교사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주로 파푸아와 플로레스 지방에 넓게 퍼져 있다.

03. 언어

인도네시아 공식어는 인도네시아어, 혹은 바하사 인도네시아어이다.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인들이 비즈니스, 정치계, 언론, 교육, 학계에서 공식어를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또한 수백 개의 지방어(방언)를 사용한다. 그중 자바어는 가장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파푸아, 오스트로네시아어(270만 명 사용) 등이 쓰인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는 언어의 표기를 위한 문자로 알파벳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어가 다양한 언어를 통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용어라는 점에 기인한다. 알파벳 발음이 쉬운 편이기에, 중국어나 베트남어와 같이 발

음 자체가 어려워서 언어를 배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편이며, 집중적인 언어 학습이 큰 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04. 인간관계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신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의 친분관계를 매우 중요시해 이러한 친분 관계를 비즈니스맨의 실력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체면을 중시하는 풍토가 형성돼 있다. 자신의 체면뿐 아니라 상대방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문제해결도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보다는 협상과 타협이 바람직하다.

05. 인도네시아 문화 관련 유의점

🔍 민족에 대한 언급 자제

인도네시아는 300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민족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종족에 대해 잘 알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하시 민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되기 쉬우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종족

- 자바족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45%를 구성하는 최다 종족이다. 70%가 자바섬에 거주하며자바어를 사용한다. 자바족은 예의가 바르고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바어는 지위, 나이, 친밀한 정도에 따라 쓰는 어휘가 달라진다.
- 순다족은 주로 자바섬 서부에 거주하고, 자바족 다음으로 큰 민족이다. 순다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다. 순다족도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다고 알려져 있고, 성격이 온순하고 수다스러운 편이다.
- 바딕족은 가장 엄격한 부계 중심의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부족으로 대부분 아체와 북부 수마트라에 거주하고 있다. 바딕족은 성격이 급하고 거친 행동과 말투로 한국인과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④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슬람교가 대다수이다 보니 이슬람문화가 지배적이다. 이슬람교도들에게 돼지고기와 술은 금기 식품이며 도박도 금지돼 있다. 이슬람교도들은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머리는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린이이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또한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회씩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기도실(Musollah)이 있다. 기도는 법으로도 보장된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한다. 업무 일과 중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동료 직원들의 모습에 적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슬람 문화의 화장실 사용법은 우리나라와 다소 다른 면이 있어,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다.

06. 의사소통 방식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Tidak'(아니오) 대신 'Belum'(아직) 혹은 'Kurang'(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현지어를 사용하면 문화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며 비즈니스 관계가 좀 더 원활한 경우가 있으며, 현지어를 모르더라도 미팅의 서두와 말미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뜨리마카시, Terima Kashi)" 등의 기본적인 현지어 표현을 사용하면 분위기가 좀 더 우호적으로 조성된다.

아침 인사 (오전 0시-오전 10시)	오전 인사 (오전 10시-오후 2시)	오후 인사 (오후 2시-오후 6시)	저녁 인사 (오후 6시-오전 0시)
슬라맛 빠기 (Semalat Pagi)	슬라맛 시앙 (Selamat Siang)	슬라맛 소레 (Selamat Sore)	슬라맛 말람 (Selamat Malam)

07. 시간관념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협상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빨리빨리’는 일의 정확성과는 관계없이 대충 처리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약속시간 미 준수에 대해 관대한 태도, 상대방이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부수적으로는 교통체증 및 기도시간으로 10분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라 시간관념이 경직돼 있지 않은 편이다.



PART
07
해외취업 Q&A



01 비자

-

02 유망직종

-

03 현지 언어 실력

-

04 갖추어야할 스펙

-

05 면접 시 유의사항

-

06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

-

07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

08 급여 수준

-

09 현지생활 시 주의사항



01 비자

Q. 인도네시아의 취업비자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A. 해외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는 30일 기준의 무비자 체류와 연장을 통해 30일 기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비자가 대표적이며, 단기방문비자의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비자 획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인도네시아에는 단기 방문비자와 단기 체류비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단기 체류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지 취업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취업준비자가 고려해야 할 비자는 1~2년 단위로 갱신되는 단기체류비자(KITAS)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소재 기업의 채용결정 및 비자 Sponsorship을 통해 채용 이후 회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우선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요건(25세 이상, 관련 분야 전공 및 5년 근무 경력 등)을 충족한 이후 현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비자문제의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용의사결정이 우선이되, 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지원자는 결과적으로 취업이 될 수 없기에 채용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비자취득 이후 1~2년 단위 갱신이 요구되기에 매번 비자 갱신 절차의 수행과 외국인 근무신고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2년 단위 발생의 경우 약 200\$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02 유망직종

Q. 인도네시아의 취업 유망 직종은?

A. 인도네시아는 자원개발(석탄, 석유, 목재, 팜오일, 가스)에 기반한 자원 수출입 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원산업과 더불어 섬유 및 봉제 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취업유망직종	세부직종
생산관리	공무관리, 생산 공정관리, 생산기획, 공정관리, 일부 엔지니어링 직무(장비 운용 등)
수출입통관 및 물류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보세 및 관세, 원산지 관리, 구매 및 물류관리, 제품재고관리
영업 및 마케팅	B2B 영업, B2C 영업, 제품마케팅, 브랜드관리, 영업관리, Account Management
경영관리	회계, 세무, 출납, 인사, 노무, 총무, 경영기획
서비스	판매서비스, 현장서비스, 호텔매니저

03 현지 언어 실력

Q. 현지 취업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및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A. 현지 취업을 고려할 경우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BIPA 어학원, G-YBM의 육성과정 등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언어에 대한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어의 중요성이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어 소통 능력도 5년 차 이후의 경력단계에서 반드시 요구된다. 즉, 어학적 측면에서 현지인 수준의 능숙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향후 취업비자의 요건으로도 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어로의 소통은 기본이다.

04 갖추어야할 스펙

Q. 인도네시아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할 스펙은?

A. 특정 분야에 대한 선호가 집중되지 않고, 또한 특별히 높은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는 상황이며, 오히려 한국에서 취득한 높은 스펙을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예,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의 자격증은 인도네시아에서 활용할 수 없음). 단 KITAS 비자 획득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에서의 5년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K-Move 멘토링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조언을 받도록 하자.

05 면접 시 유의사항

Q. 면접 시 유의사항은?

A. 인도네시아의 면접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나, 가끔씩 이슬람 문화의 특성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해프닝(시간약속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채용직무는 매니저급의 중간관리자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입직원의 의지와 패기도 중요하지만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면접 전략의 구성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상세한 이력서와 Cover Letter를 해당 기업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준비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

06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

Q. 졸업 경과 후 취업가능성은?

A. 졸업자와 졸업경과자의 취업 가능성 측면에서의 유불리는 크게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 경과자가 만약 인턴십과 현장실습 등의 경험을 간헐적으로라도 축적해온 경우라면,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비해 더 나은 취업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단,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단기체류 비자의 연속 발급과 잦은 공항 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체류 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K-Move 멘토링 또는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07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Q. 근로계약시 유의사항은?

A.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와 규정은 우리나라에 비해 좀 더 명확하고 강력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상한제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 정착되어 있고,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등도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재무상황이 견실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등에 대한 편법과 불법고용의 행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현지의 고용컨설팅 업체와 KOTRA, 대사관의 노무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구두로 이야기를 한 임금 수준에 대한 내용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4가지 보험에 대한 지급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문서로 정리된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08 급여 수준

Q.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급여의 경우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는 편으로, 자카르타 소재 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 중 금융, 컨설팅, IT, 자원개발, 제조업의 순으로 급여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McKinsey & Company, A.T. Kearny, Deloitte Consulting 등이 모두 진출해 있으며 현지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경우 자카르타 (4,573,845루피아), 파푸아(3,561,932루피아)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1순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중견 규모의 한국계 기업의 경우 월 수령액 기준 초임기준 150~200만 원 정도로 매니저급 처우를 받기에 현지채용인에 비해 상대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이 수준에서 시장 우리 인력들의 시장임금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신입 현지채용인력의 급여 수준에 비해서는 2~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09 현지 생활 시 주의사항

Q. 현지 생활 시 주의할 사항은?

A. 인도네시아는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지만,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군부독재의 치하에 있었던 정치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였다. 현재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은 사실상 최초의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치적 안정성도 개선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 중인 국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치안과 안전의 문제이다.

이슬람 국가이고 평온한 국민성을 가진 인도네시아이기에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높거나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우범지역에서 야간 활동은 현지인들도 매우 꺼리는 위험한 행동이다.

동시에 교통사고도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체증의 국가이다. 특히 외국인과 현지인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외국인은 꿈쩍없이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외국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치안과 안전의 측면에서 항상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인도네시아

도서명 해외취업 완전정복 독일
발행인 어수봉
발행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일 제1판 1쇄 2018년 11월 22일
제1판 2쇄 2022년 9월 30일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문의처 1577-9997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지은이 방호진, 윤동열
디자인 초아출판사

ISBN 979-11-5799-471-7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